

---

# 전라북도 산업입지수급계획

(2016~2025)

---

2019년



# 목 차

<b>제1장 과업의 개요</b>	<b>3</b>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과업의 범위	4
1. 시간적 범위	4
2. 공간적 범위	4
3. 내용적 범위	4
제3절 과업 수행 방법	5
<b>제2장 전라북도 산업입지 추이</b>	<b>9</b>
제1절 전라북도 산업 현황	9
1. 개요	9
2. 시·군별 산업 현황	10
3. 업종별 산업 추이	14
제2절 전라북도 산업입지 추이	18
1. 개요	18
2. 시·군별 산업입지 추이	20
3.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현황	22
제3절 전라북도 산업단지 추이	26
1. 산업단지 보유현황	26
2.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31
<b>제3장 전라북도 산업입지 정책 방향</b>	<b>35</b>
제1절 산업입지 정책 추이	35
1. 1960년대: 산업입지 제도의 기반 마련	36
2.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 거점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36
3. 1980년대: 국토균형개발에 역점	37
4. 1990년대: 산업입지제도 정비와 지역간 균형적 산업발전 역점	38
5. 2000년대: 혁신창출 경제로의 전환	39
6. 최근의 산업입지 정책	40

제2절 전라북도 산업발전 동향 .....	42
1. 전라북도 산업발전 동향 .....	42
2. 전라북도 산업육성정책 .....	43
제3절 전라북도 산업입지 관련 정책 .....	50
1. 정부의 관련 정책 .....	50
2. 전라북도 관련 정책 .....	55
제4절 전라북도 산업입지정책 기본 방향 .....	60
1. 전라북도 산업입지 여건 .....	60
2. 전라북도 산업입지정책의 기본 방향 .....	62
 제4장 산업입지 공급계획 상위계획 평가 .....	 67
제1절 제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현황 및 평가 .....	67
제2절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현황 및 평가 .....	69
제3절 산업입지공급계획(2011~2020)의 현황 및 평가 .....	71
제4절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7~2026)의 내용 .....	73
 제5장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요전망 .....	 77
제1절 산업입지 수요전망 방법론 .....	77
1. 추세치에 의한 방법 .....	77
2. 원단위법 .....	83
3. 기타 방법 .....	84
제2절 산업입지 수요추정 .....	85
1. 수요추정 방법 .....	85
2.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요추정 .....	87
3. 시·군별 산업입지 수요추정 .....	98
 제6장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	 105
제1절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	105
1. 공급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105
2. 계획입지 공급규모 .....	105
3. 산업입지 공급계획 .....	109
4. 산업단지 공급계획 .....	110

제2절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	111
1. 시·군별 계획입지 공급규모 .....	111
2.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2016~2025) .....	114
3. 시·군별 산업단지 공급계획(2016~2025) .....	115
 제7장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 활성화 .....	119
제1절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	119
1. 전라북도 노후 산업단지 현황 .....	119
2. 전라북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재생계획 .....	121
3. 전라북도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향 .....	123
제2절 투자유치 및 산업용지 공급 지원 .....	126
1.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	126
2. 산업단지 개발 지원 .....	128
 부록 .....	131
부록 I : 시도별 의견 수렴 결과 .....	131
부록 II :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	151



# 표 목 차

<표 2-1> 전북 제조업 변화 추이 .....	9
<표 2-2> 지역별 제조업 사업체 수 추이 .....	10
<표 2-3>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수 추이 .....	11
<표 2-4> 지역별 제조업 출하액 추이 .....	12
<표 2-5>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액 추이 .....	13
<표 2-6> 업종별 사업체 수 추이 .....	14
<표 2-7> 업종별 종사자 수 추이 .....	15
<표 2-8> 업종별 출하액 추이 .....	16
<표 2-9> 업종별 부가가치액 추이 .....	17
<표 2-10> 전국 시도별 공장용지 변화 추이 .....	18
<표 2-11> 전국 시도별 공장입지 현황(2015년) .....	19
<표 2-12> 전북 시·군별 공장용지 변화 추이 .....	20
<표 2-13> 전북 시·군별 공장용지 비중 추이 .....	21
<표 2-14> 입지유형별 고용현황 .....	22
<표 2-15> 입지유형별 용지/제조/부대시설 현황 .....	23
<표 2-16> 입지유형별 업종 현황 .....	24
<표 2-17> 입지유형별 업종 비율 현황 .....	25
<표 2-18> 전북 산업단지 현황 .....	26
<표 2-19> 전북 국가산업단지 개발현황 .....	27
<표 2-20> 전북 일반산업단지 개발현황 .....	28
<표 2-21> 전북 농공단지 개발현황 .....	29
<표 2-22> 전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현황 .....	30
<표 2-23> 전북 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 현황 .....	31
<표 3-1> 산업입지정책의 변천 .....	41
<표 3-2> 전북경제 현황 .....	42
<표 3-3> 전라북도 전략산업 및 중점육성분야(2003년) .....	45
<표 3-4> 농생명·식품산업 추진전략 .....	47
<표 3-5> 탄소·방사선 융복합소재부품산업 추진전략 .....	47
<표 3-6> ICT·SW융복합산업 추진전략 .....	48
<표 3-7> 자동차·조선해양·기계산업 추진전략 .....	49
<표 3-8> 그린에너지산업 추진전략 .....	49
<표 3-9> 전북의 산업발전축 .....	61
<표 3-10> 새로운 산업공간의 요소특성 .....	63
<표 3-11> 새로운 개념의 산업입지 특성 .....	63
<표 3-12> 준공 후 20년 경과 전북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2015년 12월말 기준) .....	64

<표 4-1> 지역별 공장용지 공급계획 .....	68
<표 4-2>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2002~2011) .....	70
<표 4-3>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2011~2020)의 산업용지 수요추정 .....	72
<표 4-4>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2011~2020) .....	72
<표 5-1> 업종 재분류 기준 .....	85
<표 5-2> 지수평활법(Brown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	87
<표 5-3> 지수평활법(Holt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	88
<표 5-4> 과거 추세치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	89
<표 5-5> 전라북도 업종별 생산액 원단위 추정치 .....	90
<표 5-6> 지수평활법(Brown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업종별 생산액 추정 .....	91
<표 5-7> 지수평활법(Brown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업종별 부지면적 추정 .....	92
<표 5-8> 지수평활법(Holt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업종별 생산액 추정 .....	93
<표 5-9> 지수평활법(Holt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업종별 부지면적 추정 .....	94
<표 5-10> 생산액 원단위법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	95
<표 5-11> 전라북도 산업용지 수요추정 보정 결과 .....	96
<표 5-12> 전라북도 산업용지 수요추정 종합 .....	96
<표 5-13> 지수평활법(Brown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시·군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	99
<표 5-14> 지수평활법(Holt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시·군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	100
<표 5-15> 전라북도 시·군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종합 .....	101
<표 5-16> 전라북도 시·군별 부지면적 순수요 .....	101
<표 6-1> 최근 5년 간의 입지유형별 전라북도 공장용지 면적 추이 .....	106
<표 6-2>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미개발·미분양 면적 현황(2015년말 기준) .....	107
<표 6-3> 전라북도 계획입지 공급규모 .....	108
<표 6-4>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2016~2025) .....	109
<표 6-5> 전라북도 산업단지 공급계획(2016~2025) .....	110
<표 6-6> 전라북도 산업단지 유형별 공급계획(2016~2025) .....	110
<표 6-7> 시·군별 산업단지 조성계획 현황(2016년) .....	111
<표 6-8> 시·군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현황(2015년) .....	112
<표 6-9> 시·군별 계획입지 공급규모(2016~2025) .....	113
<표 6-10>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2016~2025) .....	114
<표 6-11> 시·군별 산업단지 공급계획(2016~2025) .....	115
<표 7-1> 준공 후 20년 경과 전북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2015년 12월말 기준) .....	119
<표 7-2> 전라북도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의 준공 후 20년 경과 시기 .....	120
<표 7-3> 전북지역 소재 노후산업단지 진단결과 .....	123
<표 7-4>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제도 .....	127

# 그 립 목 차

<그림 1-1> 과업 수행 과정 .....	5
<그림 2-1> 전라북도 산업단지도 .....	27
<그림 3-1>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전략의 변화과정 .....	43
<그림 3-2>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전라북도 전략산업 개편(2012~2014) .....	45
<그림 3-3> 전라북도 5대 성장동력산업과 육성방향 .....	46
<그림 3-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	50
<그림 3-5>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추진 전략 .....	52
<그림 3-6> 시·도별 주력산업 및 시·도간 경제협력권산업 .....	52
<그림 3-7> 전라북도 공간발전구상 .....	53
<그림 8-1> 전라북도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	55
<그림 8-2> 공간구조 발전축 설정 .....	56
<그림 3-8> 지역산업육성 목표 및 전략 .....	57
<그림 3-9> 새만금의 비전 및 목표 .....	58
<그림 3-10> 새만금의 권역별 개발방향 .....	59
<그림 3-11> 전라북도 산업발전 공간 구상 .....	61
<그림 4-1>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과정 .....	73
<그림 5-1> 과거 추세치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	89
<그림 5-2> 생산액 원단위법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	95
<그림 5-3> 전라북도 산업용지 수요추정 종합 .....	97
<그림 6-1>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과정 .....	105
<그림 7-1> 준공 후 20년 경과 시기와 해당 산업단지 개발대상면적 증가 및 누계(2015년말 기준) ....	119





##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 수행 방법



## 제1장 과업의 개요

###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는 10년마다 연차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목적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입지요구를 고려한 산업입지공급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입지 공급에 있음.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짐.
  - 첫째,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입지분야의 전략계획으로 산업정책, 입지정책, 기반시설 공급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임.
  - 둘째, 산업집적활성화계획,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전라북도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셋째, 전라북도의 산업여건 및 수요, 시·군·구별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계획임.
- 전라북도는 2011년에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동 계획이 수립 된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입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2016년~202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을 요청함(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2017~2026)).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정계획(2011~ 2020)」의 추진상황 및 향후의 전라북도 산업입지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6년~2025년 기간 동안의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2절 과업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하되, 계획기간은 2016~2025년까지 10년으로 함.

### 2.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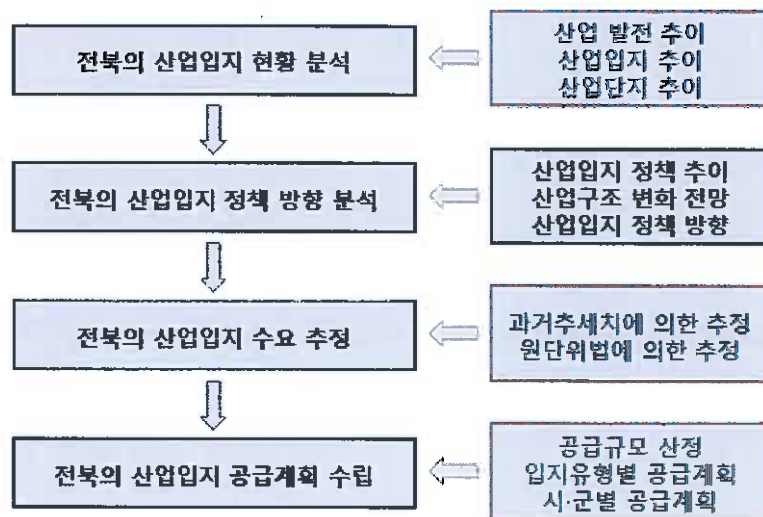
- 전라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함.
  - 6개 시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 8개 군 :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산업입지 수요 추정 및 공급규모 산정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수립하며, 시·군별로 산업입지 수급전망을 제시함.

### 3. 내용적 범위

-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라북도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수립
    - 산업 및 산업입지 동향, 산업육성정책 동향 등 분석을 통해 전라북도의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
  - 전라북도 산업용지 수요추정
    - 전라북도 및 시·군별 산업용지 수요를 추정
  - 전라북도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
    - 입지유형별 및 시·군별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
    - 입지유형별 및 시·군별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
  -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수립
    -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향을 제시
    - 투자유치 및 산업용지 공급 지원 방향을 제시

### 제3절 과업 수행 방법

- 본 연구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2017~2026)(국토교통부, 2016)」에 의거하여 과업을 수행함.
  - 전북의 산업발전 추이 및 잠재력 등 산업입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원활한 산업입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산업입지 수요 추정을 통해 입지유형별 및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함.
- 전북의 산업입지 및 산업발전 추이, 관련 정책과 관련된 각종 문헌조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전북의 산업입지의 특징 및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통계적 방법을 통해 전북의 산업입지수요를 추정한 후 입지유형별,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함.
  - 산업입지 현황은 전북 제조업의 발전 추이와 산업입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 산업입지 정책 방향은 기존에 추진된 산업입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의 정책방향을 도출함.
  - 산업입지 수요 추정은 과거추세치에 의한 방법으로 지수평활법의 Brown모형과 Holt모형, 생산액 원단위법에 의한 방법 등을 사용함.
  -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공급계획, 시·군별 공급계획을 수립함.



<그림 1-1> 과업 수행 과정



## 전라북도 산업입지 추이

# 2

1. 전라북도 산업 현황
2. 전라북도 산업입지 추이
3. 전라북도 산업단지 추이





## 제2장 전라북도 산업입지 추이

### 제1절 전라북도 산업 현황

#### 1. 개요

##### ■ 전북의 제조업은 최근 1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14년 전북의 제조업체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총 1,835개소의 사업체에 92,598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대비 비중은 사업체수는 2.7%, 출하액, 부가가치는 각각 2.9%, 종사자수는 3.2% 수준
- 전라북도 제조업은 1999년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성장이 둔화되었다가 다시 2004년 이후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사업체수는 1999년 1,267개에서 2014년 1,835개로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4~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성장률이 5.3%로 빠른 증가를 보임.
  - 종사자수는 1999년 65,312명에서 2014년 92,598명으로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9~2014년 기간 동안 연평균성장률이 4.7%로 빠른 증가를 보임.
  - 출하액과 부가가치액은 1999~2014년 동안 각각 연평균 7.9%, 5.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4~2009년 동안 출하액 연평균성장률 8.7%, 부가가치액 연평균성장률 8.1%로 높게 나타남.

<표 2-1> 전북 제조업 변화 추이

(개, 명, 백만원, %)

전북	1999	2004	2009	2014	연평균성장률(%)			
					99-04	04-09	09-14	99-14
사업체수 (전국비중)	1,267 (2.7)	1,233 (2.3)	1,593 (2.7)	1,835 (2.7)	-0.5	5.3	2.9	2.5
종사자수 (전국비중)	65,312 (3.0)	64,570 (2.7)	73,721 (3.0)	92,598 (3.2)	-0.2	2.7	4.7	2.4
출하액 (전국비중)	14,035,029 (3.1)	19,904,557 (2.7)	30,143,514 (2.7)	43,624,814 (2.9)	7.2	8.7	7.7	7.9
부가가치 (전국비중)	5,993,794 (3.2)	6,894,830 (2.4)	10,172,639 (2.7)	14,031,441 (2.9)	2.8	8.1	6.6	5.8

자료 :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

## 2. 시·군별 산업 현황

### ■ 사업체 수

- 전라북도 제조업 사업체 수는 1999년 1,267개에서 2014년 1,835개로 15년간 1.4배 증가하여 15년간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09년에서 2014년 연평균증가율이 2.9%로, 최근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기준, 전라북도 내에서 사업체 수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는 군산시(25.4%), 익산시(21.3%), 전주시(11.9%), 완주군(11.7%), 김제시(9.8%), 정읍시(6.8%) 등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지역별 제조업 사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

구분	1999	2004	2009	2014	연평균증가율(%)			
					99-04	04-09	09-14	99-14
전북	1,267 (100)	1,233 (100)	1,593 (100)	1,835 (100)	-0.5	5.3	2.9	2.5
전주시	243 (19.2)	182 (14.8)	214 (13.4)	218 (11.9)	-5.6	3.3	0.4	-0.7
군산시	155 (12.2)	193 (15.7)	408 (25.6)	466 (25.4)	4.5	16.2	2.7	7.6
익산시	365 (28.8)	309 (25.1)	336 (21.1)	390 (21.3)	-3.3	1.7	3.0	0.4
정읍시	109 (8.6)	105 (8.5)	121 (7.6)	125 (6.8)	-0.7	2.9	0.7	0.9
남원시	59 (4.7)	60 (4.9)	57 (3.6)	56 (3.1)	0.3	-1.0	-0.4	-0.3
김제시	107 (8.4)	146 (11.8)	163 (10.2)	179 (9.8)	6.4	2.2	1.9	3.5
완주군	109 (8.6)	105 (8.5)	149 (9.4)	215 (11.7)	-0.7	7.3	7.6	4.6
진안군	11 (0.9)	11 (0.9)	15 (0.9)	20 (1.1)	0.0	6.4	5.9	4.1
무주군	6 (0.5)	9 (0.7)	5 (0.3)	8 (0.4)	8.4	-11.1	9.9	1.9
장수군	12 (0.9)	13 (1.1)	13 (0.8)	13 (0.7)	1.6	0.0	0.0	0.5
임실군	25 (2)	24 (1.9)	17 (1.1)	23 (1.3)	-0.8	-6.7	6.2	-0.6
순창군	15 (1.2)	17 (1.4)	21 (1.3)	25 (1.4)	2.5	4.3	3.5	3.5
고창군	21 (1.7)	28 (2.3)	34 (2.1)	54 (2.9)	5.9	4.0	9.7	6.5
부안군	30 (2.4)	31 (2.5)	40 (2.5)	43 (2.3)	0.7	5.2	1.5	2.4

자료 :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 종사자 수

- 전라북도 제조업 종사자 수는 1999년 65,312명에서 2014년 92,598명으로 15년간 1.4배 증가하여 15년간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09년에서 2014년 연평균성장률이 4.7%로, 최근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 2014년 기준, 전라북도 내에서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는 군산시(27.9%), 익산시(22.6%), 완주군(19.0%), 전주시(8.8%), 김제시(7.3%), 정읍시(5.7%) 등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1999	2004	2009	2014	연평균증가율(%)			
					99-04	04-09	09-14	99-14
전북	65,312 (100)	64,570 (100)	73,721 (100)	92,598 (100)	-0.2	2.7	4.7	2.4
전주시	11,171 (17.1)	7,720 (12)	7,393 (10)	8,175 (8.8)	-7.1	-0.9	2.0	-2.1
군산시	12,920 (19.8)	15,117 (23.4)	21,460 (29.1)	25,824 (27.9)	3.2	7.3	3.8	4.7
익산시	19,805 (30.3)	17,343 (26.9)	16,178 (21.9)	20,936 (22.6)	-2.6	-1.4	5.3	0.4
정읍시	4,491 (6.9)	4,617 (7.2)	4,618 (6.3)	5,309 (5.7)	0.6	0.0	2.8	1.1
남원시	2,020 (3.1)	1,955 (3)	2,037 (2.8)	1,892 (2)	-0.7	0.8	-1.5	-0.4
김제시	3,898 (6)	5,080 (7.9)	5,284 (7.2)	6,714 (7.3)	5.4	0.8	4.9	3.7
완주군	7,923 (12.1)	9,015 (14)	12,724 (17.3)	17,581 (19)	2.6	7.1	6.7	5.5
진안군	411 (0.6)	352 (0.5)	411 (0.6)	585 (0.6)	-3.1	3.1	7.3	2.4
무주군	116 (0.2)	150 (0.2)	131 (0.2)	163 (0.2)	5.3	-2.7	4.5	2.3
장수군	336 (0.5)	442 (0.7)	438 (0.6)	524 (0.6)	5.6	-0.2	3.7	3.0
임실군	676 (1)	937 (1.5)	728 (1)	1,071 (1.2)	6.7	-4.9	8.0	3.1
순창군	400 (0.6)	480 (0.7)	492 (0.7)	732 (0.8)	3.7	0.5	8.3	4.1
고창군	494 (0.8)	607 (0.9)	884 (1.2)	1,315 (1.4)	4.2	7.8	8.3	6.7
부안군	651 (1)	755 (1.2)	943 (1.3)	1,777 (1.9)	3.0	4.5	13.5	6.9

자료 :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 출하액

- 전라북도 제조업 출하액은 1999년 14조에서 2014년 44조로 최근 15년간 하락 없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7.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전라북도 대비 출하액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는 군산시(38.3%), 완주군(19.1%), 익산시(18.3%), 전주시(8.0%), 정읍시(5.2%), 김제시(5.1%) 순
-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출하액 증가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장수군(26.6%), 무주군(24.0%), 부안군(18.1%), 순창군(16.6%), 임실군(14.6%), 고창군(10.7%) 등 비도심지역 중심으로 나타남.

<표 2-4> 지역별 제조업 출하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9	2004	2009	2014	연평균증가율(%)			
					99-04	04-09	09-14	99-14
전북	14,035,029 (100)	19,904,557 (100)	30,143,514 (100)	43,624,814 (100)	7.2	8.7	7.7	7.9
전주시	2,139,496 (15.2)	2,214,910 (11.1)	2,985,904 (9.9)	3,504,590 (8)	0.7	6.2	3.3	3.3
군산시	4,353,920 (31)	6,718,181 (33.8)	11,003,656 (36.5)	16,710,366 (38.3)	9.1	10.4	8.7	9.4
익산시	3,095,126 (22.1)	3,947,723 (19.8)	5,783,453 (19.2)	8,000,045 (18.3)	5.0	7.9	6.7	6.5
정읍시	635,938 (4.5)	978,345 (4.9)	1,457,109 (4.8)	2,250,460 (5.2)	9.0	8.3	9.1	8.8
남원시	173,545 (1.2)	307,885 (1.5)	401,674 (1.3)	443,400 (1)	12.1	5.5	2.0	6.5
김제시	685,723 (4.9)	1,147,162 (5.8)	1,751,336 (5.8)	2,215,050 (5.1)	10.8	8.8	4.8	8.1
완주군	2,492,895 (17.8)	3,864,210 (19.4)	5,704,703 (18.9)	8,349,613 (19.1)	9.2	8.1	7.9	8.4
진안군	39,510 (0.3)	41,177 (0.2)	60,784 (0.2)	76,581 (0.2)	0.8	8.1	4.7	4.5
무주군	14,061 (0.1)	21,738 (0.1)	24,687 (0.1)	72,243 (0.2)	9.1	2.6	24.0	11.5
장수군	26,785 (0.2)	62,372 (0.3)	59,988 (0.2)	195,339 (0.4)	18.4	-0.8	26.6	14.2
임실군	155,283 (1.1)	204,895 (1)	210,924 (0.7)	416,811 (1)	5.7	0.6	14.6	6.8
순창군	87,438 (0.6)	137,762 (0.7)	162,348 (0.5)	350,350 (0.8)	9.5	3.3	16.6	9.7
고창군	42,596 (0.3)	96,900 (0.5)	308,030 (1)	513,114 (1.2)	17.9	26.0	10.7	18.0
부안군	92,713 (0.7)	161,297 (0.8)	228,918 (0.8)	526,852 (1.2)	11.7	7.3	18.1	12.3

자료 :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 부가가치액

- 전라북도 제조업 부가가치액은 1999년 6조에서 2014년 14조로 최근 15년간 하락 없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전라북도 대비 부가가치액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는 군산시(33.6%), 완주군(24.2%), 익산시(19.8%), 전주시(7.7%), 김제시(4.6%), 정읍시(4.3%) 순

<표 2-5>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9	2004	2009	2014	연평균증가율(%)			
					99-04	04-09	09-14	99-14
전북	5,993,794 (100)	6,894,830 (100)	10,172,639 (100)	14,031,441 (100)	2.8	8.1	6.6	5.8
전주시	966,910 (16.1)	611,652 (8.9)	940,668 (9.2)	1,087,336 (7.7)	-8.8	9.0	2.9	0.8
군산시	1,666,929 (27.8)	1,927,210 (28)	3,696,407 (36.3)	4,712,478 (33.6)	2.9	13.9	5.0	7.2
익산시	1,313,062 (21.9)	1,647,708 (23.9)	1,920,213 (18.9)	2,774,628 (19.8)	4.6	3.1	7.6	5.1
정읍시	197,213 (3.3)	398,665 (5.8)	413,799 (4.1)	607,068 (4.3)	15.1	0.7	8.0	7.8
남원시	83,188 (1.4)	113,781 (1.7)	125,421 (1.2)	147,377 (1.1)	6.5	2.0	3.3	3.9
김제시	229,576 (3.8)	324,910 (4.7)	503,602 (5)	650,039 (4.6)	7.2	9.2	5.2	7.2
완주군	1,375,935 (23)	1,625,844 (23.6)	2,210,911 (21.7)	3,402,315 (24.2)	3.4	6.3	9.0	6.2
진안군	25,066 (0.4)	15,307 (0.2)	22,235 (0.2)	34,306 (0.2)	-9.4	7.8	9.1	2.1
무주군	5,847 (0.1)	8,682 (0.1)	7,963 (0.1)	30,924 (0.2)	8.2	-1.7	31.2	11.7
장수군	12,204 (0.2)	25,950 (0.4)	30,723 (0.3)	39,449 (0.3)	16.3	3.4	5.1	8.1
임실군	55,292 (0.9)	74,441 (1.1)	84,214 (0.8)	111,176 (0.8)	6.1	2.5	5.7	4.8
순창군	24,925 (0.4)	41,333 (0.6)	38,520 (0.4)	153,444 (1.1)	10.6	-1.4	31.8	12.9
고창군	14,780 (0.2)	40,300 (0.6)	109,602 (1.1)	128,141 (0.9)	22.2	22.2	3.2	15.5
부안군	22,867 (0.4)	39,047 (0.6)	68,361 (0.7)	152,760 (1.1)	11.3	11.9	17.4	13.5

자료 :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3. 업종별 산업 추이

#### ■ 사업체 수

- 2014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업종별 사업체 수 비중을 살펴보면 기계(18.4%), 음식료(17.8%), 운송장비(14.0%), 석유화학(12.2%), 섬유 의복(9.5%), 비금속소재(8.7%)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지난 15년간 음식료,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등의 사업체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섬유 의복은 감소, 목재·종이·출판은 정체 추세를 보임.
- 전라북도 평균 사업체 증가율은 1999년 이후 감소하다 200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전기전자(8.7%), 철강(6.3%), 운송장비(4.6%), 기타(3.8%), 음식료(3.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의복(-1.6%), 목재·종이·출판(-0.4%)의 사업체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6> 업종별 사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

구분	1999	2004	2009	2014	연평균증가율(%)			
					99-04	04-09	09-14	99-14
제조업(계)	1,267 (100)	1,233 (100)	1,593 (100)	1,835 (100)	-0.5	5.3	2.9	2.5
음식료	189 (14.9)	226 (18.3)	273 (17.1)	327 (17.8)	3.6	3.9	3.7	3.7
섬유 의복	354 (27.9)	207 (16.8)	189 (11.9)	174 (9.5)	-10.2	-1.8	-1.6	-4.6
목재·종이·출판	107 (8.4)	94 (7.6)	109 (6.8)	107 (5.8)	-2.6	3.0	-0.4	0.0
석유화학	133 (10.5)	161 (13.1)	206 (12.9)	223 (12.2)	3.9	5.1	1.6	3.5
비금속소재	137 (10.8)	142 (11.5)	147 (9.2)	160 (8.7)	0.7	0.7	1.7	1.0
철강	14 (1.1)	20 (1.6)	56 (3.5)	76 (4.1)	7.4	22.9	6.3	11.9
기계	124 (9.8)	150 (12.2)	286 (18)	338 (18.4)	3.9	13.8	3.4	6.9
전기전자	76 (6)	60 (4.9)	83 (5.2)	126 (6.9)	-4.6	6.7	8.7	3.4
운송장비	88 (6.9)	129 (10.5)	205 (12.9)	257 (14)	7.9	9.7	4.6	7.4
기타	45 (3.6)	44 (3.6)	39 (2.4)	47 (2.6)	-0.4	-2.4	3.8	0.3

자료 :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 종사자 수

- 2014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업종별 종사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운송장비(23.9%), 음식료(18.5%), 기계(14.0%), 석유화학(13.4%)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지난 15년간 음식료, 석유화학, 철강, 기계, 운송장비, 기타 등의 종사자 수는 증가추세에 있고 섬유·의복, 목재·종이·출판, 비금속소재, 전기전자 등의 종사자 수는 감소 추세임.
- 전라북도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1999년 이후 감소하다 200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기타(6.6%), 기계 (6.6%), 음식료 (6.2%), 철강(5.4%), 운송장비(5.3%), 전기전자(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금속소재(-0.2%)업종의 종사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7> 업종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1999	2004	2009	2014	연평균증가율(%)			
					99-04	04-09	09-14	99-14
제조업(계)	65,312	64,570	73,721	92,598	-0.2	2.7	4.7	2.4
	(100)	(100)	(100)	(100)				
음식료	9,582	11,351	12,665	17,146	3.4	2.2	6.2	4.0
	(14.7)	(17.6)	(17.2)	(18.5)				
섬유·의복	13,415	7,396	5,428	5,902	-11.2	-6.0	1.7	-5.3
	(20.5)	(11.5)	(7.4)	(6.4)				
목재·종이·출판	4,680	4,404	3,662	3,854	-1.2	-3.6	1.0	-1.3
	(7.2)	(6.8)	(5)	(4.2)				
석유화학	6,907	8,351	10,259	12,401	3.9	4.2	3.9	4.0
	(10.6)	(12.9)	(13.9)	(13.4)				
비금속소재	5,025	4,651	4,612	4,571	-1.5	-0.2	-0.2	-0.6
	(7.7)	(7.2)	(6.3)	(4.9)				
철강	2,261	2,328	3,901	5,070	0.6	10.9	5.4	5.5
	(3.5)	(3.6)	(5.3)	(5.5)				
기계	4,461	4,194	9,409	12,971	-1.2	17.5	6.6	7.4
	(6.8)	(6.5)	(12.8)	(14)				
전기전자	7,111	5,531	5,483	6,974	-4.9	-0.2	4.9	-0.1
	(10.9)	(8.6)	(7.4)	(7.5)				
운송장비	9,862	14,738	17,087	22,108	8.4	3.0	5.3	5.5
	(15.1)	(22.8)	(23.2)	(23.9)				
기타	1,546	1,454	1,161	1,601	-1.2	-4.4	6.6	0.2
	(2.4)	(2.3)	(1.6)	(1.7)				

자료 :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 출하액

- 2014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업종별 출하액 비중을 살펴보면 운송장비(27.8%), 석유화학(19.6%), 음식료(17.1%), 철강(10.8%), 기계(9.3%)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지난 15년간 섬유·의복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출하액이 증가함.
- 전라북도의 제조업 출하액은 1999년 이후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기계(18.1%), 철강(12.2%), 운송장비(7.9%), 전기전자(7.2%), 음식료 (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8> 업종별 출하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9	2004	2009	2014	연평균증가율(%)			
					99-04	04-09	09-14	99-14
제조업	14,035,029	19,904,557	30,143,514	43,624,814	7.2	8.7	7.7	7.9
	(100)	(100)	(100)	(100)				
음식료	2,490,425	3,754,607	5,291,801	7,455,436	8.6	7.1	7.1	7.6
	(17.7)	(18.9)	(17.6)	(17.1)				
섬유·의복	861,736	791,152	743,111	838,255	-1.7	-1.2	2.4	-0.2
	(6.1)	(4)	(2.5)	(1.9)				
목재·종이·출판	1,302,706	1,516,521	1,591,703	1,902,254	3.1	1.0	3.6	2.6
	(9.3)	(7.6)	(5.3)	(4.4)				
석유화학	2,395,626	3,858,451	6,715,497	8,546,470	10.0	11.7	4.9	8.8
	(17.1)	(19.4)	(22.3)	(19.6)				
비금속소재	840,043	1,053,699	1,313,642	1,559,583	4.6	4.5	3.5	4.2
	(6)	(5.3)	(4.4)	(3.6)				
철강	629,352	1,271,094	2,658,172	4,719,757	15.1	15.9	12.2	14.4
	(4.5)	(6.4)	(8.8)	(10.8)				
기계	444,181	667,721	1,765,070	4,061,631	8.5	21.5	18.1	15.9
	(3.2)	(3.4)	(5.9)	(9.3)				
전기전자	1,348,142	916,548	1,440,939	2,043,575	-7.4	9.5	7.2	2.8
	(9.6)	(4.6)	(4.8)	(4.7)				
운송장비	3,394,412	5,721,014	8,296,583	12,118,416	11.0	7.7	7.9	8.9
	(24.2)	(28.7)	(27.5)	(27.8)				
기타	149,629	262,781	321,974	379,437	11.9	4.1	3.3	6.4
	(1.1)	(1.3)	(1.1)	(0.9)				

자료 :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 부가가치액

- 2014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업종별 부가가치액 비중을 살펴보면 운송장비(26.5%), 석유화학(21.8%), 음식료(15.0%), 기계(11.1%), 철강(8.0%)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지난 15년간 섬유·의복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부가가치액이 증가함.

- ◎ 전라북도의 제조업 부가가치액 1999년 이후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기계(17.3%), 전기전자(12.0%), 철강(11.5%), 음식료(8.2%), 석유화학(5.8%)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기타(-1.8%) 업종의 경우 감소를 보임.

<표 2-9> 업종별 부가가치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9	2004	2009	2014	연평균증가율(%)			
					99-04	04-09	09-14	99-14
제조업(계)	5,993,794	6,894,830	10,172,639	14,031,441	2.8	8.1	6.6	5.8
	(100)	(100)	(100)	(100)				
음식료	1,052,074	1,580,571	1,420,162	2,107,774	8.5	-2.1	8.2	4.7
	(17.6)	(22.9)	(14)	(15)				
섬유·의복	373,378	359,437	327,020	328,138	-0.8	-1.9	0.1	-0.9
	(6.2)	(5.2)	(3.2)	(2.3)				
목재·종이·출판	534,600	477,378	552,663	584,417	-2.2	3.0	1.1	0.6
	(8.9)	(6.9)	(5.4)	(4.2)				
석유화학	949,024	1,416,916	2,304,426	3,052,919	8.3	10.2	5.8	8.1
	(15.8)	(20.6)	(22.7)	(21.8)				
비금속소재	477,245	527,632	541,096	675,762	2.0	0.5	4.5	2.3
	(8)	(7.7)	(5.3)	(4.8)				
철강	312,516	337,657	647,835	1,118,914	1.6	13.9	11.5	8.9
	(5.2)	(4.9)	(6.4)	(8)				
기계	213,384	290,905	700,981	1,555,715	6.4	19.2	17.3	14.2
	(3.6)	(4.2)	(6.9)	(11.1)				
전기전자	528,856	331,854	451,770	797,009	-8.9	6.4	12.0	2.8
	(8.8)	(4.8)	(4.4)	(5.7)				
운송장비	1,356,568	1,466,460	3,119,937	3,715,345	1.6	16.3	3.6	6.9
	(22.6)	(21.3)	(30.7)	(26.5)				
기타	60,174	81,957	104,693	95,448	6.4	5.0	-1.8	3.1
	(1)	(1.2)	(1)	(0.7)				

자료 : 통계청, 광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제2절 전라북도 산업입지 추이

### 1. 개요

#### ■ 전북의 공장용지 연평균증가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음

- 2006년~2015년 9년 동안 전북의 공장 용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빠른 속도로 증가함.
- 동 기간 전국의 공장용지 연평균증가율 3.8%에 비해 전북의 공장용지 연평균증가율은 4.6%로, 전국에서 충남 지역으로 다음으로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는 총 46.7km<sup>2</sup>로 전국 공장용지의 5.9%를 차지함.
-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장용지는 793km<sup>2</sup>에 달하고 있으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충북, 울산의 순으로 공장용지 규모가 크게 나타남.

<표 2-10> 전국 시도별 공장용지 변화 추이

(단위: 천m<sup>2</sup>,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전국	568,068	590,349	584,074	622,184	651,967	676,658	690,215	724,677	769,556	792,753	3.8
서울특별시	4,324	4,134	3,539	3,438	3,377	3,302	3,410	3,565	3,625	3,588	-2.1
부산광역시	17,455	18,119	18,874	19,517	20,335	21,206	21,518	22,689	22,466	25,093	4.1
대구광역시	13,423	13,000	12,467	13,209	13,953	14,845	15,422	17,364	18,949	18,095	3.4
인천광역시	20,306	20,065	18,883	20,056	20,081	20,674	20,452	21,043	21,610	22,111	1.0
광주광역시	12,320	12,364	10,605	10,870	11,894	12,136	12,392	13,248	14,300	14,837	2.1
대전광역시	6,807	7,121	7,033	7,173	7,385	7,590	7,988	8,352	8,666	8,811	2.9
울산광역시	42,141	42,850	43,193	44,910	45,988	46,915	47,481	49,020	50,112	51,062	2.2
세종특별자치시	-	-	-	-	-	-	6,441	6,681	6,783	6,907	-
경기도	112,651	120,809	119,274	126,907	129,894	133,234	135,901	140,374	151,073	155,443	3.6
강원도	18,346	17,038	17,116	17,546	18,301	18,785	19,186	19,366	20,314	20,918	1.5
충청북도	42,238	44,300	42,923	47,613	50,681	52,484	51,490	55,164	59,303	62,089	4.4
충청남도	60,177	62,923	62,901	68,173	77,535	82,515	78,760	83,839	93,585	96,517	5.4
전라북도	31,152	32,746	33,660	35,777	37,334	39,689	39,091	43,484	45,543	46,706	4.6
전라남도	50,836	52,602	53,232	57,405	60,518	64,548	66,562	67,655	70,706	73,866	4.2
경상북도	69,939	72,054	69,473	74,064	76,668	78,549	80,618	85,689	91,227	92,480	3.2
경상남도	63,601	67,800	68,385	72,997	75,383	77,436	80,735	84,220	88,406	91,349	4.1
제주도	2,352	2,424	2,516	2,529	2,640	2,750	2,768	2,924	2,888	2,880	2.3

자료: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 재가공.

## ■ 전북은 계획입지 비율이 높음

- 입지유형별 전북의 공장용지 현황을 보면, 전북의 계획입지 비율은 70.1%인 반면, 전국은 50.4%로 전국에 비해 계획입지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1> 전국 시도별 공장입지 현황(2015년)

(단위 : 천㎡, %)

시도	개별입지		계획입지		합계	
전국	393,053	49.6	399,702	50.4	792,755	100.0
서울특별시	2,817	78.5	771	21.5	3,588	100.0
부산광역시	12,411	49.5	12,682	50.5	25,093	100.0
대구광역시	4,605	25.4	13,490	74.6	18,095	100.0
인천광역시	12,651	57.2	9,460	42.8	22,111	100.0
광주광역시	3,920	26.4	10,916	73.6	14,836	100.0
대전광역시	2,325	26.4	6,486	73.6	8,811	100.0
울산광역시	5,441	10.7	45,621	89.3	51,062	100.0
세종특별자치시	3,780	54.7	3,128	45.3	6,908	100.0
경기도	115,282	74.2	40,162	25.8	155,444	100.0
강원도	14,418	68.9	6,501	31.1	20,919	100.0
충청북도	39,726	64.0	22,364	36.0	62,090	100.0
충청남도	57,564	59.6	38,953	40.4	96,517	100.0
전라북도	13,977	29.9	32,729	70.1	46,706	100.0
전라남도	17,490	23.7	56,376	76.3	73,866	100.0
경상북도	42,026	45.4	50,454	54.6	92,480	100.0
경상남도	41,973	45.9	49,376	54.1	91,349	100.0
제주도	2,647	91.9	233	8.1	2,880	100.0

자료: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http://www.femis.go.kr))에서 재가공

## 2. 시·군별 산업입지 추이

### ■ 전북의 공장용지는 서부권에 집중

- 전북 서부권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에 집중
  - 6개 시·군의 공장용지는 39,964천㎡로 전북 공장용지 46,706천㎡의 85.6%를 점유
  - 시·군별로 군산시 16,688천㎡(35.7%), 익산시 7,597천㎡(16.3%), 완주군 5,847천㎡(12.5%), 김제시 3,524천㎡(7.5%), 전주시 3,232천㎡(6.9%) 순으로 넓음.
- 남원시를 제외한 동부권 군지역의 공장용지 면적은 각 900천㎡ 미만으로 작은 규모

<표 2-12> 전북 시·군별 공장용지 변화 추이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전북	31,152	32,746	33,660	35,777	37,334	39,689	39,091	43,484	45,543	46,706	4.6
전주시	2,496	2,517	2,431	2,462	2,540	2,618	2,742	2,968	3,132	3,232	2.9
군산시	9,412	9,409	11,859	12,664	13,162	14,529	13,152	15,809	16,551	16,688	6.6
익산시	5,883	6,097	5,803	5,913	6,213	6,527	6,771	7,164	7,445	7,597	2.9
정읍시	2,608	2,716	2,489	2,642	2,797	2,686	2,703	2,920	3,059	3,076	1.9
남원시	1,330	1,388	1,272	1,291	1,311	1,512	1,571	1,615	1,647	1,768	3.2
김제시	2,392	3,184	2,267	2,397	2,524	2,612	2,715	3,153	3,345	3,524	4.4
완주군	4,290	4,540	4,589	4,906	5,096	5,163	5,266	5,279	5,569	5,847	3.5
진안군	290	327	385	433	480	513	500	565	601	667	9.7
무주군	199	210	165	305	309	352	344	352	379	379	7.4
장수군	203	238	196	315	302	372	416	453	511	555	11.8
임실군	387	399	393	424	484	633	600	639	640	646	5.9
순창군	461	465	473	528	626	665	733	735	772	818	6.6
고창군	575	536	521	696	717	735	790	825	861	871	4.7
부안군	627	719	815	802	772	770	788	1,005	1,033	1,039	5.8

자료: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 재가공

### ■ 공장용지 증가율은 동부권 군지역이 높으나, 증가면적은 소규모

- 2006~2015년 기간 동안 공장용지 증가율은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군산시, 임실군, 부안군 순으로 높음.
  - 장수군이 11.8%로 가장 높고, 진안군(9.7%), 무주군(7.4%), 순창군(6.6%), 임실군(5.9%), 부안군(5.8%) 순
  - 반면, 서부권에 속하는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의 증가율은 5.0% 미만

- 동부권의 공장용지 연평균증가율은 높으나 2006년에서 2015년 동안 총 증가면적은 각 400천㎡ 미만으로 규모가 작음

- 2006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남원시는 438천㎡가 증가했으나,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동부권 군지역의 증가면적은 각 400천㎡ 미만

## ■ 2006년~2015년 동안 공장용지 증가면적은 군산시가 가장 큼

-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전북의 공장용지 증가면적 중 46.8%가 군산시에서 발생
  - 동 기간 동안 전북의 공장용지의 증가면적은 15,554천㎡로, 이 중 군산시의 공장용지가 7,276천㎡ 증가하여 전라북도의 공장용지의 증가분의 약 절반을 차지
  - 동 기간 동안 공장용지는 군산시 다음으로 익산시(1,714천㎡), 완주군(1,557천㎡), 김제시(1,132천㎡), 전주시(736천㎡) 순으로 크게 증가

<표 2-13> 전북 시·군별 공장용지 비중 추이

(단위 : 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 북	31,152 (100)	32,746 (100)	33,660 (100)	35,777 (100)	37,334 (100)	39,689 (100)	39,091 (100)	43,484 (100)	45,543 (100)	46,706 (100)
전주시	8.0	7.7	7.2	6.9	6.8	6.6	7.0	6.8	6.9	6.9
군산시	30.2	28.7	35.2	35.4	35.3	36.6	33.6	36.4	36.3	35.7
익산시	18.9	18.6	17.2	16.5	16.6	16.4	17.3	16.5	16.3	16.3
정읍시	8.4	8.3	7.4	7.4	7.5	6.8	6.9	6.7	6.7	6.6
남원시	4.3	4.2	3.8	3.6	3.5	3.8	4.0	3.7	3.6	3.8
김제시	7.7	9.7	6.7	6.7	6.8	6.6	6.9	7.3	7.3	7.5
완주군	13.8	13.9	13.6	13.7	13.6	13.0	13.5	12.1	12.2	12.5
진안군	0.9	1.0	1.1	1.2	1.3	1.3	1.3	1.3	1.3	1.4
무주군	0.6	0.6	0.5	0.9	0.8	0.9	0.9	0.8	0.8	0.8
장수군	0.7	0.7	0.6	0.9	0.8	0.9	1.1	1.0	1.1	1.2
임실군	1.2	1.2	1.2	1.2	1.3	1.6	1.5	1.5	1.4	1.4
순창군	1.5	1.4	1.4	1.5	1.7	1.7	1.9	1.7	1.7	1.8
고창군	1.8	1.6	1.5	1.9	1.9	1.9	2.0	1.9	1.9	1.9
부안군	2.0	2.2	2.4	2.2	2.1	1.9	2.0	2.3	2.3	2.2

자료: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 재가공

### 3.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현황

#### ■ 입지유형별 고용현황

- ◆ 2015년 말 현재, 전라북도는 개별입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계획입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비중이 각각 28.3%, 71.7%로, 계획입지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남.
- =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개별입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종사자의 49.7%이며 계획입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비중이 50.3%임.

<표 2-14> 입지유형별 고용현황

(단위 : 천㎡)

구분	전국			전라북도		
	합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합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남	2,700,262	1,320,448	1,379,814	90,502	22,934	67,568
	(100)	(48.9)	(51.1)	(100)	(25.3)	(74.7)
여	891,362	466,822	424,540	28,178	10,949	17,229
	(100)	(52.4)	(47.6)	(100)	(38.9)	(61.1)
외국남	63,358	30,753	32,605	2,007	322	1,685
	(100)	(48.5)	(51.5)	(100)	(16)	(84)
외국여	14,148	4,419	9,729	302	23	279
	(0.4)	(0.2)	(0.5)	(100)	(7.6)	(92.4)
합계	3,669,130	1,822,442	1,846,688	120,989	34,228	86,761
	(100)	(49.7)	(50.3)	(100)	(28.3)	(71.7)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2015년 말)

## ■ 입지유형별 공장부지의 용지/제조/부대시설 현황

- 전라북도는 개별입지 공장의 부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29.1%, 계획입지 공장의 부지면적은 70.9%로, 계획입지 공장의 부지면적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개별입지 공장의 부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47.5%이며 계획입지 공장의 부지면적은 52.5%임.

<표 2-15> 입지유형별 용지/제조/부대시설 현황

(단위 : 천㎡)

구분	전국			전라북도		
	합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합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용지	792,753,267	393,051,873	399,701,394	46,706,041	13,976,747	32,729,294
	(100)	(49.6)	(50.4)	(100)	(29.9)	(70.1)
제조	281,662,849	116,872,063	164,790,786	17,045,174	4,550,466	12,494,708
	(100)	(41.5)	(58.5)	(100)	(26.7)	(73.3)
부대	117,702,749	55,987,942	61,714,807	4,256,420	1,249,290	3,007,130
	(100)	(47.6)	(52.4)	(100)	(29.4)	(70.6)
전체	1,192,118,865	565,911,878	626,206,987	68,007,635	19,776,503	48,231,132
	(100)	(47.5)	(52.5)	(100)	(29.1)	(70.9)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2015년 말)

## ■ 입지유형별 업종 현황

- 2015년 말 현재 전국의 공장 등록업체 수는 176,194개사 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7,733개사, 전국 전체 공장의 15.7%)으로 나타남.
- 동 업종의 경우 개별, 계획입지에서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나타남.
- 전북의 공장 등록업체 수는 5,706개사 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1,080개사, 전북 전체 공장의 18.9%)으로 나타남.
- 동 업종의 경우 개별입지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지만, 계획입지에서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8.4%)으로 나타남.
- 계획입지에 위치한 공장들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15.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3.8%)로 나타남.



전라북도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표 2-16> 입지유형별 업종 현황

(단위 : 개, %)

업종	전국				전북			
	소계	비중	개별입지	비중	소계	비중	개별입지	비중
식료품 제조업	14,296	8.1	11,863	10.3	2,433	4.0	881	26.3
음료 제조업	927	0.5	814	0.7	113	0.2	95	2.8
담배 제조업	12	0.0	8	0.0	4	0.0	-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의	7,786	4.4	5,323	4.6	2,463	4.0	118	3.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395	1.9	2,690	2.3	705	1.2	103	3.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70	0.7	893	0.8	277	0.5	1	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347	1.9	2,766	2.4	581	1.0	174	5.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14	1.9	2,616	2.3	798	1.3	59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396	2.5	3,521	3.1	875	1.4	50	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83	0.2	170	0.1	113	0.2	1	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772	4.4	4,674	4.1	3,098	5.1	193	5.8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32	0.6	565	0.5	467	0.8	14	0.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476	6.5	8,612	7.5	2,864	4.7	143	4.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054	4.0	5,923	5.1	1,131	1.9	472	14.1
1차 금속 제조업	4,927	2.8	2,448	2.1	2,479	4.1	31	0.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7,130	15.4	15,548	13.5	11,582	19.0	336	1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466	7.1	6,794	5.9	5,672	9.3	78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497	3.1	3,166	2.7	2,331	3.8	29	0.9
전기장비 제조업	13,789	7.8	8,869	7.7	4,920	8.1	149	4.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733	15.7	15,952	13.8	11,781	19.4	213	6.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631	4.3	4,002	3.5	3,629	6.0	75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451	2.0	2,225	1.9	1,226	2.0	12	0.4
가구 제조업	3,526	2.0	3,018	2.6	508	0.8	52	1.6
기타 제품 제조업	3,684	2.1	2,892	2.5	792	1.3	68	2.0
합계	176,194	100	115,352	100	60,842	100	3,347	100

<표 2-17> 입지유형별 업종 비율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국			전라북도		
	합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합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식료품 제조업	14,296 (100)	11,863 (83)	2,433 (17)	1,080 (100)	881 (81.6)	199 (18.4)
음료 제조업	927 (100)	814 (87.8)	113 (12.2)	110 (100)	95 (86.4)	15 (13.6)
담배 제조업	12 (100)	8 (66.7)	4 (33.3)	- (100)	- (100)	- (1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7,786 (100)	5,323 (68.4)	2,463 (31.6)	195 (100)	118 (60.5)	77 (39.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395 (100)	2,690 (79.2)	705 (20.8)	188 (100)	103 (54.8)	85 (45.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70 (100)	893 (76.3)	277 (23.7)	5 (100)	1 (20)	4 (8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347 (100)	2,766 (82.6)	581 (17.4)	210 (100)	174 (82.9)	36 (17.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14 (100)	2,616 (76.6)	798 (23.4)	106 (100)	59 (55.7)	47 (44.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396 (100)	3,521 (80.1)	875 (19.9)	54 (100)	50 (92.6)	4 (7.4)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83 (100)	170 (60.1)	113 (39.9)	9 (100)	1 (11.1)	8 (88.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772 (100)	4,674 (60.1)	3,098 (39.9)	379 (100)	193 (50.9)	186 (49.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32 (100)	565 (54.7)	467 (45.3)	30 (100)	14 (46.7)	16 (53.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476 (100)	8,612 (75)	2,864 (25)	276 (100)	143 (51.8)	133 (48.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054 (100)	5,923 (84)	1,131 (16)	610 (100)	472 (77.4)	138 (22.6)
1차 금속 제조업	4,927 (100)	2,448 (49.7)	2,479 (50.3)	106 (100)	31 (29.2)	75 (70.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7,130 (100)	15,548 (57.3)	11,582 (42.7)	712 (100)	336 (47.2)	376 (52.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466 (100)	6,794 (54.5)	5,672 (45.5)	150 (100)	78 (52)	72 (4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497 (100)	3,166 (57.6)	2,331 (42.4)	57 (100)	29 (50.9)	28 (49.1)
전기장비 제조업	13,789 (100)	8,869 (64.3)	4,920 (35.7)	268 (100)	149 (55.6)	119 (44.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733 (100)	15,952 (57.5)	11,781 (42.5)	435 (100)	213 (49)	222 (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631 (100)	4,002 (52.4)	3,629 (47.6)	400 (100)	75 (18.8)	325 (8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451 (100)	2,225 (64.5)	1,226 (35.5)	65 (100)	12 (18.5)	53 (81.5)
가구 제조업	3,526 (100)	3,018 (85.6)	508 (14.4)	68 (100)	52 (76.5)	16 (23.5)
기타 제품 제조업	3,684 (100)	2,892 (78.5)	792 (21.5)	193 (100)	68 (35.2)	125 (64.8)
합계	176,194 (100)	115,352 (65.5)	60,842 (34.5)	5,706 (100)	3,347 (58.7)	2,359 (41.3)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2015년 말)

## 제3절 전라북도 산업단지 추이

### 1. 산업단지 보유현황

- 전북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면적은 42,693천㎡이며, 이 중 미분양 면적은 3,494천㎡임(2015년 말 현재).
  - 전북지역에는 국가산단 4개소, 일반산단 23개소, 도시첨단산단 1개소, 농공단지 57개소 등 총 85개소의 산업단지가 있음.
- 전북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91.8%로 전국(95.1%)에 비해 약간 낮은 편임.
  - 일반산단의 미분양 면적이 전체 미분양 면적의 78.9%를 차지함.

<표 2-18> 전북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소, 천㎡, %)

시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분양공고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전국	계	1,124	1,401,441	667,123	543,545	516,706	26,839	4.9
	국가	41	789,720	287,647	258,838	254,877	3,961	1.5
	일반	597	529,888	318,882	230,264	210,758	19,507	8.5
	도시첨단	19	6,223	3,059	656	599	57	8.7
	농공	467	75,610	57,535	53,786	50,472	3,314	6.2
전북	계	85	130,578	54,741	42,693	39,199	3,494	8.2
	국가	4	67,819	15,464	14,065	14,065	-	-
	일반	23	52,105	31,038	21,412	18,654	2,757	12.9
	도시첨단	1	110	39	39	39	-	-
	농공	57	10,544	8,200	7,178	6,441	737	10.3

자료: 국토부, 산업입지정보센터(2015년 말 기준)



● 국가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농공단지  
■ 외국인투자지역    ■ 자유무역지역    ■ 경제자유지역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2015), 전라북도 산업단지도  
 <그림 2-1> 전라북도 산업단지도

-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는 군산, 군산2, 익산국가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으며, 군산2 단지 내에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되어 있음.
-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전주시자원순환특화, 전주제1·2, 전주친환경첨단복합, 전주과학, 군산, 익산제2·3·4, 정읍제1·2·3, 정읍첨단과학, 김제순동, 지평선, 완주, 완주테크노밸리, 부안신·재생에너지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된 상태
  - 새만금, 고창 산업단지는 조성중이며, 완주테크노밸리(2단계), 남원 단지는 미개발

<표 2-19> 전북 국가산업단지 개발현황

(단위 : 개, 천㎡, %)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분양공고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계	67,819	15,464	14,065	14,065	-	-
군산2국가산업단지	50,459	8,161	8,161	8,161	-	-
군산국가산업단지	13,702	4,787	4,787	4,787	-	-
익산국가산업단지	1,336	1,116	1,116	1,116	-	-
국가식품클러스터	2,323	1,399	-	-	-	-

자료: 국토부, 산업입지정보센터(2015년 말 기준)

<표 2-20> 전북 일반산업단지 개발현황

(단위 : 개, 천㎡, %)

시군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분양공고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률
계			52,105	31,038	21,412	18,654	2,757	12.9
전주시	전주제1	완료	1,806	1,276	1,276	1,276	—	—
	전주제2	완료	687	531	531	531	—	—
	전주친환경첨단복합	완료	291	157	157	141	16	10.5
	전주시자원순환특화	완료	80	48	48	14	34	71.2
	전주친환경첨단복합(3-1단계)	완료	284	183	183	183	—	—
군산시	군산	완료	5,641	3,631	3,631	3,631	—	—
	새만금	조성중	18,495	8,608	915	915	—	—
익산시	익산제2	완료	3,309	2,563	2,563	2,563	—	—
	익산제4(구익산종합의료과학)	완료	503	303	303	111	192	63.4
	익산제3	완료	2,794	1,575	1,575	663	913	57.9
정읍시	정읍제1	완료	202	153	153	153	—	—
	정읍제2	완료	999	668	668	668	—	—
	정읍제3	완료	1,025	757	757	757	—	—
	정읍첨단과학(RFT)	완료	896	425	425	129	296	69.6
남원시	남원	미개발	776	588	—	—	—	—
김제시	김제순동	완료	262	181	181	181	—	—
	지평선	완료	2,987	1,943	1,943	1,194	748	38.5
완주군	전주과학	완료	3,074	1,819	1,819	1,819	—	—
	완주	완료	3,359	2,578	2,578	2,578	—	—
	완주테크노밸리	완료	1,311	971	971	902	69	7.1
	완주테크노밸리(2단계)	미개발	2,120	1,315	—	—	—	—
	고창군	고창	조성중	849	618	587	159	428
부안군	부안신·재생에너지	완료	354	148	148	87	61	41.1

자료: 국토부, 산업입지정보센터(2015년 말)

- 농공단지의 경우 57개 중 5개가 현재 조성중이며, 익산의 합열 농공단지가 미개발된 것을 제외하면 51개가 조성 완료된 상태임.

<표 2-21> 전북 농공단지 개발현황

(단위 : 개, 천㎡, %)

시군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분양공고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률
계			10,544	8,200	7,178	6,441	737	10.3
군산시	서수	완료	287	239	239	239	—	—
	성산	완료	142	126	126	126	—	—
	옥구	완료	140	103	103	103	—	—
	임피	완료	239	176	176	42	134	76.1
익산시	낭산	완료	129	109	109	109	—	—
	삼기	완료	132	113	113	113	—	—
	왕궁	완료	330	246	246	246	—	—
	황등	완료	147	119	119	119	—	—
	합열	미개발	329	229	—	—	—	—
정읍시	고부	완료	151	128	128	128	—	—
	농소	완료	186	174	174	174	—	—
	북면	완료	211	174	174	174	—	—
	신용전문	완료	143	105	105	105	—	—
	신태인	완료	150	117	117	117	—	—
	태인	완료	247	170	170	170	—	—
	소성특화	조성중	232	164	98	—	98	100.0
남원시	광치1(구광치)	완료	140	117	117	117	—	—
	광치2	완료	113	94	94	94	—	—
	노암	완료	147	103	103	103	—	—
	노암제2	완료	168	115	115	115	—	—
	어현	완료	117	93	93	93	—	—
	인월	완료	51	39	39	39	—	—
	노암제3	조성중	325	209	209	23	186	89.1
김제시	대동전문	완료	331	252	252	252	—	—
	만경	완료	215	181	181	181	—	—
	봉황	완료	233	206	206	206	—	—
	서흥	완료	277	236	236	236	—	—
	월촌	완료	145	133	133	133	—	—
	황산	완료	73	56	56	56	—	—
	백구	조성중	328	258	—	—	—	—

시군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분양공고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률
완주군	이서특별	완료	398	386	386	386	—	—
진안군	진안연장	완료	53	45	45	45	—	—
진안군	진안제2	완료	146	105	105	105	—	—
	진안홍삼한방	완료	265	192	192	168	23	12.2
무주군	무주	완료	147	120	120	120	—	—
	무주제2	완료	98	80	80	80	—	—
	안성	완료	94	79	79	79	—	—
장수군	장계	완료	290	204	204	204	—	—
	천천	완료	57	50	50	50	—	—
	장수	완료	140	103	103	14	89	86.4
임실군	신평	완료	53	49	49	49	—	—
	오수	완료	132	93	93	93	—	—
	임실	완료	147	133	133	133	—	—
	임실제2	조성중	340	236	—	—	—	—
순창군	가남	완료	83	62	62	62	—	—
	쌍암	완료	121	73	73	24	49	67.7
	인계(구제2장류)	완료	149	122	122	122	—	—
	풍산	완료	138	111	111	111	—	—
	풍산제2	완료	170	130	130	88	42	32.4
고창군	고수	완료	105	81	81	81	—	—
	북분자	완료	196	140	140	45	95	68.1
	아산	완료	140	111	111	111	—	—
	홍덕	완료	315	236	236	236	—	—
부안군	부안	완료	149	123	123	123	—	—
	부안제2	완료	344	251	251	232	19	7.5
	줄포	완료	89	69	69	69	—	—
	부안제3	조성중	329	234	—	—	—	—

자료: 국토부, 산업입지정보센터(2015년 말)

◦ 도시첨단단지의 경우 1개의 단지가 현재 조성 완료되어 모두 분양된 상태임.

<표 2-22> 전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현황

(단위: 개, 천㎡, %)

단지명	조성상태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분양공고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율
전주도시첨단	완료	110	39	39	39	—	—

자료: 국토부, 산업입지정보센터(2015년 말 기준)



## 2.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 전북의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은 18개 단지에 총 3,494천㎡임.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이 913천㎡로 총 미분양 면적의 26.1%를 차지
- 미분양면적의 대부분은 일반단지의 미분양에서 기인한 것으로, 농공단지의 경우 노암제3, 임피 단지를 제외한 각 농공단지별 미분양 면적은 100천㎡ 미만으로 매우 작은 규모

<표 2-23> 전북 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 현황

(단위 : 천㎡)

유형	시군	단지명	조성 상태	지정 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분양공고 면적	분양	미분양
일반	전주시	전주친환경첨단복합	완료	291	157	157	141	16
		전주시자원순환특화	완료	80	48	48	14	34
	익산시	익산제4(구익산종합의료과학)	완료	503	303	303	111	192
		익산제3	완료	2,794	1,575	1,575	663	913
	정읍시	정읍첨단과학(RFT)	완료	896	425	425	129	296
	김제시	지평선	완료	2,987	1,943	1,943	1,194	748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	완료	1,311	971	971	902	69
	고창군	고창	조성중	849	618	587	159	428
	부안군	부안신·재생에너지	완료	354	148	148	87	61
	소계	9개 단지						2,757
농공	군산시	임피	완료	239	176	176	42	134
	정읍시	소성특화	완료	232	164	98	-	98
	남원시	노암제3	완료	325	209	209	23	186
	진안군	진안홍삼한방	완료	265	192	192	168	23
	장수군	장수	완료	140	103	103	14	89
	순창군	풍산제2	완료	170	130	130	88	42
		쌍암	완료	121	73	73	24	49
	고창군	북분자	완료	196	140	140	45	95
	부안군	부안제2	완료	344	251	251	232	19
	소계	9개 단지						737
총계		18개 단지						3,494

자료: 국토부, 산업입지정보센터(2015년 말)





## 전라북도 산업입지 정책 방향

# 3

1. 산업입지 정책 추이
2. 전라북도 산업발전 동향
3. 전라북도 산업입지 관련 정책
4. 전라북도 산업입지정책 기본 방향



## 제3장 전라북도 산업입지 정책 방향

### 제1절 산업입지 정책 추이

-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정책은 1960년대 초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경제발전, 산업구조 및 정부 정책기조 등을 반영하여 산업입지 정책도 변화되어 오고 있음.
- 1960년대 이전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른 자유로운 개별입지 위주로 공장용지가 개발됨.
- 산업입지 정책은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1962), 「도시계획법」(1962), 및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1964)을 기반으로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함.
- 산업입지 정책은 공업화 기반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부지를 제공하는 공업단지 정책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음.
- 공업단지의 조성은 대규모 공업입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기업의 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집적된 공업입지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
- 전라북도는 정부의 산업입지정책의 틀 속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단지의 조성이 시작되었음.
- 전라북도의 산업단지는 전주제1산업단지가 1966년에 공업의 지방분산과 소득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최초로 조성됨.
- 2015년말 현재 국가산업단지 4개, 일반산업단지 23개(2개 조성중, 2개 미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57개(5개 조성중, 1개 미개발), 총 85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1. 1960년대: 산업입지 제도의 기반 마련

-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립으로 산업입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됨.
  - 1960년대 이전에는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개별입지 위주로 공장용지가 개발되었고, 서울·부산·대구 등 내륙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장들이 집중적으로 입지하였음.
- 「공업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특례법」(1962), 「도시계획법」(1962), 및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1964)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입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부주도의 산업정책 및 산업단지의 조성이 시작됨.
  - 196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인 울산공업센터가 지정되었음.
  - 1964년에는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되어 1965년부터 서울(구로)과 인천(주안과 부평)에 6개의 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음.
- 1960년대 공업배치정책의 특징은 특정지역 등 일부지역에 공업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서, 이는 인프라시설 관련 투자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의 집적을 통해 집적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음.
  - 1960년대에 지정·조성된 공업단지는 15개이며, 서울 및 인천, 대구 성서 및 검단, 울산, 여천, 포항, 사상, 춘천, 성남, 구미 공업단지 등임.
  - 수출산업공단을 중심으로 정부주도의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계획입지에 의한 공장용지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이용의 측면에서 민간 공업단지도 조성되었음.
- 전라북도에는 1966년에 최초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개발되었음.
  - 전주제1산업단지가 공업의 지방분산과 소득격차 해소를 목표로 지정되어, 주로 섬유제품 임가공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로 육성되었음.

## 2.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 거점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통한 수출증대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대도시와 공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성장거점 개발이 이루어졌음.
  - 창원 기계공단, 울산석유화학공단, 목포산업기지, 반월 공업단지, 군산 공업단지, 순천 공업단지, 포항 공업단지, 진주 삼평공단, 칠서 공업단지 임해지역을 중심으로 중화학 산업단지가 조성됨.
  -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이 제정되어 같은 해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지정되었고, 1973년에는 이리(익산)수출자유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음.

- 또한 「지방공업개발법」(1970)이 제정되어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완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됨.
  - 지방도시에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가 마련되었으며,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각종 재정지원 및 지방세법 개정 등의 국가지원체계가 확립되었음.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강릉·정주·나주 중소공단, 천안 공업단지, 여수 오천공단 외에 20여 개의 중소 공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조성되었음.
  -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와 미포단지를 비롯하여 인천, 대전, 대구, 원주, 전주, 청주, 북평, 창원, 군산, 반월, 양산, 온산 등에 국가 또는 지방공업단지가 지정 및 조성됨.
- 중화학공업의 개발·육성을 위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1973)이 제정됨.
  - 고도화된 현대공업국가로의 개발을 위하여 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공업 등의 중화학공업기지 건설에 중점
- 1975년에는 공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업단지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1977년에 「공업배치법」이 제정되었음.
  - 공업부문간의 불균형 시정, 산업관련도 제고, 기술혁신이 목표로 설정되고, 대도시지역의 공업집중 억제와 지방분산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었음.
- 전라북도에는 1970년대에 정부의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산업단지의 조성에 힘입어 산업단지의 조성이 주로 이루어졌음.
  - 익산수출자유지역, 군산지방산업단지, 정읍제1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됨.

### 3. 1980년대: 국토균형개발에 역점

- 1980년대에는 중소규모의 공업단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균형개발전략이 추진됨
- 특히 1980년대 초에는 중소규모 단지개발방식이 적극 추진되었음.
  - 부산 신평·장림공단, 광주 하남공단, 경기 향남공단, 충남 부용 및 조치원 공단, 경남 진해마천 주물공단 등이 지정·개발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서남권을 중심으로 대불, 녹산, 군장공단 등이 지정·개발됨.
- 공업의 지방분산 및 균형개발정책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과 「수도권정비계획법」(1982), 「중소기업진흥법」(1982),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83) 등에 의해 구체화되었음.
  -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공업 배치 시 지방의 기존공업을 고려하여 계열화 및 집적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였음.



- 「수도권정비계획법」(1982)에서는 수도권을 5개 권역<sup>1)</sup>으로 분리하여 공업배치제한을 통한 산업의 적정배치를 도모하였음.
- 「중소기업진흥법」(1982)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대도시 기업의 지방 유치를 도모하였음.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83)은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의 소득원개발을 촉진하는 농공단지의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본격적인 농공단지의 개발은 1990년대에 이루어졌음.
- 전라북도에는 정부의 공업단지의 전국배치를 통한 균형발전전략의 추진과 함께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이 이루어짐.
  - 전주시를 내륙공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제2산업단지, 완주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었음.
  - 1980년대 후반에는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서해안 신산업 전진기지로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음.
- 이와 함께 전라북도에는 1980년대 후반에 17개 농공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음.
  - 전라북도에는 1980년대에 군산시 성산, 옥구, 익산시 삼기, 정읍시 농소, 북면, 남원시 인월, 김제시 황산, 서흥, 봉황, 완주군 이서, 진안군 연장, 장수군 천천, 임실군 신평, 오수, 순창군 가남, 고창군 고수, 부안군 줄포 등 농공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함.

#### 4. 1990년대: 산업입지제도 정비와 지역간 균형적 산업발전 역점

- 1990년대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와 재구조화가 추진됨.
  - 정보통신 등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1990)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도입
-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벤처기업 전용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음.
  - 광주 첨단단지와 6개 지방과학산업단지(부산, 대전, 대구, 전주, 강릉, 오창) 건설이 추진되고, 테크노파크, 벤처단지, 미디어단지, 영세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 등이 개발됨으로써 기업의 입지수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개발을 지향하였음.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이 수립되어 전국이 7대 광역개발권<sup>2)</sup>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입지정책이 수립되었음.

1) 이천축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존권역, 개발유도권역.

2) 동서남해안을 따라 U자형의 아산만, 군산·장항, 광주·목포, 광양만, 부산, 대구, 포항, 대전 등

- ◉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성장거점 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광역권 계획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동 법으로 흡수됨.
- ◉ 산업입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기존의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개편하였음.
  - 산업입지정책이 제조업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업종, 교육, 문화 등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집적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음.
  - 이에 따라 산업단지는 생산연구물류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이 연계 배치되어 기업지원이 가능한 복합산업단지의 개념을 가지게 됨.
- ◉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지정되었음.
  - 천안 및 광주 평동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천안 및 경남 사천에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었음.
- ◉ 1990년대에 전라북도에는 전주첨단과학산업단지, 정읍제2·제3산업단지, 김제순동산업단지 등 4개의 지방산업단지와 1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음.
  - 1990년대에 전라북도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군산시 옥구, 익산시 황등, 남산, 정읍시 고부, 신대인, 남원시 광치1·2, 어현, 김제시 월촌, 만경, 진안군 연장2, 무주군 안성, 고창군 아산, 부안군 부안 등임.

## 5. 2000년대: 혁신창출 경제로의 전환

- ◉ 세계화 및 산업 전반의 네트워크화가 가속화되는 등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의 요소투입형의 경제체제에서 혁신창출형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입지정책이 추진되었음.
  - 혁신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됨.
- ◉ 2003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되어 40여 년간 추진해온 하드웨어 중심의 ‘공업배치’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집적(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됨.
  - 2004년에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창원, 구미, 울산 등 7개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2007년에는 남동, 녹산, 대불, 성서, 오창 등 5개 산업단지가 추가 지정됨.





- 산업진흥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IT, BT, NT 등 첨단산업의 입지개발이 본격화되었음.
- 2000년대에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7개 문화산업단지, 청주, 전주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국민임대 산업단지 등이 조성 공급되었음.
- 2000년대에 전라북도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김제경제자유지역, 군산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익산종합의료과학단지, 정읍첨단과학(RFT)산업단지 등이 지정되었음.

## 6. 최근의 산업입지 정책

- 산업간 융복합 및 신산업의 육성·확대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을 추진 함.
- 과학과 ICT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 융복합·신성장동력·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을 확대
- 2010년 말 기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6개에서 2016년 11월말 현재 21개로, 최근 5년간 총 15개의 신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가로 지정됨.
- 창조경제시대에 맞게 산업단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산업입지 관련 법률 규제 완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2)하여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 업종에 서비스업 추가함으로써 입지규제 완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4)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복합입지, 산학융합입지를 허용함.
- 각종 제도를 통해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꾀함.
- 과다 지정 및 과잉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에 맞는 지정·개발을 유도하는 지정평가제를 도입하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MP(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2015)을 제정하여 준공된 지 20년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계획 수립 의무화
- 정부 지원을 통한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기반시설 및 공장시설 관리 등의 관리체계 개편과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 전라북도는 전주제1산단과 익산 국가산업단지에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 실시 중

<표 3-1> 산업입지정책의 변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정책 대상	·계획입지 개발시도	·수도권내 산업집중	·지역적 불균형 심화	·개별입지 증대 ·첨단산업 입지수요 공급	·지식기반산업입지 수요 공급 ·기존단지의 경쟁력 제고	·산업간 융복합 ·신산업육성 및 확대
정책 기초	·수출위주의 경공업 입지	·수도권 억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내실화 ·농공단지 개발	·입지유형 다양화 ·입지규제 완화 ·구조조정 촉진	·전문화된 집적지구 ·지식기반 경제구축 지원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학과 ICT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 ·융복합·신성장동력·미래산업 육성
관련 법규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수출산업공업 단지개발조성법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지방공업개발법 ·산업기지개발 촉진법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진흥법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산업입지법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산업기술단지지원 특별법	·산업입지법 개정 ·문화산업진흥법 ·국토계획및이용법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집적법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제 완화
주요 사업	·울산공업센타 조성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동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수출자유지역 개발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개발 ·아파트형공장 조성	·산업단지 명칭변경 개발절차 간소화 ·개별입지 증대 ·테크노파크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산단클러스터 시범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 ·K-ICT산업단지 ·클라우드 사업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전북 지역	전주제1산업단지	익산수출자유지역 군산지방산업단지 정읍지방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장국가산업단지 전주제2산업단지 ·완주산업단지 ·17개 농공단지	·전주첨단과학 산업단지 ·정읍제2·제3 산업단지 ·김제순동산업단지 ·14개 농공단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김제경제자유지역 ·전주친환경첨단 복합산업단지 ·익산종합의료 과학단지 ·군산산단클러스터	전주제1산업단지 익산국가산업단지

자료: 건설교통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연구, 2007, p.49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산업입지요람, 2016, p.18 를 수정

## 제2절 전라북도 산업발전 동향

### 1. 전라북도 산업발전 동향

#### ■ 전북의 경제규모는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속함

- 전북의 201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이하 GRDP)은 전국 GRDP 1,484조원의 약 3.0% (44.6조원)로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2위의 규모
  -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9개 도 가운데 제주, 강원 다음으로 작은 규모
-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84.3% 수준
  - 1인당 GRDP는 2,483만원으로 전국 9위이며 GRDP 규모에 비해서는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국 평균 2,94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표 3-2> 전북경제 현황

지역	GRDP (10억 원)		1인당GRDP (만원)		인구 (천명)		취업자 수 (천명)		사업체수 (천개)		수출 (억 달러)	
전국	1,484,542		2,944		50,424		25,936		3,813		5,269	
서울	327,602	(2)	3,312	(5)	9,891	(2)	5,135	(2)	813	(1)	603	(4)
부산	73,744	(6)	2,161	(13)	3,412	(3)	1,657	(4)	278	(3)	156	(9)
대구	46,592	(11)	1,894	(16)	2,460	(7)	1,234	(7)	199	(6)	71	(13)
인천	68,374	(8)	2,392	(11)	2,858	(5)	1,488	(5)	184	(7)	312	(7)
광주	30,998	(15)	2,045	(15)	1,516	(13)	740	(13)	111	(13)	153	(10)
대전	32,723	(14)	2,117	(14)	1,546	(12)	777	(12)	110	(14)	43	(14)
울산	69,548	(7)	6,110	(1)	1,138	(15)	561	(15)	79	(15)	730	(2)
세종	-	-			134	(17)	-	-	9	(17)	9	(16)
경기	329,449	(1)	2,683	(8)	12,281	(1)	6,364	(1)	810	(2)	1,000	(1)
강원	36,886	(13)	2,457	(10)	1,501	(14)	731	(14)	133	(11)	19	(15)
충북	49,137	(10)	3,152	(6)	1,559	(11)	828	(11)	119	(12)	152	(11)
충남	103,740	(3)	4,990	(2)	2,079	(8)	1,194	(8)	154	(8)	671	(3)
<b>전북</b>	<b>44,623</b>	<b>(12)</b>	<b>2,483</b>	<b>(9)</b>	<b>1,797</b>	<b>(9)</b>	<b>894</b>	<b>(10)</b>	<b>145</b>	<b>(9)</b>	<b>80</b>	<b>(12)</b>
전남	63,095	(9)	3,588	(3)	1,758	(10)	924	(9)	143	(10)	305	(8)
경북	91,653	(5)	3,471	(4)	2,640	(6)	1,412	(6)	214	(5)	435	(6)
경남	102,484	(4)	3,131	(7)	3,273	(4)	1,663	(3)	259	(4)	470	(5)
제주	13,894	(16)	2,391	(12)	581	(16)	333	(16)	54	(16)	1	(17)

자료 : 통계청

주 : 취업자 수와 수출은 2015년, 나머지 통계는 2014년 기준

- 전북의 수출은 2015년 전국 대비 1.5%(80억 달러)에 불과하여 낮은 수준
  - 전국 12위의 수출규모로서 11위를 차지한 충북 수출규모의 절반에 불과
- 취업자는 89만 4천명(전국대비 3.6%)으로 전국 10위의 일자리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체수(전국대비 3.8%)는 14만 5천개로 전국 9위

## 2. 전라북도 산업육성정책

### 가. 지역산업육성정책 현황

#### ■ 전북 산업육성정책 추진 과정

- 전북의 지역산업육성정책은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2단계)의 추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산업발전여건의 변화와 함께 차별화된 전략이 추진되어 옴.
- 지역산업의 발전기반이 취약한 초기단계에는 산업발전기반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집적과 혁신기반의 구축 전략이 중점적으로 추진됨.
- 이후 지역산업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지역에 구축된 혁신기반의 성과를 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한 클러스터 육성전략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옴.



자료 : 전라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그림 3-1>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전략의 변화과정

2003년 이후의 전북의 산업육성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산업 특화육성 전략 추진
  - ▣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에서 제시된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육성에 기초
  - ▣ 선정된 전략산업을 포함한 5대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 중
- 둘째, 산업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산업집적지 조성 전략을 추진
  - ▣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집적지를 형성함으로써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
  - ▣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집적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기업유치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
- 셋째, 지역의 불리한 산업투자 여건을 고려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전략 추진
  - ▣ 지역에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연계형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
  - ▣ 취약한 재정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응자금을 지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기관 및 연구개발 사업들을 유치
- 넷째, 산업용지 공급과 투자유치 제도 정비 등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 전략 추진
  - ▣ 저렴한 지가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보조금 지원 등을 기업유치 여건의 강점으로 인식하고 산업집적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과 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 다섯째, 지역산업의 발전단계에 맞춘 발전단계별 차별화 육성전략 추진
  - ▣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초기단계에서는 취약한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산업집적지 형성을 위한 산업육성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집적지 형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협력과 산업 가치사슬의 형성 지원 등 집적지를 고도화하고 그 성과를 여타 지역과 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강화

## ■ **전북의 전략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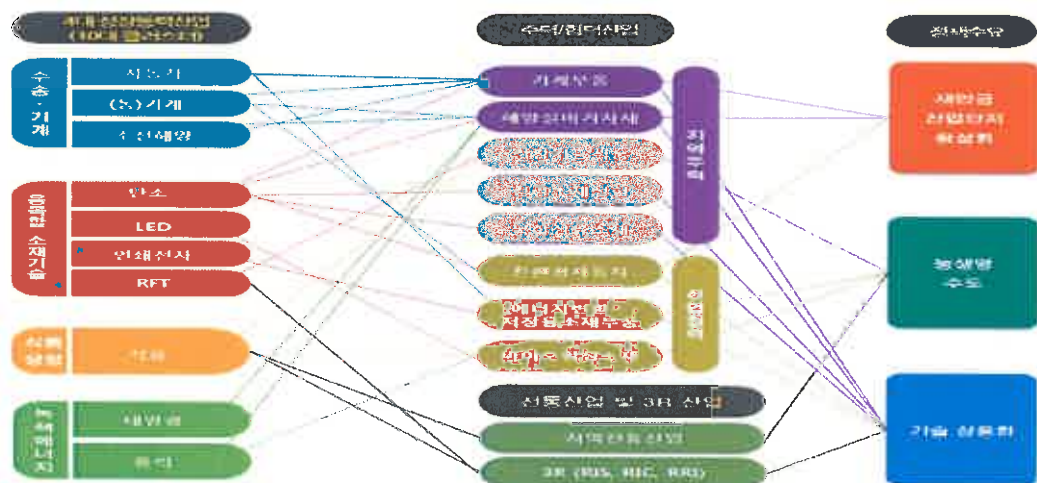
- 전북은 2003년부터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한 이후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추진전략 변화에 따라 수정되면서 변화되어 왔으나, 4대 전략산업을 근간으로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부 수정되어 옴.
- 2003년 선정된 전략산업은 자동차부품 및 기계 산업, 생물 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산업, 전통문화, 영상, 관광산업 등
- 4대 전략산업의 선정은 고용 및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타 지역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표 3-3> 전라북도 전략산업 및 중점육성분야(2003년)

전략산업	중점 육성분야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기반 확충 및 고도화</li> <li>• 생산시스템 고도화 및 R&amp;D 혁신지원</li> <li>• 전문 인력 육성</li> <li>• 벤처기업 육성</li> <li>• 정보화 및 네트워킹</li> </ul>
생물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화학</li> <li>• 발효식품 및 전통식품(청정 생명농업포함)</li> <li>• 한방산업</li> </ul>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FT 기반 구축</li> <li>• RFT 연구개발 산업으로 신산업창출</li> <li>• 대체에너지 산업화 인프라 구축</li> </ul>
전통문화, 영상, 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 중심지 구축</li> <li>• 전통문화자원의 관광 상품화</li> </ul>

자료 : 전라북도, 2004,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 전북의 전략산업 재편은 정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 전략 변화와 전라북도의 자율적인 지역산업육성전략에 의해 변화되어 옴.
  -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추진에 따라 2000년대 초의 4대 전략산업은 2008년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전라북도 전략산업으로 재편됨.
  - 전라북도는 2010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전략산업을 포괄한 지역 자율적인 전략산업으로 자동차, 농기계, 조선해양, 태양광, 풍력, LED, RFT, 인쇄전자, 탄소소재, 식품 산업 등 10대 산업을 선정
  - 2015년 전라북도는 민선6기의 지역산업 육성전략 방향을 반영하여 농생명·식품, 탄소·방사선 융복합소재부품, ICT·SW, 자동차기계·조선해양, 그린에너지 등 5대 융복합 성장동력산업을 전략산업을 재편



자료 : 전라북도, 2014년 전라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그림 3-2>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전라북도 전략산업 개편(2012~2014)



## 나. 5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 2015년 이후 전북은 전략산업을 재편하여 5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음.
- 5대 성장동력산업은 농생명·식품, 탄소·방사선융복합소재부품, ICT·S/W, 자동차·기계·조선해양, 그린에너지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 방향
농생명·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생명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전환</li> <li>• 미생물-종자-식품-바이오 산업 등 육성</li> </ul>
탄소·방사선 융복합소재부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화, 인증지원 및 창업(기업연구소) 활성화</li> <li>• 소재에서 제품까지 상용화 지원</li> </ul>
ICT·SW 융복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SW산업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구축</li> <li>• 농생명, 스마트 공장 등 지역 산업과의 융복합 추진</li> </ul>
자동차·조선해양·기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기업 집중육성 및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li> <li>•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엔지니어링 및 마케팅 지원</li> </ul>
그린에너지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시장확대와 지원</li> <li>• 그린에너지 원천기술 개발</li> </ul>

자료 : 전라북도, 2015, 전북 성장동력산업 종합육성계획

<그림 3-3> 전라북도 5대 성장동력산업과 육성방향

### ■ 육성목표 및 방향

- (산업고도화) 생산과 제조 시스템을 정보통신기술 등 산업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등과 같은 효율적인 제조·생산·유통·서비스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동력산업 고도화 추진
  - 생산공정, 조달 및 물류 등 제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 맞춤형 대량생산 및 서비스 등으로 투자활성화, 기술창업 등으로 전북 제조업 경쟁력 강화
- (인프라 확대) 신산업 창출, 기술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과 활용성 제고 전략으로 성장동력산업 산업 생태계 구축과 상용화 기반 확대
  - 신기술 개발, 상용화를 위한 시험 및 평가시설과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기업 집적화 등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활용성 강화 추진
-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생산인력 및 산업간 융복합 분야 고급 전문 인력 양성
  - 원천기술 및 상용화 촉진 개발은 연구기관 및 대학 중심으로 추진하고 결과물을 활용한 상용화 제품은 기업중심으로 개발
  - 전문생산인력 및 융복합 고급 전문 인력 양성 추진



## ■ 산업별 육성방향 및 추진과제

<표 3-4> 농생명·식품산업 추진전략

비전	산업·기술 융복합으로 글로벌 농생명 허브 조성		
	① 융복합 신산업 창출	② 글로벌 농식품산업 육성	③ 생산·유통의 선진화
추진 전략	① 농생명 융복합 기반조성 •농생명연구협의회 운영 •농식품산업 R&D 지원센터 운영 •농생명 창의인재 양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농식품수출전용단지 조성 •소스산업화센터 설립	① ICT 융합 스마트 팜 확산 •첨단 시설원에 확산 사업 •가축 질병 방역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식품(팩토리) 구축
	② 첨단농자재산업 육성 •종자 산업 메카 조성 •ICT융복합시설농자재클러스터 •친환경농자재 기반 조성	② 농생명 소재 산업화 •향토자원 기능성 소재 산업화 •천연항균제 기반 구축사업 •바이오 융합 산업 육성	② 농식품 유통 효율화 •광역통합마케팅조직 육성 •광역물류유통센터 구축
	③ 미생물융복합 산업육성 •한국형유용균주 산업기반구축 •미생물가치평가센터 활성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	③ 고부가식품산업 육성 •향토건강식품명품화 사업 •FTA 대응 수출 전략품목 육성	③ 고부가 6차 산업화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 설립 •농식품 6차 산업화 촉진

- (농생명·식품산업) 농생명산업은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식품산업에 치중되어 있고 저부가가치, 내수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추진

<표 3-5> 탄소·방사선 융복합소재부품산업 추진전략

비전	한국의 탄소·방사선 융복합소재산업 허브 전복	
	핵심전략	핵심과제
추진 전략	(탄소)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4대 전략분야 탄소복합재 특화 거점기반 조성 * R&D역량 및 상용화 기반강화	•탄소복합재/나노탄소소재 상용화 기술 확보 •탄소기업 육성기반 강화 및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탄소기업 창업인프라와 성능평가 및 인증 기반구축 •탄소분야 석·박사급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형 인력양성
	(방사선) 화학신소재, 생명공학, 육종 등 방사선 기술 다변화	•미래 수요(화학신소재, 생명공학, 육종 등) 대응 방사선 연구개발 •미래방사선 기술역량강화 기반 확충 •현장 맞춤형 방사선 연구인력 양성
	(플라즈마) 플라즈마-탄소융복합소재 기술 상용화 추진	•합성기술 분야 연구개발 •플라즈마 기술응용 강소기업 육성 •플라즈마 대형실험장치 및 기업연구개발 기반확충 •학연공동연구센터(DRC) 운영 석박사급 인력배출
	(섬유) 하이브리드 테크니컬 섬유산업 육성	•글로벌시장선도 하이브리드 테크닉 연구개발 •섬유산업 글로벌 융복합 강소기업 육성 •에코-창업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섬유기업 재직자중심 역량강화 •안전보호용제품클러스터 조성
	(인쇄전자/3D) 인쇄전자/3D R&D 및 신뢰성평가 지원 기반 조성	•인쇄전자/3D프린팅 신기술융합 연구개발 •인쇄전자/3D프린팅 기술사업화 촉진 •3D 프린팅 소재 실용화센터 및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유연인쇄전자 전문대학원 운영 등



- (탄소방사선 융복합소재부품산업) 탄소 및 융복합소재부품산업은 상용화 및 사업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하여 상용화, 창업(기업연구소)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육성
  - 자동차, 농·건설기계,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 등과 융합을 통해 상용화 촉진과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등으로 소재에서 제품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완성
- (ICT·SW융복합산업) 지역의 ICT 및 SW산업이 단순 서비스 중심과 앵커기업 등의 부재로 기반이 취약하므로 ICT·SW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
  - ICT 융합기술 인증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농생명,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공장 등 지역 주력산업과의 융복합 추진

<표 3-6> ICT·SW융복합산업 추진전략

비전	ICT 융복합산업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	
	핵심전략	핵심과제
추진 전략	Smart Farm & Food 농업과 ICT의 융복합을 통한 신농업경제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생명 SW융합 클러스터 조성</li> <li>• 친환경 발농업을 위한 ICT 융합형 스마트 드론 개발</li> <li>•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델별 표준 SW 개발</li> <li>• F-IoT기반 식물 생장 환경 최적 관리 시스템 개발</li> <li>• 스마트센서망(Network)기반 협업형 농업로봇 개발</li> <li>• 축산업 전염성 질병 방지 ICT 융합 방제안전시스템 개발</li> </ul>
	Smart Culture & Contents 전통문화, 관광, 콘텐츠 산업의 ICT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 차별화 및 활성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Pass 서비스 플랫폼 구축</li> <li>•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li> <li>• 한국형 전통소리자원 개발</li> <li>• 글로벌게임센터 및 콘텐츠코리아랩 구축</li> <li>• 지역스토리랩 프로그램 운영</li> </ul>
	Smart Factory ICT와 제조업 융합을 통한 제조시스템혁신 및 미래 신산업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제조기술 지원 사업</li> <li>• ICT융합형 고위험군 기계·장비개발</li> <li>• 새만금 도시개발센터 구축</li> <li>• 새만금 공간정보융합센터 구축</li> </ul>
	Smart Living 생활밀착형 주민서비스의 저변화 및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생활정보지도 구축</li> <li>• IoT 기반 스마트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li> <li>• 실버 웰니스 라이프 휴먼형 헬스케어기기 개발</li> </ul>
	Smart Convergence Ecosystem ICT 융복합산업 고도화 및 ICT 융합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융합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li> <li>• 융복합 SW강소기업 육성 사업</li> <li>•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li> <li>• ICT 섹터 전문 인적 자원 개발사업</li> <li>• ICT 스타트업 지속성장 지원 사업</li> </ul>

- (자동차조선해양기계산업)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저성장 추세에 있어 기술 융복합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중견기업 집중육성, 인프라 구축, 융복합 R&D, 마케팅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표 3-7> 자동차조선해양기계산업 추진전략

비전	기술 융·복합을 통한 자동차·기계산업 글로벌 메카 구축	
	핵심전략	핵심과제
추진 전략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R&D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사업</li> <li>• 상용차 전장테크노밸리 종합지원체계 구축</li> <li>•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 구축</li> <li>• 차량 경량소재부품 인력양성 사업</li> </ul>
	(조선해양) 그린쉽 기자재 인프라조성 및 미래 해양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쉽 기자재 공인시험인증센터 구축</li> <li>• 새만금 전기보트기반 R&amp;D센터 구축</li> <li>• 해양설비기자재산업 역량강화,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사업</li> <li>• 중소형선박기자재 및 해양설비기자재 기술 육성</li> </ul>
	(기계) 기술경쟁력 확보 및 수출지향형 강소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 로봇 융합센터 및 테스트 베드 구축</li> <li>• 친환경도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li> <li>• 기계부품 산업 기술고도화 사업</li> <li>• 기계부품 산업 수출 전략형 사업화 지원 사업</li> </ul>
	(뿌리) R&D고급인력 양성 및 뿌리기술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형 금형 시생산 인프라 구축</li> <li>•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li> <li>• 뿌리 6대 분야별 41개 특화기술 육성</li> <li>•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li> <li>• 뿌리 숙련기술자 양성 및 역량강화</li> </ul>

- (그린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글로벌 환경변화 및 정부정책 변화로 기업들의 생존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등 신규 수요 창출 전략과 함께 기후변화대응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원천기술개발 등을 추진

<표 3-8> 그린에너지산업 추진전략

비전	그린에너지를 선도하는 그린 융복합산업의 중심, 전복	
	핵심전략	핵심과제
추진 전략	(풍력) 풍력산업 시장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서남해 2.5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li> <li>• 풍력분야 R&amp;D 및 인력양성사업 추진</li> <li>• 해상풍력지원항만 조성</li> </ul>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및 밸류체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인증 성능평가 능력을 갖춘 2단계 테스트베드 구축</li> <li>• 태양광발전소 조성 내수창출</li> <li>• 인프라, R&amp;D, 기업지원, 인력양성 종합지원 체계구축</li> </ul>
	(바이오화학) 바이오화학 생태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화학 실용화 센터 건립</li> <li>• 산업화 촉진기술 개발</li> <li>• 바이오컴비나트 실증단지 조성</li> <li>• R&amp;D 전문 인력 양성</li> </ul>
	(에너지변환·저장) 그린에너지 시범사업 등 초기시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협력권사업을 통한 상용화 핵심기술 확보</li> <li>• 부안단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li> <li>•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에너지 체로 단지 조성</li> </ul>
	(LED) 융합산업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D 농생명 융합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li> <li>• 한국 LED 산업단지 조성</li> <li>• MICE-LED 융합산업 발굴</li> <li>• 식물공장 융복합 맞춤형 식물소재 산업화 추진</li> </ul>

## 제3절 전라북도 산업입지 관련 정책

### 1. 정부의 관련 정책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 계획의 비전과 목표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를 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함
  -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FTA 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
  -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국토 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 실현



<그림 3-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

##### ■ 전북 발전방향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6대 추진전략 속에서 전북의 발전방향을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 미래 녹색성장 산업과 전통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선진형 교통·정보·물류망 확충,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 및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광역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제시함

-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전주광역도시권을 호남 북부의 거점도시로 기능 강화, 새만금권은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 군산~목포를 신산업벨트로 육성, 동부의 산악수변을 내륙 청정휴양레저벨트로 육성, 군산(금강)~덕유산을 수변생태관광벨트로육성, 전주~익산~군산~새만금축을 조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바이오 및 식품산업 기반의 녹색산업축으로 육성
- 미래 녹색성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익산~전주·진안을 중심으로 헬스케어산업 육성, 전주~군산~새만금·서해안·광양만권을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 전주·서남해안의 전통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교류 중심지로 육성, 새만금을 해양관광벨트 및 동북아 해양관광허브로 육성, 지리산·덕유산을 중심으로 '에코테인먼트 거점' 육성
- 선진형 교통·정보·물류망 확충을 위해 군산(새만금)~포항 동서교류망 확충, 새만금·서남권, 광양만권의 혁신도시 등 거점간 연계 강화, 새만금지구와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군산공한 확장 검토, 군산항 및 새만금 신항 건설을 통해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육성
-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 및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전주광역도시권을 과학기술 진흥 및 교육·인재양성 거점으로 육성, 새만금~전주 녹색산업축을 통해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 광역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위해 호남광역권 도시·해양·산악·농어촌 관광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관광, 축제 등의 광역적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2)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년)

### ■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은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및 5대 중점추진분야를 제시함
  - 3대 추진전략: ①지역행복생활권 구현, ②맞춤형 패키지 지원, ③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 5대 중점추진분야: ①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지역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 ④지역문화 융성, ⑤복지의료체계 개선

### ■ 지역별 대표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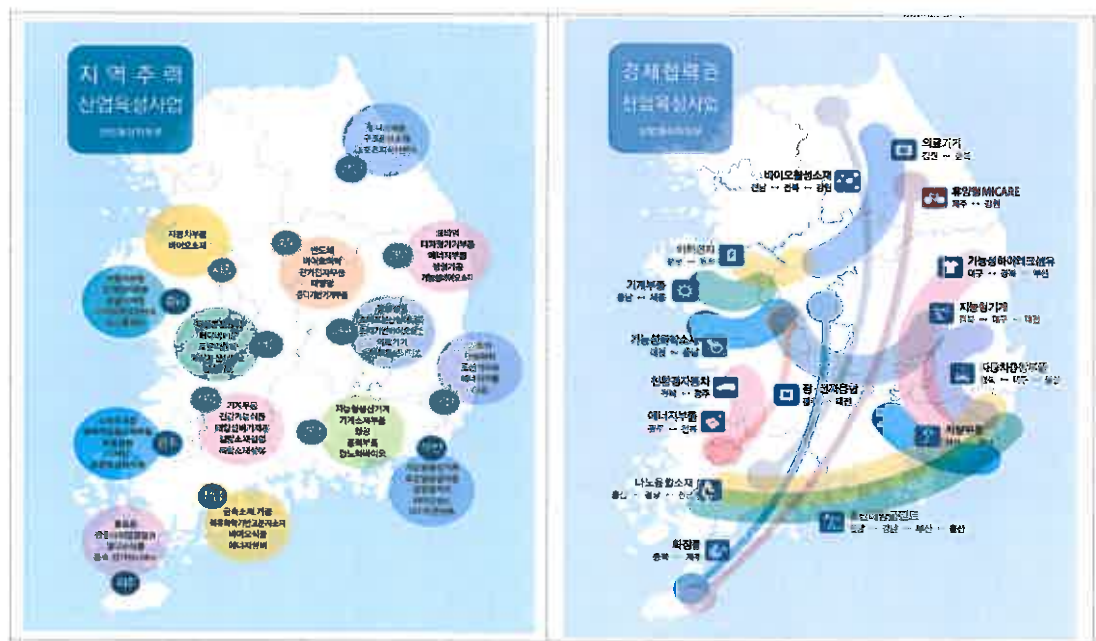
- 지역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지역주력산업,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대함
  - 지역주력산업은 지역의 산업기반과 성장성 등 미래의 산업 발전가능성을 기초로, 고용창출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산업으로 전국에 총 63개 산업이 선정됨
  - 경제협력권산업은 기업수요와 지역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14개 시·도(수도권 제외)간 자율협의를 통해 선정된 산업으로 전국에 총 16개 산업이 선정됨

◦ 전라북도 대표산업은 다음과 같음

- 주력산업: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소재섬유
- 경제협력권산업: 친환경자동차, 에너지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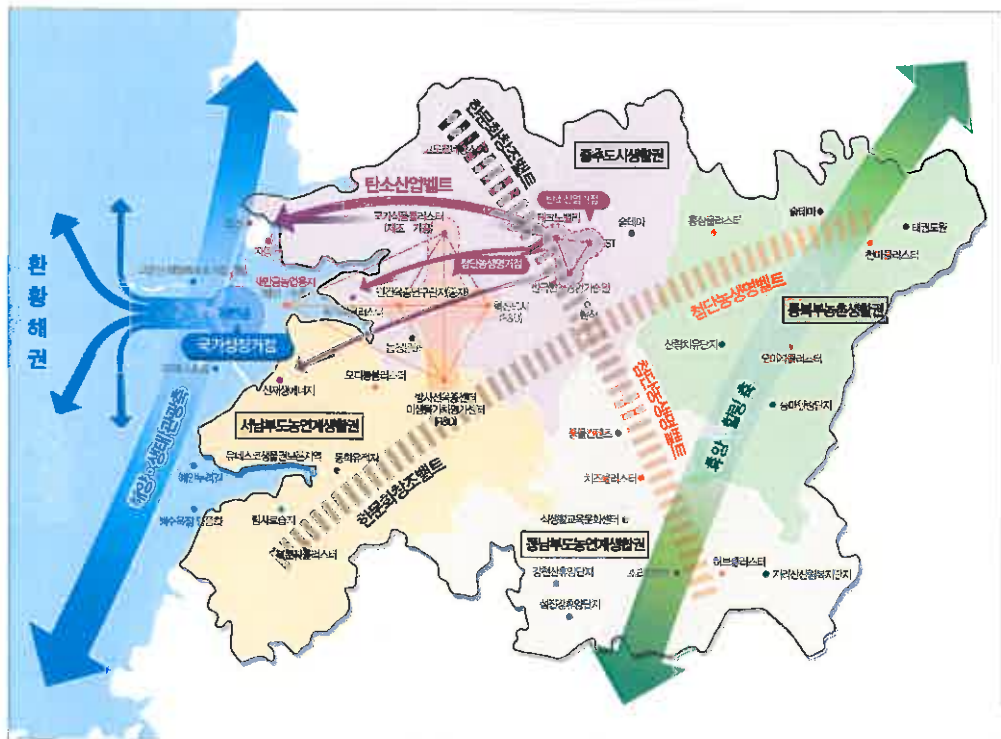
<그림 3-5>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추진 전략



<그림 3-6> 시·도별 주력산업 및 시·도간 경제협력권산업

## ■ 전북 발전계획

-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육성,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육성, 한문화 수도 조성 등을 역점 과제로 추진
- ‘농생명 허브조성’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지원 등 추진
- 공간발전구상은 ‘탄소산업벨트구축과 새만금 국가성장거점 조성으로 신산업 육성’, ‘전통문화와 농식품자원 기반 한문화창조벨트 및 첨단농생명벨트 조성’임



<그림 3-7> 전라북도 공간발전구상

## 3)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목표: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특화, 산업의 집적 및 산업간·지역간 연계 촉진, 산업집적지의 경쟁력 제고
- 주요 내용: 성장유망산업 현황,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발전전략, 산업의 집적 및 연계 촉진 방안, 산업집적지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



- 계획의 의의: 산업집적 관련 정부의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 정책 수립시 주요 지침으로 활용

## ■ 산업집적지 육성계획

-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년)」과 동일함
  - 시·도별로 5개 이내의 주력산업 선정
- 산업 집적 및 연계 촉진 방안
  - 성장유망산업의 수요를 고려한 입지 공급
  -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간 연계 강화
  - 지역투자보조금·외국인투자를 활용한 지역산업 집적 촉진
- 산업집적지 경쟁력 제고 방안
  -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추진
  - 기업의 연구·혁신역량 강화
  - 스마트·친환경 산업단지 구축

## ■ 전북 발전전략 및 입지공급 방향

- 발전전략: 혁신기반기술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산업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 기계부품: 농업·건설·특수목적 관련 기계 중심의 새만금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계부품 매출 2조원 달성
  - 건강기능식품: 한방·발효 기능성식품 중심의 2020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 실현
  - 해양설비기자재: EEDI 기반 기자재 중심의 미래 친환경 해양설비기자재산업 육성
  - 경량소재성형: 경량소재성형, 고장력 판재성형 중심의 고부가가치 핵심 생산기발기술 확보를 통한 1·2·3 실현
  - 복합소재섬유: 초경량 탄소복합재 및 천연소재섬유제품 중심의 복합섬유소재 3·6·9 상용화 허브 구축
- 입지공급 방향
  - 기계부품, 해양설비는 새만금, 김제지평선, 완주테크노벨리에 집적
  - 소재산업은 전주, 익산, 군산 등 기 집적지를 중심으로 신규단지를 공급하고, 김제지평선 단지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활용
  - 식품산업은 기존 국가단지에 집중 유치(국가식품클러스터)



## 2. 전라북도 관련 정책

### 1) 전라북도 종합계획(2013)

#### ■ 비전 및 목표

- ‘삶의 질이 높은 동북아 신성장거점 전라북도’라는 비전 하에 지역상생발전, 신성장산업 육성, 복지공동체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추진전략으로는, 지역간 상생발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FTA에 강한 농업, 활력 농촌 실현,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현, 스마트 녹색 안전도시 조성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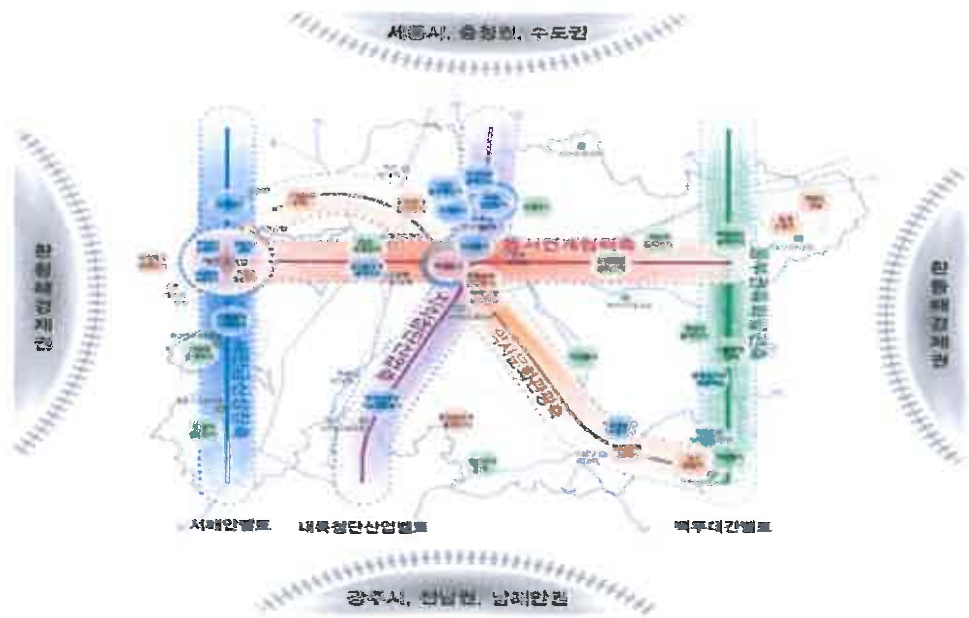


<그림 8-1> 전라북도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

#### ■ 공간구조 및 발전축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첨단산업축, 역사문화관광축, 동서연계협력축이 맞물리고 새만금신성장축과 동부권특화발전축과 연계되는 발전축 설정
- 공간구조 권역 중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추도시권은 혁신도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농생명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을 키워 중심거점으로 육성





<그림 8-2> 공간구조 발전축 설정

## ■ 부문별 계획

- 중추도시권 육성과 지역간 상생발전 부문에서는 혁신도시 등 지역의 거점들과 산업연계, 관광문화루트, 생태·환경, 하천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하여 농생명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성장거점 개발 및 연계 인프라 구축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 부문에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 구축,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서비스업 육성과 서비스업 관련 창업 및 취업 유도
- 강한 농업, 활력 농촌 실현 부문은, 농업연구기반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산업 기반구축과 경쟁력 강화
- 국제교통물망 확충과 토지연안이용 효율화 부문에서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간선교통체계 재정비, 첨단녹색교통체계 구축, IT와 식품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정보화 지원, 혁신도시 등 신성장거점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이용 효율화
- 생활복지와 농촌복지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현 부문은, 그물망 복지, 생활체육 활성화, 맞춤형 인력양성 통한 취업, 창업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녹색 안전도시 조성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지역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2) 전라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 ■ 목표

- 전라북도의 지역산업 발전 목표는 '전북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 임
- 창조융합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23,000개와 기술창업 및 기업유치 1,200개

### ■ 주력산업

- 복합섬유소재, 기계부품, 경량소재성형, 해양설비기자재, 건강기능식품(특화)산업
- 친환경자동차, 에너지변환저장부품, 바이오활성소재산업은 타 시도와 협력하여 육성할 계획

전략 목표	전북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		
성과 목표 지표	창조융합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23,000개 / 기술창업 및 기업유치 1,200개		
	구분 (주력/협력)	As-Is (2014)	To-Be (2018)
	사업체수	3,523 개사	4,758 개사 (+33% '14 연평균 증가율 (1.93%))
	종사자수	68,422 명	91,588 명 (6.91%)
	생산액	21.2 조원	29.5 조원 (11.37%)
	부가가치액	5.9 조원	9.7 조원 (12.44%)
* 전회 생산액, 부가가치액 (경제포럼 통계, 10인이상) * 전회 종사자수, 사업체수 (사업체 규모 통계, 1인이상)			
추진 방향	전북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성장동력산업 중심 융합산업 육성	클러스터 중심의 산업육성 기반 조성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고도화 (자동차, 기계, 식품산업 중심의 산업의 다변화)</li> <li>수요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구성으로 자외선 318-광운대학교, 해외리테일 지원정책을 주요 실적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동력산업 중심 기초산업과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li> <li>농생명·탄소산업 중심의 핵심 사업 발굴 및 기회</li> <li>융복합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기술창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제공을 통한 기업사업자 유치</li> <li>산업별 대표산업단지 유치</li> <li>특화된 투자유치로 인프라 조성 및 산업유치 적극 증진</li> </ul>
육성 방향	주력산업(5개)	협력산업(3개)	연고(전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내 주력산업 고도화의 산업집약성 강화를 통한 산업육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의 협력산업 내 다양한 산업군의 산업적 기술적 특성과 Value Chain을 유기적 연계협력으로 활성화하여 성장잠재력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내 세·군 주도의 특색있는 자원의 기술을 활용하여 재산업 일자리 및 지역경제력 강화</li> </ul>
	지역특성화산업	성장동력산업(5개)	
육성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내 특성화된 탄소, ICT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제품 상품화에 활용 지원</li> </ul>	기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공정, 조달 및 유통 등 제조 시스템 고도화</li> <li>성장동력산업 산업 생태계 구축의 상용화 기반 확대</li> <li>지속적 연구개발과 생산인력 및 산업간 융복합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산업 + 성장동력산업 융합 확산 지원</li> <li>농업융복합/드론 시범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지원</li> <li>새마을단지 중심으로 기업집적화</li> </ul>

<그림 3-8> 지역산업육성 목표 및 전략

### 3) 새만금 기본계획(2014)

#### ■ 비전과 미래상

- 새만금을 협력과 교류에 의한 공동번영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Ariul) 을 비전으로 설정
- 새만금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로 개발하여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로 육성
- 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을 성장동력으로 하여 공동번영의 미래를 실현



<그림 3-9> 새만금의 비전 및 목표

#### ■ 5대 목표와 추진전략

- ① 초국적(超國的) 경제협력 특구 조성
  - 무역·투자·기업활동의 無장벽, 생활의 無장애, 사회·문화적 無차별의 3무(無) 공간 조성
  - 새만금 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입기능 설정과 거점별 차별화 전략 마련
  - 한중경협단지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 및 확산
- ② 수요자 맞춤형 도시개발과 열린계획(Open Plan) 수립
  - 새만금의 조기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요구를 최우선 반영한 도시개발 추진
  - 개방형 계획(open plan) 도입으로 개발자와 수요자의 자율성·창의성 제고

➤ 투자유치에 유리한 6대 용지개발

- 6대용지 : 산업연구용지(산업용지+과학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복합도시북측+신재생에너지용지), 관광레저용지(복합도시남측),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그림 3-10> 새만금의 권역별 개발방향

◦ 탈규제·인센티브 특화도시

- 경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등을 도입하여 규제 특례지구(규제청정지역) 조성
- 경험 국가별, 기업별 유치협상에 따라 인센티브를 패키지화하여 기업 특성 및 요구사항에 따라 차등적 맞춤형 제공

◦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융합하는 문화융합도시 구현
- 세계인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정주·교류 공간 조성
-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시 구현

◦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건설

-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자연친화적 수변도시 건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의 건설
- 도시디자인 및 경관관리를 통한 아름다운 명품도시 구현



## 제4절 전라북도 산업입지정책 기본 방향

### 1. 전라북도 산업입지 여건

- 전북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상대적으로 빠른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전주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집적지가 형성되었음.
-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비금속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석유화학, 기계, 운송장비 등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농생명바이오산업, 탄소소재산업 등 신성장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전북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연구개발특구와 혁신도시 조성, 연구기관 및 산업혁신센터의 설립 등 혁신기반의 구축 및 혁신역량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성, 새만금산업단지의 조성이 진행 중으로 산업입지 기반의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새만금산업단지는 한중경협단지의 개발과 함께 대중국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 전북의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유일의 식품관련 기업,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이 집적된 혁신형 산업단지로 농생명분야에 특화된 전북연구개발특구 및 전북혁신도시의 연구개발기관 및 산업지원정책과 함께 전북의 농생명바이오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전북은 전주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산업입지의 집중으로 인한 지역 내 공간적 불균형 발전,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의 감소와 지역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산업발전의 장애요인이 내재되어 있음.
- 따라서 전북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구조의 재편 및 지역 내 공간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전북의 산업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전북의 산업은 미래신성장산업축, 지식·첨단산업축, 농업·관광산업축, 동서연결축 등 4개의 산업축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미래신성장산업축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중경협단지 등 대중국거점의 신산업 중심으로 발전이 기대됨.
  - 지식·첨단산업축은 전주를 중심으로 집적된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등 지식기반에 기초한 첨단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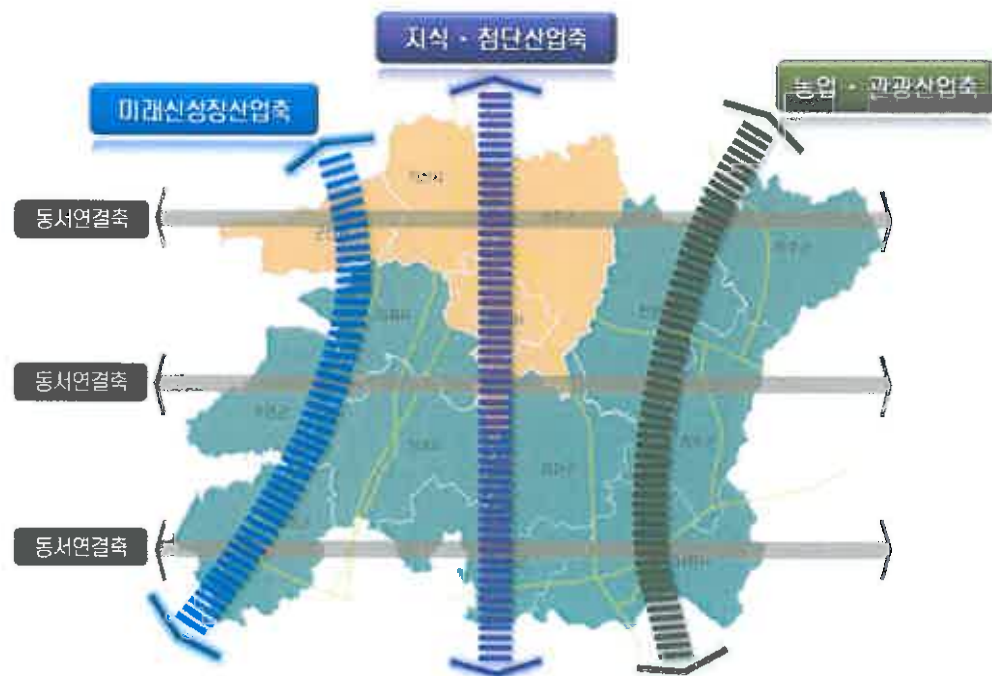


- 남원 등 동남부권은 지역의 농업 및 생태기반을 중심으로 식품가공산업 등 지역의 자연 자원과 연계한 지연산업의 발전이 전망됨.
- 동서연결축은 미래신성장산업축과 지식·첨단산업축, 농업·관광산업축을 동서로 연결하여 시너지를 제고하는 산업발전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 전북의 산업입지정책은 산업발전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 있는 산업입지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산업발전축에 따라 특화된 산업의 육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 공급이 필요함.

<표 3-9> 전북의 산업발전축

발전축	지역	발전전략
미래신성장산업축	군산, 김제, 부안, 고창	국제비즈니스 핵심거점, 디스플레이산업 및 IT 융복합 클러스터, 해양글로벌 레저산업 육성 및 관광거점 개발
지식·첨단산업축	진주, 익산, 완주, 정읍	첨단 R&D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농업·관광산업축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생태자원 및 생활문화자원 활용형 관광단지 개발, 식품가공산업단지 육성
동서연결축	북측, 중앙축, 남측	동서간 연계 촉진을 위한 광역 기반시설 확충

자료: 전라북도(2016), 전북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



자료: 전라북도(2016), 전북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

<그림 3-11> 전라북도 산업발전 공간 구상

## 2. 전라북도 산업입지정책의 기본 방향

### 1) 산업입지 공급방식의 다양화

- 제조업의 ICT기술과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방식이 스마트화하고 기존의 산업 분류와는 다른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는 등 새로운 산업발전의 경로가 형성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견해도 대두됨.
- 기존산업의 지속발전과 함께 새로운 산업발전환경에 따른 신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공급방식을 다양화함.
  - 기존 시가지와 격리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하고 산업용지, 도로, 항만, 수자원, 전력 등 물리적 입지여건 공급에 치중한 기존의 산업입지 공급방식을 벗어난 산업입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신규 개발 외에도 도시내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형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유연적 산업입지 공급 필요
  - ICT, 문화산업, 창조산업 등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단지 조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내 저렴한 임대산업단지의 조성 등 다양한 산업입지를 공급

### 2) 융복합시대에 대응하는 복합적 산업입지 공급

-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화가 진전되면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산업환경의 조성이 산업발전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의 공급이 필요함.
- 향후 산업입지 공급은 단순 노동력의 확보나 생산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하부구조 보다는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과 환경의 쾌적성 확보가 필요함.
  - 작업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넓고 편리한 작업공간 및 쾌적한 주변환경이 요구됨. 주거환경으로는 지역사회 단위의 질 높은 사회적, 문화적 도시환경이 포함되어야 함.
  - 특히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의 육성과 이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중요한 입지인자로 작용할 것이므로 두뇌기능과 생산기능간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 융복합 산업단지는 서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동일한 단지에 유치하여 집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도된 공간으로 주거기능, 생산기능, 연구기능, 정보기능, 업무기능, 상업기능 등이 결합한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집단화로 집적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산업입지라고 할 수 있음.

<표 3-10> 새로운 산업공간의 요소특성

구 분	전통적 산업공간	새로운 산업공간	새로운 산업공간의 특성
자본	대규모 자본 투입	기술적 우위 및 기술개발력	혁신적 환경 중시
노동	저렴한 노동력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인력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 중시
경제	규모의 경제	신속한 제품개발 능력	전문기업의 집적
거래비용	거래비용의 내부화	기업간 네트워크의 원활화	관련기업간 네트워크의 활발

- 복합적인 산업입지는 첨단산업, 지식산업, 고차적 서비스산업 등 성장률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정보교류와 인적교류에 의존도가 높은 미래지향적 성장산업과 지원기능이 집적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이 조성되어 경제활동과 도시활동이 결합될 수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음.

<표 3-11> 새로운 개념의 산업입지 특성

구 분	새로운 개념의 산업입지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	다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주기능 위주의 단일용도 토지이용
개발기간	장기간의 단계적 개발	단기간의 일체적 개발
주요기능	주거, 생산, 연구, 정보, 업무, 상업, 유통기능 등	생산기능, 생산지원기능
개발주체	민간중심	공공 및 제3섹타 중심
역할	도시기능	생산기능

### 3)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 기존의 성장한 산업단지가 점차 노후화되고 한계 산업의 구조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들 노후 산업단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존 도심의 확장으로 산업단지는 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심 내 문제 지역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들 기존 산업단지의 쇠퇴는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쳐 영향권 내의 도시지역의 쇠퇴를 동반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기존의 산업단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물적·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고 이미 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재개발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산업단지를 공장의 집적지로서가 아니라 각종 지원 및 서비스기능이 집적된 새로운 도심으로 재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재편방안, 도시개발 방향, 도시정비 방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재활성화를 추진함.
- 전북지역의 노후 산업단지를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
  - 전북에는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7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2개, 일반산업단지 5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로 분류가 가능함.
  - 이 중 전주제1일반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2012년)되었으며, 익산국가산업단지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선정(2015년)되어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표 3-12> 준공 후 20년 경과 전북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2015년 12월말 기준)

구분	준공 후 20년 경과 산업단지	비고
2015년까지	●익산국가산업단지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전주제2일반산업단지    ●정읍제2일반산업단지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7개
2016년~ 2030년	●군산2국가산업단지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군산일반산업단지	6개

#### 4)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지역 산업입지 공급 지원

- 전북의 산업발전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등 전주광역도시권에 집중되어 경쟁력 있는 산업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기타 군 지역의 경우에는 산업의 발전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
- 전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시·군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농촌지역 시·군은 산업집적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인구 이출 및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생산인력의 부족, 산업용지 등 산업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전북 농촌지역 시·군의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함.
  - 농촌지역 시·군은 산업입지수요가 작으므로 산업입지수급계획에서 최소한도의 산업입지공급규모를 설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식품가공산업 등 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산업발전을 위한 농공단지 등 소규모 산업단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규모 이상의 산업용지를 공급함.

## 산업입지 공급계획 상위계획 평가

# 4

1. 제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현황 및 평가
2.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현황 및 평가
3. 산업입지공급계획(2011~2020)의 현황 및 평가
4.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7~2026)의 내용



## 제4장 산업입지 공급계획 상위계획 평가

### 제1절 제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현황 및 평가

- 계획의 개요
  - ▣ 계획수립 일시 : 1993년 4월
  - ▣ 계획기간 : 1992 ~ 1996(5년간)
    - ▶ 계획기간 중에는 연도별 공급량 산정
    - ▶ 1997년부터 3차 국토계획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는 공급총량 산정
- 계획의 기본방향
  - ▣ 공업의 지역간 균형발전
    - 수도권 공업집중의 억제
    - ▶ 지방공업의 육성
    - ▶ 서해안 지역에 계획입지 공급확대
  - ▣ 첨단기술산업 육성 및 지방산업 구조 고도화
  - ▣ 공업입지와 환경보전의 조화
- 수급계획 작성 기준
  -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표를 원칙적으로 수용
  - ▣ 공장용지 공급규모는 과거의 증가추세와 미래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 용지수요와 지역간 형평의 기준에 따라 배분
  - ▣ 1990년 광업통계조사보고서의 공장용지 현황과 개발 중인 산업단지의 현황을 토대로 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지표를 보정
- 계획의 주요 내용
  - ▣ 총 공급규모 : 전반기('92 ~ '96년)중 49.3km<sup>2</sup>, 10년간('92 ~ '01년) 114.4km<sup>2</sup>를 공급
    - ▶ 선공급 물량을 '91년도의 3.5년분에서 2001년도에는 4.8년분으로 확대함.
    - ▶ 계획입지비율을 '96년 61.4%, 2001년에 63.1%로 확대함.
  - ▣ 산업단지 유형별 계획입지 공급비율
    - 국가공단의 공급비율을 '96년에는 60%, '01년에는 58.2%로 배정
  - ▣ 지역별 배분
    - 전반기 공급량의 56%인 34.0km<sup>2</sup>를 충남북 및 호남지역에 공급함.



<표 4-1> 지역별 공장용지 공급계획

(단위 : 천㎡)

지역	공단명	지정 면적	공업 지역	공장용지			'92-'96	연도별 계획					'97- 2000	2001 이후
				계	기공급	미공급		'92	'93	'94	'95	'96		
전국	공급 계획	-	-	-	-	-	47,909	9,171	9,419	9,620	9,800	9,899	42,071	
전국 <기존 공단>	합계	900,245 (27,232)	437,023 (13,220)	323,551 (9,787)	236,702 (7,160)	86,849 (2,627)	34,468 (1,043)	9,171	6,752	6,758	-	-	-	-
전북	-	71,296	38,786	26,798	15,003	11,795	5,696	1,574	1,258	1,064	1,000	800	4,423	1,676
전국 <향후 지정>	합계	68,940	55,708	39,209	-	39,209	9,066	-	1,492	986	3,131	3,457	10,831	19,312
전북	-	1,724	1,211	1,106	-	1,106	598	-	-	-	300	298	508	-

자료: 국토교통부, 1993, 공업입지 공급계획

○ 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실적과 평가

- 1992~1996년간 산업용지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공업입지 공급계획상의 연간 물동량 350만평의 2-3배 수준으로 공급되었고,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충남·북 지역에서 계획 면적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
- 그 원인은 국토개발계획 수립시 경기침체기인 80년대 전 후반의 자료를 근거로 함으로써 경제 활황기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개별입지가 급증하였기 때문
- 산업분포는 여전히 수도권과 동남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획일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산업용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특히 지방에서 공급된 산업용지는 기업수요에 부적합하여 미분양 되는 사례를 많이 보이고 있음.

## 제2절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현황 및 평가

### ◦ 계획의 개요

- 계획수립 일시 : 2003년 6월
- 계획기간 : 2002~2011(10년간)
  - 연동계획 수립으로 2007년에 수정계획 수립

### ◦ 공급계획 수립기준

- 지역별 산업발전 추이 및 잠재력 수용,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탄력성 제고, 산업입지 구조 재편의 효율적 수용,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실천력을 제고
- 계획기간의 적정수요 추정,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 면적, 해외이전 면적 및 미분양 면적 등을 반영

### ◦ 공급규모 산정 방법

- 지역별 산업용지 순수요 면적과 선공급면적, 재정비 면적, 미분양 면적, 해외이전 면적 등을 감안함.
- 산업용지의 수요추정을 위해 과거 20년간의 면적 변화추이를 감안한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부지원단위(부지면적/생산액)의 미래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획기간의 수요면적을 추정하는 원단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함.
  - ❑ 회귀분석에 의한 시·도별 추정면적의 정합성이 낮은 시·도를 대상으로 ARIMA 모형과 지수평활법으로 보정하여 추정

### ◦ 계획의 주요 내용

- 총 공급규모 : 2011년까지 106.3 ~ 120.0km<sup>2</sup> 공급
- 순수요면적 산정
  - 계획기간 동안 91.0 ~ 102.3km<sup>2</sup>의 증가가 예상됨.
  - 계획입지비율은 수도권 65%, 울산은 80%, 기타 대도시는 65%, 도지역은 75%로 산정함.
- 추가수요면적의 산정
  - 선공급면적 : 계획입지 수요의 3년치 면적인 20.4~22.8km<sup>2</sup> 공급. 다만 서울은 선공급면적 배제
  - 재정비 면적 : 1985년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 중 중화학산업단지 제외. 산업단지 재정비 수요 7.2km<sup>2</sup>, 개별입지 재정비 수요 7.4km<sup>2</sup>를 합한 총 14.6km<sup>2</sup> 공급
  - ❑ 미분양 면적 : 현재 전체 미분양면적 18.0km<sup>2</sup> 중 10%를 제외한 16.2km<sup>2</sup>를 선공급면적으로 간주함.
  - ❑ 해외이전 면적 : 해외이전 가능성이 큰 업종의 생산액 등을 추출하여 부지면적을 추정(10.1km<sup>2</sup>)하고 이중 34%만이 해외이전으로 추정하여 이전면적을 3.5로 추정함.
  - ❑ 순수요면적과 추가수요면적을 감안하여 산업입지 공급규모를 산정
  - ❑ 권역별 공급규모는 수도권 21%인 22.8~24.4km<sup>2</sup>, 비수도권이 79%인 83.5~ 95.6km<sup>2</sup>를 공급함.

<표 4-2>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2002~2011)

구분	현황	순수요		순수요 증가	추가수요(D)					총공급(E)			2011 공장 부지* (F)
	2001 (A)	2006	2011 (B)	'02- '11 (C)	계(D)	선공급	재 개 발	미 분 양	해외 이전	계(E)	계획	개별	
전국	512	551.2~556.8	603.0~614.3	91.0~ 102.3	15.3~17.7	20.4~22.8	14.6	16.2	3.5	106.3~ 120.0	75.7~ 85.6	30.6~ 34.4	618.3~ 632.0
전북	24.3	28.2~28.6	33.9~35.0	9.6~ 10.7	-0.1~0.1	2.2~2.4	1.5	3.6	0.2	9.5~ 10.8	7.1~ 8.1	2.4~ 2.7	33.8~ 35.1

자료 : 건설교통부, 2003. 6,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실적과 평가

- 2002~2003년간 산업용지는 2001년에 비해 8.8km<sup>2</sup>가 증가하여 매년 약 4km<sup>2</sup>씩 증가
-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 제시하는 연간 증가량 10.6~12.0km<sup>2</sup>에 비해 실제 공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통계자료의 오류로 판단되는데, 2002년에 비해 2003년의 용지면적이 10km<sup>2</su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통계상의 오류를 반영한다면 계획치와 비슷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제3절 산업입지공급계획(2011~2020)의 현황 및 평가

### ◦ 계획의 개요

- 계획수립 일시 : 2011년 9월
- 계획기간 : 2011~2020(10년간)
- 계획의 범위 : 전라북도 전역
  - 제3차 계획부터는 계획수립주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

### ◦ 공급계획 수립기준

- 지역별 산업발전 추이 및 잠재력 수용,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탄력성 제고, 산업입지 구조 재편의 효율적 수용,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실천력을 제고
- 계획기간의 적정수요 추정,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 면적, 해외이전 면적 및 미분양 면적 등을 반영

### ◦ 공급규모 산정 방법

- 지역별 산업용지 순수요 면적과 선공급면적, 재정비 면적, 미분양 면적 등을 감안함.
- 산업용지의 수요추정을 위해 과거 20년간의 면적 변화추이를 감안한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부지원단위(부지면적/생산액)의 미래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획기간의 수요면적을 추정하는 원단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함.
  - 과거추세치에 의한 방법은 지수평활법의 Brown모형과 Holt모형을 사용하여 산업용지 수요를 추정함.

### ◦ 계획의 주요 내용

- 총 공급규모 : 2020년까지 19.6 ~ 28.1㎢ 공급
- 순수요면적 산정
  - 계획기간 동안 16.5 ~ 23.1㎢의 증가가 예상됨.
  - 계획입지비율은 94%로 산정함.
- 추가수요면적의 산정
  - 선공급면적 : 계획입지 수요의 3년치 면적인 4.6~6.5㎢ 공급
  - 재정비 면적 : 1991년 이전에 조성된 2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 중 재정비 계획인 수립된 전주제1산업단지의 분양대상면적 1.2㎢를 공급
  - 미분양 면적 : 2011년 말 현재 기 지정된 전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대상면적에서 분양면적을 제외한 2.7㎢를 선공급면적으로 간주함.
  - 순수요면적과 추가수요면적을 감안하여 산정한 산업입지 공급규모는 19.6~28.1㎢임.



<표 4-3>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2011~2020)의 산업용지 수요추정

2010년	2015년	2020년	증가량					
			'10-'15		'15-'20		'10-'20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37.763 ~37.969	45.569 ~47.083	54.438 ~61.038	7.806 ~9.151	1.561 ~1.830	7.545 ~13.955	1.509 ~2.791	16.469 ~23.106	1.647 ~2.311

자료 : 전라북도, 2011. 9,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2011~2020)

<표 4-4>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2011~2020)

현황	순수요		순수요 증가 (‘11~’20)	추가수요				총공급		
	2010	2020		계	선공급	재개발	미분양	계	계획	개별
35.8	45.6 ~47.1	54.4 ~61.0	16.5 ~23.1	3.0 ~5.0	4.6 ~6.5	1.2	2.7	19.6 ~28.1	18.4 ~26.4	1.2 ~1.7

자료 : 전라북도, 2011. 9,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2011~2020)

○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2011~2020)의 실적과 평가

- 본 계획에서는 2015년의 산업용지 수요를 45.6~47.1km<sup>2</sup>로 추정하였으며, 2015년 전라북도의 실제 산업용지 면적은 46.7km<sup>2</sup>로 산업용지 수요추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
- 2011~2015년간 전라북도의 산업용지는 9.4km<sup>2</sup>가 증가하여 매년 약 1.9km<sup>2</sup>씩 증가하여, 전라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 제시하는 연간 증가량 1.6~2.3km<sup>2</sup>의 범위 내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계획의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이 매우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됨.

## 제4절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7~2026)의 내용

### ◦ 개요

-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7~2026)」을 제시(2016년 4월)<sup>3)</sup>.
- 본 지침은 각 시·도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 시·도가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수립지침에서는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의의, 지위와 성격, 법적근거, 수립범위, 내용 및 작성원칙, 수립기준, 수립절차,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산업입지수급계획의 계획기간은 2016~2025년의 10년임.

### ◦ 수급계획 수립기준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획, 친환경적 산업입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산업입지 수요산정은 시·군·구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 함.
- 부지면적의 추정은 원칙적으로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방법 2가지를 사용할 수 있음. 과거추세치에 의한 방법은 최근 10년 이상의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원단위에 의한 수요추정은 업종별 생산액 및 업종별입지 원단위 추정을 통해 추정함.
- 산업입지 공급규모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은 계획기간 동안의 계획입지 순수요면적에 선공급면적, 재개발·재정비 면적, 미분양 면적, 휴·폐업 면적을 감안하여 산정함.

$$\boxed{\text{계획입지 공급면적}} = \left[ \boxed{\text{순수요 면적}} + \boxed{\text{선공급 면적}} + \boxed{\text{재개발 재정비 면적}} \right] - \left[ \boxed{\text{미분양 미개발 면적}} + \boxed{\text{휴·폐업 면적}} \right]$$

A
B
C
D
E

<그림 4-1>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과정

3) 국토교통부, 2016.4, 산업입지수급계획(2017~2026)수립지침(안)



##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요전망

# 5

1. 산업입지 수요전망 방법론
2. 산업입지 수요추정



전·년·의·비·상

전라북도



## 제5장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요전망

### 제1절 산업입지 수요전망 방법론

#### 1. 추세치에 의한 방법<sup>4)</sup>

- 추세치에 의한 예측방법은 어느 변수와 다른 변수들과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의해 그 변수의 미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수의 과거 행동에 의존해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서) 예측하고자 함.
  - 일종의 외삽법(extrapolation)임.

#### 가. 결정론적 모형

- 시계열에 내재된 확률적 특성이나 근원을 따지지 않는 확정적 모형임.
-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예측을 위해 자주 사용됨.

##### 1) 단순 추세 모형

- 부지면적의 상승기조가 존재하고 지속될 것으로 믿어지는 경우 그러한 추세를 설명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단순 모형을 만들 수 있음.
- 관찰된 관측치들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추출함.

#### ■ 선형추세모형(Linear Trend Model)

- 부지면적이 각 시점에 일정한 절대량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믿는 경우 사용
- 부지면적을 종속변수, 시간을 설명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1차식을 추정함.
- $y_t = \beta_0 + \beta_1 t$ ,
  - 여기서  $y_t$  = t기의 부지면적, t = 시간,  $\beta_0, \beta_1$ 은 추정되어야 할 계수이고  $\beta_1 > 0$

4) Pindyck, R.S. and D.L. Rubinfeld(1998)에서 주요 내용 정리

## ■ 2차 추세모형(Quadratic Trend Model)

- 선형추세모형의 단순 확장으로  $t^2$  항목이 추가되며, 부지면적이 증가하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경우 사용함.

$$- y_t = \beta_0 + \beta_1 t + \beta_2 t^2, \quad \beta_1 > 0, \beta_2 > 0$$

## ■ 지수성장곡선(Exponential Growth Curve)

- 부지면적이 일정 비율로 성장하는 것으로 믿는 경우 사용

$$- y_t = Ae^{rt}$$

양변에 로그를 취해 로그선형 회귀식으로 변환하여 추정할 수 있음.

$$\log y_t = \beta_0 + \beta_1 t, \quad \text{여기서 } \beta_0 = \log A, \beta_1 = r \text{ 임.}$$

## ■ 로지스틱/S곡선

- 초기에 급증하다가 뒤에는 서서히 증가하면서 언젠가는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 사용함.
- 특정 지역에서 산업용지로 개발될 수 있는 토지 공급의 제한성을 고려함.

$$- \text{로지스틱 함수식: } y_t = \frac{1}{m + ab^t}, \quad 0 < b < 1, \text{ 계수}(m, a, b) \text{에 대해 비선형이므로 비선형 추정 절차를 사용해야함.}$$

$$- \text{단순 S식: } y_t = e^{m_1 - \frac{m_2}{t}}, \text{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 \log y_t = m_1 - \frac{m_2}{t} \text{이 되어 최소자승법으로(Ordinary Least Squares: OLS) 추정이 가능함.}$$

## ■ 자기회귀 추세모형(Autoregressive Trend Model)

- 현재 부지면적이 이전의 부지면적에 의존하는 경우

$$- y_t = \beta_0 + \beta_1 y_{t-1}$$

$\beta_0 = 0$  일 경우 부지면적은  $\beta_1$ 의 변화율로 증가함.

$\beta_0 \neq 0$  일 경우,  $\beta_1 = 1$  이면 각 시점에 동일한 절대량으로 증가함.

$\beta_1 > 1$  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함.

$\beta_1 < 1$  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감적으로 증가함.

- 변형: 로그자기회귀 추세모형

$$- \log y_t = \beta_0 + \beta_1 \log y_{t-1}$$

## 2) 단순 이동평균법

- 미래의 예측값을 과거값의 단순 평균으로 산출함.

$$- \widehat{y_{T+1}} = \frac{1}{n} (y_T + y_{T-1} + \dots + y_{T-(n-1)})$$

- 미래 예측에 있어서 계열의 최근 값들이 초기 값들에 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그럴 듯함.
- 지수적 가중 이동평균 모형(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Model: EWMA)

$$- \widehat{y_{T+1}} = ay_T + a(1-a)y_{T-1} + a(1-a)^2y_{T-2} + \dots = a \sum_{i=0}^{\infty} (1-a)^i y_{T-i}, \quad 0 \leq a \leq 1$$

- 만일 계열이 상향(하향) 추세를 가지는 경우 EWMA는 계열의 미래값을 과소예측(과대예측)을 할 것이기 때문에 EWMA 기법을 사용하기 전에 데이터로부터 추세를 제거해야 함.
- 이동평균모형은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오차를 산출할 수 없고 시계열의 확률적 부분을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예측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음.

## 3) 평활법(Smoothing Method)

- 시계열에서 단기 변동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추세와 순환적 패턴을 구분하기 쉽게 함.
- 일단 데이터의 추세제거(detrended)가 이루어진 후 계열의 변동성에 대한 평활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측을 위해서는 평활한 것에 추세가 다시 추가되어야 함.
- 평활계수의 정확한 값을 결정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평활계수의 선택이 다소 자의적 일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계열을 평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측의 목적으로 활용될 때 결과 된 예측치는 다소 자의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단기 예측에 사용되고 중기 또는 장기 예측에는 적합하지 않음.



## ■ (단순) 지수평활모형(Exponential Smoothing)

- EWMA를 평활에 사용함.
- 지수평활된 계열  $\tilde{y}_t$ :  $\tilde{y}_t = ay_t + a(1-a)y_{t-1} + a(1-a)^2y_{t-2} + \dots$ 
  - 회귀적인(recursive) 형태로 변형할 수 있음:  $\tilde{y}_t = ay_t + (1-a)\tilde{y}_{t-1}$
  - $a$ 가 1에 근접할수록  $\tilde{y}_t$ 를 생성하는데  $y_t$ 의 현재 값이 더 크게 가중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a$ 의 값이 작을수록 더 강하게 평활된 계열을 의미함.

## ■ 이중 지수평활모형(Double Exponential Smoothing or Brown 모형)

- 더 강하게 계열을 평활하면서 동시에 과거 데이터 지점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사용(높은  $a$ 값 부여)
- 한번 평활된 계열  $\tilde{y}_t$ 를 다시 한 번 평활함.
- $\ddot{y}_t = a\tilde{y}_t + (1-a)\ddot{y}_{t-1}$

## ■ Holt의 2계수 지수평활(Two-parameter exponential smoothing)모형

- ④ 계열의 증가 또는 감소의 장기추세에서 평균적 변화를 포함시킴.

$$\tilde{y}_t = ay_t + (1-a)(\tilde{y}_{t-1} + r_{t-1})$$

$$r_t = \gamma(\tilde{y}_t - \tilde{y}_{t-1}) + (1-\gamma)r_{t-1}$$

$$0 \leq a, \gamma \leq 1$$

$r_t$ 는 추세를 나타내는 평활된 계열, 즉, 평활된 계열  $\tilde{y}_t$ 의 평균 증가율임.

두 평활계수  $a$ 와  $\gamma$ 의 값이 작을수록 더 강하게 평활 하는데 추세  $r_t$ 가 추가됨으로써  $\tilde{y}_t$ 가 원 계열  $y_t$ 의 최근 값으로부터 너무 크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함.

$$\text{④ } k \text{기 후의 미래 예측치의 산출: } \hat{y}_{T+k} = \tilde{y}_T + kr_T$$

## ■ 분해법

- 시계열이 4개 구성요소(장기추세, 계절적 구성요소, 순환적 구성요소, 불규칙 구성요소)의 곱으로 대표된다는 것에 기초함.
- 계열의 계절적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

$$y_t = L \cdot S \cdot C \cdot I, \quad L = \text{계열의 장기추세의 값}$$

$S$  = 계절적 구성요소의 값

$C$  = (장기) 순환적 구성요소

$I$  = 불규칙 구성요소

평활법으로  $S \cdot I$ 를 제거하여  $L \cdot C$ 를 추출한 다음,

$y_t$ 를  $L \cdot C$ 로 나누어  $S \cdot I$ 의 추정치를 산출함.

계절지수(Seasonal Index)를 얻기 위해 불규칙 구성요소,  $I$ 를 제거함.

조정된 계절지수로 원 계열을 나누어 계절 조정된 계열을 구함.

## 나. 확률적 모형

- 예측되어야 할 시계열이 확률적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개념에 기초를 둔 보다 정교한 외삽 방법임.

–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의성이 과정에 구현되어 있는가를 기술함.

– 주로 선형모형을 사용함.

선형모형은 모형의 확률적 특성과 이것에서 생성된 예측에 대해 신뢰구간의 산출 등 산술적 주장을 가능하게 함.

모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확률적 구조를 나타내는 고정된 추정계수를 가진 식으로 쓸 수 있음.

- 정상(Stationary) 시계열과 비정상(Non-stationary) 시계열

– 확률과정이 시간이 변해도 고정되어 있으면 그 과정은 정상적임.

과거 데이터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고정 계수를 가진 식으로 과정을 모형화 할 수 있음

MA, AR, ARIMA 모형이 있음.

– 비정상 시계열이지만 1차 또는 그 이상 차분된 계열이 정상 시계열이 되는 경우를 동질의 비정상 과정(Homogeneous Non-stationary Process)이라고 함.

ARIMA 모형이 있음.

## 1) MA(Moving Average) 모형

- MA(q):  $y_t = \mu + \epsilon_t - \theta_1\epsilon_{t-1} - \theta_2\epsilon_{t-2} - \dots - \theta_q\epsilon_{t-q}$ 
  - $y_t$ 는 이전 q 기간까지의 교란항의 가중평균에 의해 생성되며 q기간의 메모리를 가짐.
  - $\epsilon_t$ 는 시간변화에 따라 독립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 (백색잡음과정에 의해 생성)
  - $\epsilon_t \sim N(0, \sigma_\epsilon^2)$ , 공분산  $\gamma_k = 0$  for  $k \neq 0$  을 가정
  - 기대값:  $E(y_t) = \mu$
  - 분산:  $Var(y_t) = \gamma_0 = E[(y_t - \mu)^2]$ 

$$= E(\epsilon_t^2 + \theta_1^2\epsilon_{t-1}^2 + \dots + \theta_q^2\epsilon_{t-q}^2 - 2\theta_1\epsilon_t\epsilon_{t-1} - \dots)$$

$$= \sigma_\epsilon^2 + \theta_1^2\sigma_\epsilon^2 + \dots + \theta_q^2\sigma_\epsilon^2$$

$$= \sigma_\epsilon^2(1 + \theta_1^2 + \dots + \theta_q^2)$$

MA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sum_{i=1}^q \theta_i^2 < \infty$  이어야 함.

## 2) AR(Auto Regressive) 모형

- AR(p):  $y_t = \phi_1y_{t-1} + \phi_2y_{t-2} + \dots + \phi_py_{t-p} + \delta + \epsilon_t$ 
    - AR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평균,  $\mu$ 가 시간에 대해 변화가 없어야 함.
    - 즉,  $E(y_t) = E(y_{t-1}) = \dots = \mu$  이어야 함.
    - 이때  $\mu = \phi_1\mu + \phi_2\mu + \dots + \phi_p\mu + \delta$  이고,  $\mu = \frac{\delta}{1 - \phi_1 - \phi_2 - \dots - \phi_p}$  이기 때문에 정상성의 필요조건은  $\phi_1 + \phi_2 + \dots + \phi_p < 1$  임(즉,  $\mu$ 가 유한해야 함).
    - AR(1) 과정의 경우에도 무한대의 메모리를 가짐.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존성의 크기가 감소하지만 이 과정의 현재 값은 모든 과거 값에 의존함.

## 2. 원단위법

- 부지면적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의 미래 전망에 그 변수의 단위당 필요한 부지면적을 곱하여 전체 산업용지 수요를 측정하는 방법임.
  - 부지면적에 대한 수요는 기업의 생산량 결정과정에서 파생되는 수요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지면적을 추세치만으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부지면적과 생산액 또는 고용과의 관계를 고려한 원단위법으로 부지면적을 추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외국에서는 고용 전망치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액 전망치를 통상적으로 사용함.
- 하지만 원단위법에 의한 부지수요 예측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① 미래 산업생산액이나 고용에 대한 예측이 정교해야 하고, ② 생산액이나 고용 등의 전망치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하는 비율, 즉, 생산액 원단위 또는 고용 원단위가 정확해야 함.
  - 생산액/고용 전망과 목표연도의 원단위는 과거 추세자료를 위에 언급된 시계열 모형들을 적용하여 산정함.
  - 생산액/고용 예측과 목표연도 원단위의 예측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확할 경우 부지면적만의 추세에 의한 예측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광역 또는 국가 단위에서는 산업구조가 시간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전체 제조업 생산액과 고용을 비교적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광역 및 국가 단위에서도 업종별로 세분하여 생산액과 고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특히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외부충격과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제조업 생산액과 고용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신산업분야의 수요예측에는 활용하기 어려움.
  - 목표연도의 원단위는 전국 평균적 산업(또는 기업)의 생산액 또는 고용 단위당 부지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국 표준의 원단위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개별 지역 단위의 원단위를 산출하여 적용함.
    - 개별 지역 단위 데이터에 신뢰성이 있어야 함.
- 장래 인구전망 및 상주 노동력 전망을 기초로 부지면적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도 있음
  - 미래의 산업생산이나 고용 전망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관할 지역의 인구전망을 보유한 지방정부에서 인구전망을 기초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면적이 얼마인가를 산출함.
  - 미래 인구 전망이 정확해야 하고 미래 경제활동 참여율과 장래 산업구조 및 지역의 노동력 자족도에 대한 설정이 정확해야 함.



### 3. 기타 방법

#### ◦ 기업체 조사 및 설문에 의한 방법

- 기업의 입지 결정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선호나 투자방향의 비교적 단기간 내에 변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산업입지 수요 전망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조건과 선호 지역의 확인에 의의가 있음.

#### ◦ 생산함수의 추정에 의한 방법

- 생산량(또는 생산액)을 노동, 자본, 토지의 함수로 규정하고 특정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다음 목표 생산액에 필요한 토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임.
- 기본적으로 생산액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의 투입량(또는 투입가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단위법보다도 많은 변수에 대한 정교한 예측이 필요함.

## 제2절 산업입지 수요추정

### 1. 수요추정 방법

#### ■ 수요추정 자료

- ①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요추정의 기초자료는 2004~2015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함.
  - 국토교통부(2016. 4)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7~2026)에 의하면 자료는 최근 10년 이상의 통계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부지면적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에서 제공하는 2004~2015년 기간의 공장용지면적을 사용함.
  - 생산액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에서 제공하는 2004~2014년 기간의 업종별 생산액을 사용함.
- ② 업종은 2007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중분류(24개 업종) 자료를 10개 업종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함.
  - 재분류한 10개 업종은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장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임.

<표 5-1> 업종 재분류 기준

업종명	9차 중분류 업종명	업종명	9차 중분류 업종명
음식료	C10 식료품 제조업	비금속 소재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철강	C24 1차 금속 제조업
섬유 의복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기계· 장비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전기· 전자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목재· 종이· 출판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운송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석유 화학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C32 가구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추정모형

- 국토교통부(2016. 4)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2017~2026)”에 의하면 부지면적의 추정은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방법 2가지를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본 계획에서는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획기간(2016년~2025년) 동안의 부지면적을 추정함.
  - 과거추세치에 의한 방법으로 지수평활법의 Holt와 Brown 등 2개의 모형을 사용함.
  - 생산액 원단위법은 전라북도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원단위를 사용하여 추정함.
- 과거 추세치에 의한 부지면적 추정은 지수평활법의 Holt와 Brown의 2개 모형을 사용하여 10개 업종별로 추정함.
  - 각 모형별로 산출된 업종별 추정치의 합계를 전라북도 전체의 수요추정치로 산정한 후 2개 모형의 평균값을 전라북도의 수요추정치로 함.
- 생산액 원단위법에 의한 부지면적 추정은 전라북도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 원단위를 사용하여 10개 업종별로 추정함.
  - 계획기간(2016년~2025년) 동안의 업종별 생산액 원단위는 2004~2014년 기간의 광업제조업통계의 전북 생산액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북 공장용지면적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한 각 항목별 생산액 원단위를 이용하여 SPSS의 시계열 모형(지수평활법)으로 추정함.
  - 계획기간(2016년~2025년) 동안의 업종별 생산액은 2004~2014년 기간의 광업제조업통계의 전북 업종별 생산액 자료를 사용하여 과거추세치에 의한 방법(지수평활법의 Holt모형과 Brown모형)으로 추정함.
  - 생산액은 한국은행의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10년 기준 실질치 산출하여 적용함.
  - 2개 모형별(Holt, Brown)로 계획기간 동안의 업종별 생산액 추세치에 업종별 생산액 원단위 추세치를 곱하여 산출한 업종별 부지면적의 합을 각 모형별 전라북도 부지면적으로 산출함.
  -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치는 2개 모형별로 산출된 부지면적의 평균값으로 산정함.
- ④ 시·군별 수요추정은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며, 최소치와 최대치의 범위로 순수요면적을 제시함.
  - 시·군의 경우 업종별 자료는 결측치가 많고, 자료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업종별로 추정하지 않고 공장용지 총면적을 사용하여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으로 수요를 추정함.
  -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은 지수평활법의 Holt와 Brown 등 2개의 모형을 사용함.

## 2. 전라북도 산업입지 수요추정

### 1) 과거 추세치에 의한 수요추정

#### ■ 지수평활법(Brown모형)에 의한 부지면적 수요추정

- 지수평활법으로 Brown모형을 사용했을 때 전북의 부지면적 수요는 2016년~2025년 기간 동안 20.798km<sup>2</sup>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제조업이 6.002km<sup>2</sup>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이며, 다음으로 운송장비 제조업 3.626km<sup>2</sup>, 음식료품 제조업 3.233km<sup>2</sup>, 석유화학 2.332km<sup>2</sup>의 순으로 큰 증가를 보임.
- 반면, 섬유·의복 제조업은 부지면적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목재·종이·출판 제조업, 전기·전자 제조업은 1km<sup>2</sup>미만의 부지면적 증가가 전망됨

<표 5-2> 지수평활법(Brown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단위: km<sup>2</su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료	7.007	7.321	7.608	7.904	8.208	8.521
섬유·의복	1.735	1.739	1.731	1.723	1.714	1.706
목재·종이·출판	3.183	3.217	3.264	3.311	3.359	3.406
석유화학	6.960	7.183	7.399	7.619	7.844	8.072
비금속소재	5.471	5.572	5.679	5.787	5.898	6.010
철강	2.268	2.396	2.507	2.622	2.741	2.866
기계·장비	6.924	7.377	7.844	8.339	8.866	9.428
전기·전자	2.469	2.572	2.665	2.757	2.849	2.941
운송장비	9.286	9.709	10.065	10.421	10.777	11.133
기타	0.439	1.873	1.918	1.963	2.009	2.054
계	45.744	48.959	50.680	52.447	54.264	56.137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면적
음식료	8.843	9.176	9.519	9.873	10.240	3.233
섬유·의복	1.698	1.690	1.681	1.673	1.665	-0.070
목재·종이·출판	3.453	3.500	3.547	3.595	3.642	0.458
석유화학	8.306	8.544	8.788	9.037	9.292	2.332
비금속소재	6.124	6.241	6.361	6.483	6.607	1.136
철강	2.996	3.132	3.273	3.421	3.576	1.307
기계·장비	10.031	10.678	11.373	12.121	12.926	6.002
전기·전자	3.034	3.126	3.218	3.311	3.403	0.934
운송장비	11.489	11.844	12.200	12.556	12.912	3.626
기타	2.099	2.144	2.189	2.234	2.280	1.840
계	58.073	60.076	62.151	64.305	66.542	20.798



## ■ 지수평활법(Holt모형)에 의한 부지면적 수요추정

- 지수평활법으로 Holt모형을 사용했을 때 전북의 부지면적 수요는 2016년~2025년 기간 동안 23.006km<sup>2</sup>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제조업이 8.439km<sup>2</sup>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이며, 다음으로 운송장비 제조업 3.974km<sup>2</sup>, 기타 2.882km<sup>2</sup>, 음식료품 제조업 2.612km<sup>2</sup>, 석유화학 2.085km<sup>2</sup>의 순으로 큰 증가를 보임.
  - 반면, 섬유·의복 제조업은 부지면적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목재·종이·출판 제조업, 비금속소재 제조업은 1km<sup>2</sup>미만의 부지면적 증가가 전망됨.

<표 5-3> 지수평활법(Holt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단위: km<sup>2</su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료	7.007	7.181	7.435	7.692	7.954	8.221
섬유·의복	1.735	1.724	1.711	1.699	1.686	1.673
목재·종이·출판	3.183	3.192	3.210	3.228	3.246	3.264
석유화학	6.960	7.157	7.356	7.557	7.762	7.969
비금속소재	5.471	5.511	5.566	5.621	5.675	5.730
철강	2.268	2.405	2.520	2.638	2.758	2.881
기계·장비	6.924	7.635	8.362	9.123	9.916	10.742
전기·전자	2.469	2.629	2.741	2.853	2.965	3.077
운송장비	9.286	9.807	10.191	10.575	10.958	11.342
기타	0.439	2.191	2.317	2.442	2.568	2.694
<b>계</b>	<b>45.744</b>	<b>49.433</b>	<b>51.409</b>	<b>53.427</b>	<b>55.488</b>	<b>57.592</b>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면적
음식료	8.492	8.767	9.047	9.331	9.619	2.612
섬유·의복	1.661	1.648	1.635	1.623	1.610	-0.125
목재·종이·출판	3.282	3.300	3.319	3.337	3.355	0.172
석유화학	8.178	8.391	8.606	8.824	9.045	2.085
비금속소재	5.785	5.840	5.895	5.949	6.004	0.533
철강	3.006	3.135	3.266	3.399	3.536	1.267
기계·장비	11.601	12.492	13.416	14.373	15.363	8.439
전기·전자	3.188	3.300	3.412	3.524	3.636	1.167
운송장비	11.726	12.110	12.493	12.877	13.261	3.974
기타	2.819	2.945	3.071	3.196	3.322	2.882
<b>계</b>	<b>59.738</b>	<b>61.927</b>	<b>64.159</b>	<b>66.433</b>	<b>68.750</b>	<b>23.00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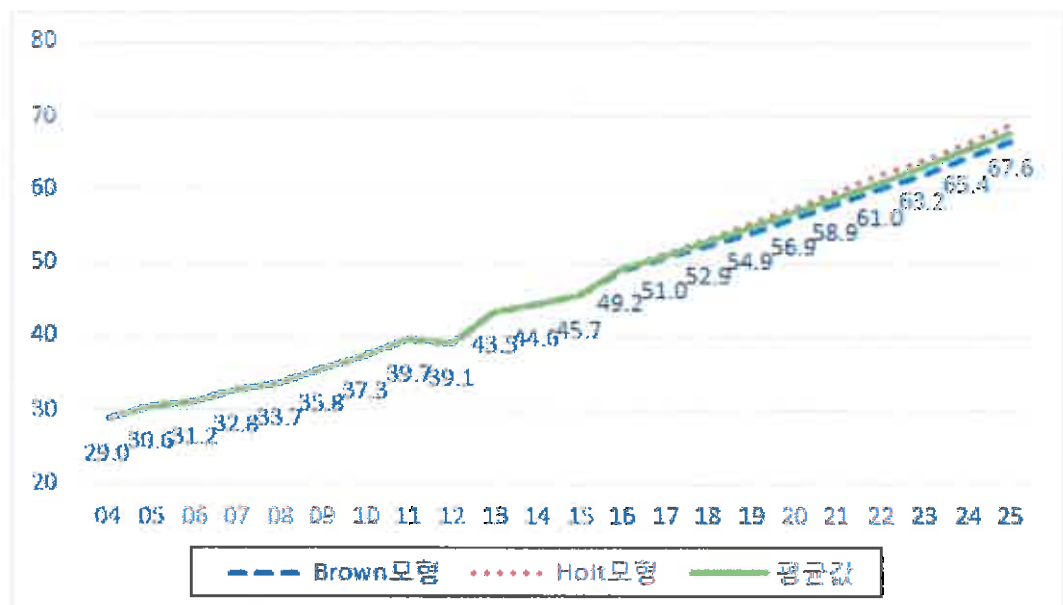
## ■ 과거 추세치에 의한 부지면적 수요추정 종합

- 과거 추세치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추정치는 2015년 45.744km<sup>2</sup>에서 2025년 67.646km<sup>2</sup>로 증가하며, 동 기간 동안 순 증가면적은 21.902km<sup>2</sup>임.
- 지수평활법의 Brown모형과 Holt모형에 의해 추정된 전북 부지면적 추정수요의 평균값은 2015년 45.744km<sup>2</sup>에서 2025년 67.646km<sup>2</sup>로 증가하여 순 증가면적은 21.902km<sup>2</sup>임.

<표 5-4> 과거 추세치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단위: km<sup>2</sup>)

구분	부지면적			증가면적					
				'15-'20		'20-'25		'15-'25	
	2015년	2020년	2025년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지수평활 Brown	45.744	56.137	66.542	10.393	2.079	10.405	2.081	20.798	2.080
지수평활 Holt	45.744	57.592	68.750	11.848	2.370	11.158	2.232	23.006	2.301
평균값	45.744	56.865	67.646	11.121	2.224	10.781	2.156	21.902	2.190



<그림 5-1> 과거 추세치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 2) 생산액 원단위법에 의한 수요추정

### ■ 업종별 생산액 원단위 추정

- 2015년~2025년 기간 동안의 전북의 업종별 생산액 원단위를 과거 11년(2004년~2014년) 자료를 토대로 지수평활법으로 추정함.
- 2004년~2014년 간의 생산액을 2010년 기준 실질생산액으로 전환하여 생산액 원단위를 추정함.
- 2015년~2025년 기간 동안의 전북의 업종별 생산액 원단위는 비금속소재 제조업 이 3.5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섬유·의복 제조업 2.3, 목재·종이·출판 1.7, 기계·장비 제조업 1.6의 순으로 크게 추정됨.

<표 5-5> 전라북도 업종별 생산액 원단위 추정치

구분	2015	2020	2025
<b>제조업 전체</b>	<b>1,044</b>	<b>1,044</b>	<b>1,044</b>
음식료	0.959	0.959	0.959
섬유·의복	2.325	2.325	2.325
목재·종이·출판	1.657	1.657	1.657
석유화학	0.812	0.812	0.812
비금속소재	3.506	3.506	3.506
철강	0.480	0.480	0.480
기계·장비	1.639	1.639	1.639
전기·전자	1.192	1.192	1.192
운송장비	0.778	0.778	0.778
기타	1.041	1.041	1.041

## ■ 지수평활법(Brown모형)에 의한 부지면적 수요추정

- 지수평활법의 Brown모형으로 추정한 계획기간(2016년~2025년) 동안의 전라북도 업종별 생산액은 <표 5-6>과 같음.
  - 2010년 기준 실질생산액으로 산출하여 추정함.
  - 전북의 제조업 생산액은 2015년 44.508조원에서 2025년 64.256조원으로 증가하여 동기간 동안 19.748조원이 순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제조업이 5.571조원으로 가장 큰 생산액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운송장비 제조업 5.016조원, 기계·장비 제조업 3.926조원, 철강 2.375조원, 석유화학 1.383조원의 순으로 증가액이 클 것으로 추정됨.
  - 섬유·의복 제조업은 생산액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5-6> 지수평활법(Brown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업종별 생산액 추정

(단위: 조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료	7.684	8.153	8.639	9.143	9.666	10.209
섬유·의복	0.748	0.748	0.748	0.748	0.748	0.748
목재·종이·출판	1.877	1.898	1.921	1.945	1.970	1.998
석유화학	8.551	8.689	8.828	8.966	9.104	9.243
비금속소재	1.573	1.618	1.665	1.712	1.761	1.811
철강	4.892	5.130	5.367	5.605	5.842	6.080
기계·장비	4.352	4.745	5.137	5.530	5.922	6.315
전기·전자	2.075	2.135	2.194	2.254	2.313	2.373
운송장비	12.360	12.705	13.072	13.466	13.892	14.354
기타	0.395	0.402	0.408	0.416	0.423	0.431
<b>계</b>	<b>44.508</b>	<b>46.223</b>	<b>47.979</b>	<b>49.784</b>	<b>51.642</b>	<b>53.561</b>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액
음식료	10.773	11.359	11.967	12.599	13.255	5.571
섬유·의복	0.747	0.747	0.747	0.747	0.747	-0.002
목재·종이·출판	2.027	2.059	2.093	2.130	2.170	0.294
석유화학	9.381	9.519	9.658	9.796	9.934	1.383
비금속소재	1.862	1.915	1.969	2.024	2.081	0.509
철강	6.317	6.555	6.792	7.030	7.267	2.375
기계·장비	6.707	7.100	7.492	7.885	8.278	3.926
전기·전자	2.432	2.492	2.551	2.611	2.670	0.595
운송장비	14.858	15.407	16.007	16.662	17.376	5.016
기타	0.439	0.448	0.457	0.467	0.478	0.083
<b>계</b>	<b>55.545</b>	<b>57.600</b>	<b>59.734</b>	<b>61.950</b>	<b>64.256</b>	<b>19.748</b>

- 지수평활법의 Brown모형으로 추정한 계획기간(2016년~2025년) 동안의 전라북도 부지면적은 <표 5-7>과 같음.
  - 부지면적은 <표 5-6>의 생산액 추정치를 <표 5-5>의 생산액 원단위에 곱하여 산정함.
  - 전북의 부지면적은 2015년 46.659km<sup>2</sup>에서 2025년 67.663km<sup>2</sup>로 증가하여 동 기간 동안 21.004km<sup>2</sup>가 순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제조업이 6.435km<sup>2</sup>로 가장 큰 부지면적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음식료 제조업이 5.342km<sup>2</sup>, 운송장비 제조업 3.903km<sup>2</sup>의 순으로 증가면적이 클 것으로 추정됨.
  - 섬유·의복 제조업은 부지면적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5-7> 지수평활법(Brown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업종별 부지면적 추정

(단위: km<sup>2</su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료	7.369	7.818	8.284	8.768	9.269	9.790
섬유·의복	1.740	1.739	1.739	1.739	1.738	1.738
목재·종이·출판	3.109	3.145	3.183	3.222	3.264	3.309
석유화학	6.941	7.053	7.166	7.278	7.390	7.502
비금속소재	5.514	5.674	5.837	6.003	6.174	6.349
철강	2.349	2.463	2.577	2.691	2.805	2.919
기계·장비	7.134	7.778	8.421	9.065	9.708	10.352
전기·전자	2.475	2.546	2.617	2.688	2.759	2.829
운송장비	9.617	9.885	10.171	10.477	10.809	11.169
기타	0.411	0.418	0.425	0.433	0.441	0.449
<b>계</b>	<b>46.659</b>	<b>48.519</b>	<b>50.419</b>	<b>52.363</b>	<b>54.357</b>	<b>56.406</b>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면적
음식료	10.331	10.893	11.476	12.082	12.711	5.342
섬유·의복	1.738	1.737	1.737	1.736	1.736	-0.004
목재·종이·출판	3.358	3.410	3.467	3.529	3.595	0.487
석유화학	7.615	7.727	7.839	7.951	8.064	1.123
비금속소재	6.529	6.713	6.902	7.097	7.297	1.783
철강	3.033	3.147	3.261	3.375	3.489	1.140
기계·장비	10.995	11.639	12.282	12.926	13.569	6.435
전기·전자	2.900	2.971	3.042	3.113	3.184	0.710
운송장비	11.561	11.988	12.455	12.964	13.520	3.903
기타	0.457	0.467	0.476	0.487	0.497	0.086
<b>계</b>	<b>58.516</b>	<b>60.691</b>	<b>62.938</b>	<b>65.260</b>	<b>67.663</b>	<b>21.004</b>

## ■ 지수평활법(Holt모형)에 의한 부지면적 수요추정

지수평활법의 Holt모형으로 추정된 계획기간(2016년~2025년) 동안의 전라북도 업종별 생산액은 <표 5-8>과 같음.

- 2010년 기준 실질생산액으로 산출하여 추정함.
- 전북의 제조업 생산액은 2015년 45.921조원에서 2025년 72.579조원으로 증가하여 동 기간 동안 26.658조원이 순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이 8.051조원으로 가장 큰 생산액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기계·장비 제조업 5.327조원, 석유화학 4.276조원, 음식료 제조업 3.799조원, 철강 3.374조원의 순으로 증가액이 클 것으로 추정됨.
- 섬유·의복 제조업은 생산액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5-8> 지수평활법(Holt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업종별 생산액 추정

(단위: 조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료	7.276	7.621	7.973	8.333	8.701	9.077
섬유·의복	0.758	0.758	0.758	0.758	0.758	0.758
목재·종이·출판	1.879	1.904	1.929	1.956	1.983	2.011
석유화학	8.961	9.389	9.816	10.244	10.672	11.099
비금속소재	1.527	1.563	1.599	1.635	1.670	1.706
철강	5.186	5.523	5.861	6.198	6.536	6.873
기계·장비	4.382	4.821	5.280	5.760	6.262	6.784
전기·전자	2.226	2.332	2.437	2.543	2.648	2.754
운송장비	13.314	14.034	14.773	15.531	16.308	17.103
기타	0.410	0.422	0.433	0.445	0.457	0.469
<b>계</b>	<b>45.921</b>	<b>48.366</b>	<b>50.860</b>	<b>53.402</b>	<b>55.993</b>	<b>58.634</b>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액
음식료	9.461	9.852	10.252	10.660	11.076	3.799
섬유·의복	0.757	0.757	0.757	0.757	0.757	-0.001
목재·종이·출판	2.041	2.072	2.105	2.140	2.176	0.297
석유화학	11.527	11.955	12.382	12.810	13.238	4.276
비금속소재	1.742	1.778	1.814	1.850	1.886	0.359
철강	7.210	7.548	7.885	8.222	8.560	3.374
기계·장비	7.327	7.891	8.476	9.082	9.709	5.327
전기·전자	2.859	2.965	3.070	3.175	3.281	1.055
운송장비	17.918	18.751	19.604	20.475	21.366	8.051
기타	0.481	0.494	0.506	0.519	0.532	0.121
<b>계</b>	<b>61.324</b>	<b>64.063</b>	<b>66.852</b>	<b>69.691</b>	<b>72.579</b>	<b>26.658</b>

- 지수평활법의 Holt모형으로 추정된 계획기간(2016년~2025년) 동안의 전라북도 부지면적은 <표 5-9>와 같음.
  - 부지면적은 <표 5-8>의 생산액 추정치를 <표 5-5>의 생산액 원단위에 곱하여 산정함.
  - 전북의 부지면적은 2015년 47.596km<sup>2</sup>에서 2025년 74.458km<sup>2</sup>로 증가하여 동 기간 동안 26.862km<sup>2</sup>가 순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제조업이 8.732km<sup>2</sup>로 가장 큰 부지면적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으로 운송장비 제조업 6.265km<sup>2</sup>, 음식료 제조업 3.643km<sup>2</sup>, 석유화학 제조업 3.471km<sup>2</sup>의 순으로 증가면적이 클 것으로 추정됨.
  - 섬유·의복 제조업은 부지면적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5-9> 지수평활법(Holt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업종별 부지면적 추정

(단위: km<sup>2</su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료	6.978	7.308	7.645	7.991	8.344	8.704
섬유·의복	1.763	1.762	1.762	1.762	1.761	1.761
목재·종이·출판	3.113	3.154	3.196	3.240	3.285	3.332
석유화학	7.274	7.621	7.968	8.315	8.662	9.010
비금속소재	5.353	5.479	5.605	5.731	5.856	5.982
철강	2.490	2.652	2.814	2.976	3.138	3.300
기계·장비	7.183	7.902	8.655	9.443	10.265	11.121
전기·전자	2.655	2.781	2.906	3.032	3.158	3.284
운송장비	10.359	10.920	11.494	12.084	12.688	13.308
기타	0.427	0.439	0.451	0.464	0.476	0.488
계	47.596	50.018	52.498	55.036	57.633	60.289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면적
음식료	9.072	9.448	9.831	10.223	10.621	3.643
섬유·의복	1.761	1.761	1.760	1.760	1.760	-0.003
목재·종이·출판	3.382	3.433	3.488	3.545	3.605	0.492
석유화학	9.357	9.704	10.051	10.398	10.745	3.471
비금속소재	6.108	6.234	6.360	6.486	6.611	1.258
철강	3.461	3.623	3.785	3.947	4.109	1.620
기계·장비	12.011	12.936	13.895	14.888	15.916	8.732
전기·전자	3.409	3.535	3.661	3.787	3.912	1.258
운송장비	13.941	14.590	15.253	15.931	16.624	6.265
기타	0.501	0.514	0.527	0.540	0.554	0.126
계	63.004	65.778	68.611	71.505	74.458	26.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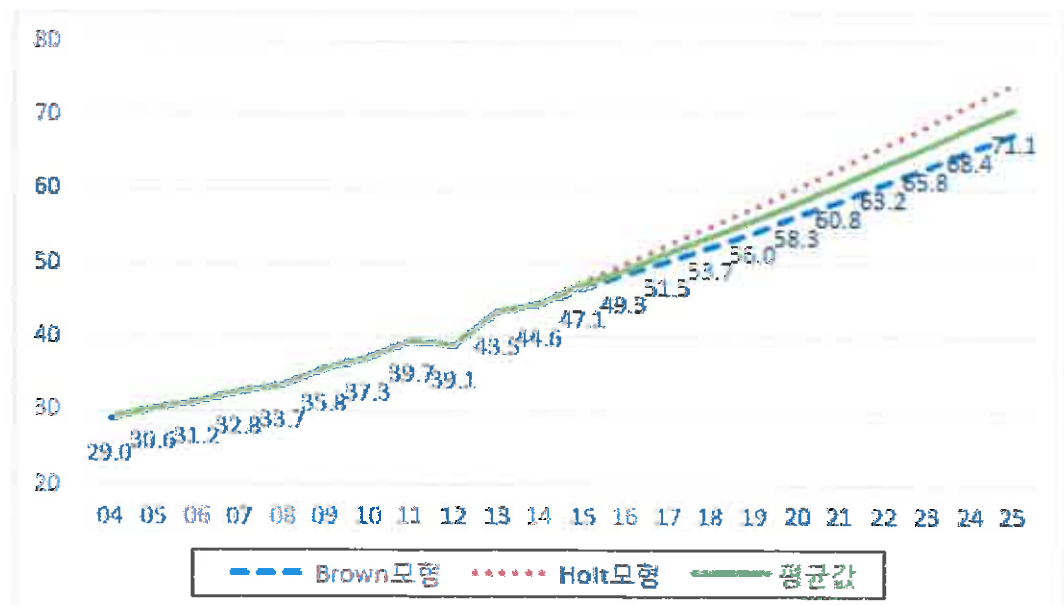
## ■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부지면적 수요추정 종합

- 생산액 원단위법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추정치는 2015년 47.127km<sup>2</sup>에서 2025년 71.060km<sup>2</sup>로 증가하며, 동 기간 동안 순 증가면적은 23.933km<sup>2</sup>임.
- 지수평활법의 Brown모형과 Holt모형을 사용한 생산액 추정치를 적용한 2개 모형의 전북 부지면적 추정수요의 평균값은 2015년 47.127km<sup>2</sup>에서 2025년 71.060km<sup>2</sup>로 증가하여 순 증가면적은 23.933km<sup>2</sup>임.

<표 5-10> 생산액 원단위법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단위: km<sup>2</sup>)

구분	부지면적			증가면적					
				'15-'20		'20-'25		'15-'25	
	2015년	2020년	2025년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지수평활 Brown	46.659	56.406	67.663	9.748	1.950	11.256	2.251	21.004	2.100
지수평활 Holt	47.596	60.289	74.458	12.694	2.539	14.169	2.834	26.862	2.686
평균값	47.127	58.348	71.060	11.221	2.244	12.713	2.543	23.933	2.393



<그림 5-2> 생산액 원단위법에 의한 전라북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 3) 부지면적 수요추정 종합 및 결과값 보정

-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생산액 원단위법에 의한 부지면적 수요추정치는 2015년~2025년 기간 동안 생산액 원단위법에 의한 추정치가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에 의한 추정치에 비해 큰 것으로 산출됨.
- 2015년~2025년 기간 동안의 수요 증가면적은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추정치가 23.933 km<sup>2</sup>로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에 의한 추정치인 21.902km<sup>2</sup>에 비해 2.031km<sup>2</sup> 더 많은 것으로 산출됨.
- 따라서 2015년~2025년 기간 동안의 전북의 부지면적 수요를 과거 추세치에 의한 추정치와 생산액 원단위법에 의한 추정값의 범위로 보정하여 산출함.
- 추정결과 전북의 부지면적 수요는 2015년 45.744~47.127km<sup>2</sup>에서 2025년 67.646~71.06km<sup>2</sup>로 증가하여 계획기간(2015년~2025년) 동안 순수요면적은 21.902~23.933km<sup>2</sup>로 추정됨.

<표 5-11> 전라북도 산업용지 수요추정 보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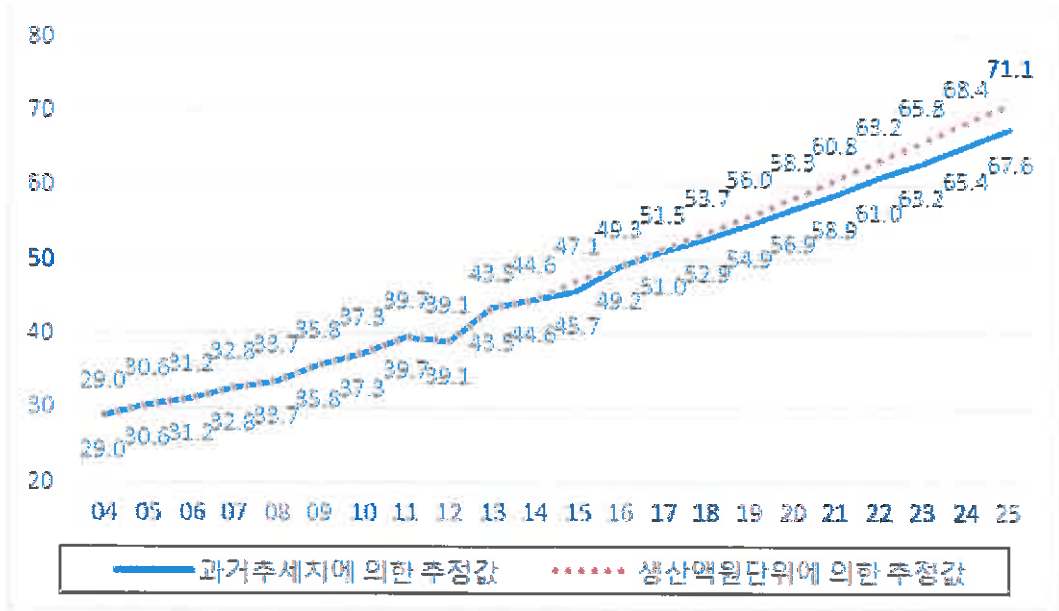
(단위: km<sup>2</su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과거 추세치	45.744	49.196	51.044	52.937	54.876	56.865
원단위법	47.127	49.268	51.458	53.700	55.995	58.348
<b>최종 추정값</b>	<b>45.744 ~47.127</b>	<b>49.196 ~49.268</b>	<b>51.044 ~51.458</b>	<b>52.937 ~53.7</b>	<b>54.876 ~55.995</b>	<b>56.865 ~58.348</b>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면적
과거 추세치	58.906	61.001	63.155	65.369	67.646	21.902
원단위법	60.760	63.235	65.774	68.382	71.060	23.933
<b>최종 추정값</b>	<b>58.906 ~60.76</b>	<b>61.001 ~63.235</b>	<b>63.155 ~65.774</b>	<b>65.369 ~68.382</b>	<b>67.646 ~71.060</b>	<b>21.902 ~23.933</b>

<표 5-12> 전라북도 산업용지 수요추정 종합

(단위: km<sup>2</sup>)

추정방법	부지면적			증가면적					
				'15-'20		'20-'25		'15-'25	
	2015년	2020년	2025년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총 증가량	연평균 증가량
과거 추세치	45.744	56.865	67.646	11.121	2.224	10.781	2.156	21.902	2.190
원단위	47.127	58.348	71.060	11.221	2.244	12.713	2.543	23.933	2.393
<b>최종 추정값</b>	<b>45.744 ~47.127</b>	<b>56.865 ~58.348</b>	<b>67.646 ~71.060</b>	<b>11.121 ~11.221</b>	<b>2.224 ~2.244</b>	<b>10.781 ~12.713</b>	<b>2.156 ~2.543</b>	<b>21.902 ~23.933</b>	<b>2.190 ~2.393</b>



<그림 5-3> 전라북도 산업용지 수요추정 종합

### 3. 시·군별 산업입지 수요추정

#### ■ 지수평활법(Brown모형)에 의한 시·군 부지면적 수요추정

- 지수평활법으로 Brown모형을 사용했을 때 전북 시·군의 부지면적 순수요는 2016년~2025년 기간 동안 총 22.802km<sup>2</sup>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표 5-13>.
- － 군산시 7.615km<sup>2</sup>, 완주군 3.052km<sup>2</sup>, 익산시 2.859km<sup>2</sup>, 김제시 1.91km<sup>2</sup>, 전주시 1.72km<sup>2</sup>, 남원시 1.38km<sup>2</sup> 등이 1.0km<sup>2</sup> 이상의 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 부안군 0.925km<sup>2</sup>, 정읍시 0.852km<sup>2</sup>, 장수군 0.71km<sup>2</sup>, 진안군 0.513km<sup>2</sup>, 고창군 0.442km<sup>2</sup>, 순창군 0.386km<sup>2</sup>, 무주군 0.263km<sup>2</sup>, 임실군 0.175km<sup>2</sup> 등은 순수요가 1.0km<sup>2</sup> 미만으로 추정됨.

#### ■ 지수평활법(Holt모형)에 의한 시·군 부지면적 수요추정

- 지수평활법으로 Holt모형을 사용했을 때 전북 시·군의 부지면적 순수요는 2016년~2025년 기간 동안 18.68km<sup>2</sup>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표 5-14>.
- － 군산시 7.964km<sup>2</sup>, 익산시 1.982km<sup>2</sup>, 전주시 1.841km<sup>2</sup>, 완주군 1.642km<sup>2</sup> 등이 1.0km<sup>2</sup> 이상의 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 김제시 0.958km<sup>2</sup>, 정읍시 0.617km<sup>2</sup>, 장수군 0.568km<sup>2</sup>, 순창군 0.546km<sup>2</sup>, 부안군 0.536km<sup>2</sup>, 남원시 0.533km<sup>2</sup>, 고창군 0.483km<sup>2</sup>, 임실군 0.343km<sup>2</sup>, 진안군 0.34km<sup>2</sup>, 무주군 0.327km<sup>2</sup> 등은 순수요가 1.0km<sup>2</sup> 미만으로 추정됨.

#### ■ 시·군 부지면적 수요추정 종합

- 시·군 부지면적 수요는 지수평활법의 Brown모형과 Holt모형에 의해 추정된 2016년~2025년 기간 동안의 시·군별 부지면적 순수요의 최소치와 최대치의 범위로 제시함.
- 추정결과 2016년~2025년 기간의 전북 시·군별 부지면적 순수요 추정치는 <표 5-16>와 같음.
  - － 전주광역도시권(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의 2016년~2025년 간 부지면적 순수요는 14.387km<sup>2</sup>~17.156km<sup>2</sup>로 추정되어 전북 총 순수요의 75.2%~77%를 점유함.
  - － 전주광역도시권 이외 지역의 경우 남원시(0.533km<sup>2</sup>~1.38km<sup>2</sup>), 정읍시(0.617km<sup>2</sup>~0.852km<sup>2</sup>), 부안군(0.536km<sup>2</sup>~0.925km<sup>2</sup>), 장수군(0.568km<sup>2</sup>~0.71km<sup>2</sup>) 등이 0.5km<sup>2</sup>이상의 순수요 발생이 전망됨.
  - － 그 외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등 군 지역에서는 0.5km<sup>2</sup> 이하의 소규모 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5-13> 지수평활법(Brown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시·군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단위: km<sup>2</su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주시	3.232	3.384	3.533	3.688	3.847	4.013
군산시	16.688	17.609	18.353	19.096	19.840	20.584
익산시	7.597	7.873	8.132	8.397	8.668	8.946
정읍시	3.076	3.173	3.257	3.341	3.425	3.509
남원시	1.768	1.862	1.965	2.074	2.191	2.318
김제시	3.524	3.628	3.800	3.979	4.164	4.357
완주군	5.847	6.106	6.377	6.656	6.944	7.241
진안군	0.667	0.715	0.767	0.819	0.870	0.922
무주군	0.379	0.407	0.427	0.448	0.471	0.495
장수군	0.555	0.612	0.669	0.730	0.794	0.862
임실군	0.646	0.668	0.685	0.702	0.719	0.736
순창군	0.818	0.855	0.894	0.933	0.971	1.010
고창군	0.871	0.918	0.955	0.993	1.033	1.075
부안군	1.039	1.092	1.142	1.199	1.266	1.343
<b>계</b>	<b>46.706</b>	<b>48.903</b>	<b>50.956</b>	<b>53.055</b>	<b>55.204</b>	<b>57.410</b>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면적
전주시	4.185	4.365	4.552	4.748	4.952	1.720
군산시	21.328	22.072	22.815	23.559	24.303	7.615
익산시	9.232	9.525	9.826	10.137	10.456	2.859
정읍시	3.593	3.677	3.761	3.845	3.929	0.852
남원시	2.457	2.607	2.772	2.951	3.148	1.380
김제시	4.556	4.763	4.978	5.202	5.434	1.910
완주군	7.549	7.867	8.198	8.542	8.899	3.052
진안군	0.973	1.025	1.076	1.128	1.179	0.513
무주군	0.520	0.548	0.577	0.608	0.641	0.263
장수군	0.934	1.010	1.090	1.175	1.265	0.710
임실군	0.753	0.770	0.787	0.804	0.821	0.175
순창군	1.049	1.087	1.126	1.165	1.204	0.386
고창군	1.118	1.164	1.211	1.261	1.312	0.442
부안군	1.434	1.539	1.662	1.803	1.965	0.925
<b>계</b>	<b>59.680</b>	<b>62.018</b>	<b>64.432</b>	<b>66.926</b>	<b>69.508</b>	<b>22.802</b>

<표 5-14> 지수평활법(Holt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시·군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단위: km<sup>2</su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주시	3.232	3.427	3.581	3.740	3.905	4.078
군산시	16.688	17.648	18.427	19.205	19.983	20.761
익산시	7.597	7.785	7.976	8.168	8.363	8.560
정읍시	3.076	3.109	3.174	3.239	3.304	3.369
남원시	1.768	1.769	1.824	1.881	1.938	1.997
김제시	3.524	3.405	3.518	3.632	3.748	3.866
완주군	5.847	5.959	6.129	6.299	6.469	6.639
진안군	0.667	0.679	0.715	0.752	0.788	0.825
무주군	0.379	0.430	0.457	0.485	0.514	0.544
장수군	0.555	0.590	0.641	0.694	0.749	0.806
임실군	0.646	0.702	0.734	0.766	0.798	0.830
순창군	0.818	0.866	0.916	0.967	1.020	1.074
고창군	0.871	0.930	0.973	1.017	1.062	1.108
부안군	1.039	1.103	1.156	1.208	1.261	1.313
계	46.706	48.402	50.219	52.052	53.901	55.767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가면적
전주시	4.258	4.447	4.645	4.853	5.073	1.841
군산시	21.539	22.317	23.095	23.873	24.652	7.964
익산시	8.759	8.961	9.165	9.371	9.579	1.982
정읍시	3.433	3.498	3.563	3.628	3.693	0.617
남원시	2.056	2.116	2.177	2.238	2.301	0.533
김제시	3.985	4.107	4.230	4.355	4.482	0.958
완주군	6.809	6.979	7.149	7.319	7.489	1.642
진안군	0.861	0.898	0.934	0.970	1.007	0.340
무주군	0.575	0.606	0.639	0.672	0.706	0.327
장수군	0.865	0.926	0.990	1.055	1.123	0.568
임실군	0.862	0.893	0.925	0.957	0.989	0.343
순창군	1.129	1.186	1.244	1.303	1.364	0.546
고창군	1.155	1.203	1.252	1.302	1.353	0.483
부안군	1.366	1.418	1.470	1.523	1.575	0.536
계	57.652	59.555	61.478	63.421	65.386	18.680

<표 5-15> 전라북도 시·군별 부지면적 수요추정 결과 종합

(단위: km<sup>2</sup>)

구분	지수평활(Brown)				지수평활(Holt)			
	2015	2020	2025	순수요('15-'20)	2015	2020	2025	순수요('15-'20)
전주시	3.232	4.013	4.952	1.720	3.232	4.078	5.073	1.841
군산시	16.688	20.584	24.303	7.615	16.688	20.761	24.652	7.964
익산시	7.597	8.946	10.456	2.859	7.597	8.560	9.579	1.982
정읍시	3.076	3.509	3.929	0.852	3.076	3.369	3.693	0.617
남원시	1.768	2.318	3.148	1.380	1.768	1.997	2.301	0.533
김제시	3.524	4.357	5.434	1.910	3.524	3.866	4.482	0.958
완주군	5.847	7.241	8.899	3.052	5.847	6.639	7.489	1.642
진안군	0.667	0.922	1.179	0.513	0.667	0.825	1.007	0.340
무주군	0.379	0.495	0.641	0.263	0.379	0.544	0.706	0.327
장수군	0.555	0.862	1.265	0.710	0.555	0.806	1.123	0.568
임실군	0.646	0.736	0.821	0.175	0.646	0.830	0.989	0.343
순창군	0.818	1.010	1.204	0.386	0.818	1.074	1.364	0.546
고창군	0.871	1.075	1.312	0.442	0.871	1.108	1.353	0.483
부안군	1.039	1.343	1.965	0.925	1.039	1.313	1.575	0.536
계	46.706	57.410	69.508	22.802	46.706	55.767	65.386	18.680

<표 5-16> 전라북도 시·군별 부지면적 순수요

(단위: km<sup>2</sup>)

구분	2015~2020	2020~2025	2015~2025
전주시	0.781~0.846	0.940~0.995	1.720~1.841
군산시	3.896~4.073	3.719~3.891	7.615~7.964
익산시	0.963~1.349	1.019~1.509	1.982~2.859
정읍시	0.292~0.433	0.324~0.420	0.617~0.852
남원시	0.229~0.551	0.304~0.830	0.533~1.380
김제시	0.341~0.832	0.616~1.077	0.958~1.910
완주군	0.792~1.394	0.85~1.658	1.642~3.052
진안군	0.158~0.255	0.182~0.258	0.340~0.513
무주군	0.116~0.166	0.147~0.162	0.263~0.327
장수군	0.251~0.307	0.317~0.403	0.568~0.710
임실군	0.090~0.184	0.085~0.160	0.175~0.343
순창군	0.192~0.256	0.194~0.290	0.386~0.546
고창군	0.204~0.237	0.237~0.245	0.442~0.483
부안군	0.274~0.304	0.262~0.621	0.536~0.925
계	9.061~10.704	9.618~12.098	18.680~22.802



#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 6

1.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2.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 제6장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 제1절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 1. 공급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산업입지 수요변화를 반영함.
- 둘째, 기존 산업용지 및 개발을 진행 중인 산업용지 면적을 고려함.
- 셋째, 정부차원의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함.
- 넷째, 새만금 사업에 의한 산업용지 조성계획을 별도로 반영함.
- 다섯째,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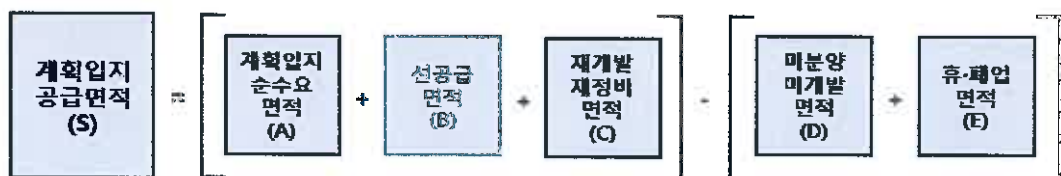
#### 2. 계획입지 공급규모

##### ■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과정

- 국토교통부(2016. 4)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안)에서는 계획입지 공급규모를 계획입지 순수요면적과 추가수요 면적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S = (A+B+C) - (D+E)$$

S = 산업입지 공급면적      A = 계획입지 순수요면적      D = 미분양·미개발면적  
B = 선공급면적                      E = 휴·폐업면적  
C = 재개발·재정비면적



<그림 6-1>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과정

(1) 계획입지 순수요면적(A): 17.956~19.621km<sup>2</sup>

- 계획입지 순수요면적은 전라북도의 목표 계획입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목표 계획입지 비율은 최근 5년간 전라북도에서 실제 공급된 공장용지 면적 중 계획입지 면적의 비율에 10%p를 더한 값으로, 본 계획에서는 목표 계획입지 비율을 81.98%로 산정하였음.
- 최근 5년 간(2011~2015)의 실제 공급된 전라북도 계획입지 면적의 비율은 71.98%임.
- ▶▶ 전라북도 계획입지 순수요면적은 계획기간(2016년~2025년) 중의 순수요추정면적(21.902~23.933km<sup>2</sup>)의 81.98%인 17.956~19.621km<sup>2</sup>로 산정됨.

계획입지 순수요면적(17.956~19.621km<sup>2</sup>)

= 전체 산업용지 순수요추정면적(21.902~23.933km<sup>2</sup>)

× 목표 계획입지 비율(81.98%)

<표 6-1> 최근 5년 간의 입지유형별 전라북도 공장용지 면적 추이

(단위: km<sup>2</sup>, %)

구 분	공장용지면적			전년대비 증가면적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개별입지	계획입지	계획입지 비중
2010	37.334	11.351	25.983	-	-	69.60
2011	39.689	11.809	27.880	0.458	1.897	70.25
2012	39.091	12.376	26.714	0.568	-1.166	68.34
2013	43.484	13.026	30.457	0.650	3.743	70.04
2014	45.543	13.515	32.029	0.488	1.571	70.33
2015	46.706	13.977	32.729	0.462	0.701	70.08
계	-	-	-	2.626	6.746	71.98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www.femis.go.kr), 각년도

(2) 선공급면적(B): 5.387~5.886km<sup>2</sup>

- 계획기간(2016년~2025년)의 목표 계획입지 순수요의 3년치 면적을 반영함.

선공급면적(5.387~5.886km<sup>2</sup>)

= 계획기간 계획입지 순수요면적(17.956~19.621km<sup>2</sup>) × 3년 면적(3/10)

(3) 재정비·재개발면적(C): 0km<sup>2</sup>

- 재정비·재개발 면적은 재생사업지구 산업용지 중 재생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이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된 추가 수요면적으로 함.
- 기 지정된 재생산업단지는 전주제1산업단지와 익산국가산단으로 2개 산업단지의 기업이전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4) 미분양·미개발 면적(D): 15.542km<sup>2</sup>

- 미분양·미개발 면적은 계획수립 직전년도(2015년) 말 현재를 기준으로,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면적을 제외한 총면적으로 계산함.

미분양·미개발 면적(15.542km<sup>2</sup>)

= 기 지정 산업단지의 분양대상면적(54.741km<sup>2</sup>) - 분양면적(39.199km<sup>2</sup>)

<표 6-2>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미개발·미분양 면적 현황(2015년말 기준)

(단위: 개, km<sup>2</sup>)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A)	분양면적 (B)	미개발·미분양 면적 (A-B)
85	130.578	54.741	39.199	15.542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5) 휴·폐업 면적(E): 0.433km<sup>2</sup>

- 2015년말 현재 전라북도 산업단지 내 휴폐업업체는 29개 업체로 공장용지 면적은 0.433km<sup>2</sup>임.
-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는 공장으로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100%를 공장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간주함.

## ■ 계획입지 공급규모

- ⑩ 계획입지 공급규모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전라북도 계획입지 공급면적은 2016~2025년 기간 동안 총 7.368~9.533km<sup>2</sup>임.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0.737~0.953km<sup>2</sup>를 공급

$$\begin{aligned}
 & \text{계획입지 공급면적}(7.368\sim 9.533\text{km}^2) \\
 &= \text{계획입지 순수요면적}(17.956\sim 19.621\text{km}^2) \\
 &\quad + \text{선공급 면적}(5.387\sim 5.886\text{km}^2) \\
 &\quad + \text{재개발·재정비 면적}(0\text{km}^2) \\
 &\quad - \text{미분양·미개발 면적}(15.542\text{km}^2) \\
 &\quad - \text{휴·폐업 면적}(0.433\text{km}^2)
 \end{aligned}$$

<표 6-3> 전라북도 계획입지 공급규모

(단위: km<sup>2</sup>)

구 분	2015년	2025년		순공급면적('16~'25)	
		수요	공급	총면적	연평균 면적
면적	32.729	50.686 ~52.351	40.097 ~42.262	7.368 ~9.533	0.737 ~0.953

### 3. 산업입지 공급계획

- 전라북도에서는 계획기간(2016년~2025년) 동안 총 11.314~13.844km<sup>2</sup>의 산업입지를 신규로 공급함.
  - 입지유형별 공급면적은 계획입지 7.368~9.533km<sup>2</sup>, 개별입지 3.946~4.312km<sup>2</sup>임.
  - 계획입지 공급면적(7.368~9.533km<sup>2</sup>)은 국토교통부(2016. 4)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안)에 기초하여 산정함.
  - 개별입지 공급면적(3.946~4.312km<sup>2</sup>)은 전라북도 산업입지 순수요면적(11.314~13.844km<sup>2</sup>)에서 목표 계획입지 순수요면적(7.368~9.533km<sup>2</sup>)을 제외한 면적임.

<표 6-4>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2016~2025)

(단위: km<sup>2</sup>)

구분	공급규모(2016~2025)		
	총 공급면적	계획입지	개별입지
면적	11.314~13.844	7.368~9.533	3.946~4.312

#### 4. 산업단지 공급계획

- 전라북도 산업단지 공급규모는 2016년~2025년 기간 동안 총 12.280~15.888km<sup>2</sup>임.
  - 산업단지 공급규모는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비율을 60%로 적용하여 산정함.

<표 6-5> 전라북도 산업단지 공급계획(2016~2025)

(단위: km<sup>2</sup>)

구분	계획입지 공급규모 (‘16~’25)	산업시설용지 비율	산업단지 공급규모 (‘16~’25)
면적	7.368~9.533	60%	12.280~15.888

- 2016년~2022년 기간 동안 산업단지 유형별 공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산업단지 유형별 지정면적은 국가산업단지 1.242~1.553km<sup>2</sup>, 일반산업단지 9.155~11.881 km<sup>2</sup>, 도시첨단산업단지 0.030~0.050km<sup>2</sup>, 농공단지 1.853~2.404km<sup>2</sup>를 공급함.
  - 산업단지 유형별 산업시설면적은 국가산업단지 0.745~0.931km<sup>2</sup>, 일반산업단지 5.123~6.649km<sup>2</sup>, 도시첨단산업단지 0.018~0.030km<sup>2</sup>, 농공단지 1.482~1.923km<sup>2</sup>를 공급함.

<표 6-6> 전라북도 산업단지 유형별 공급계획(2016~2025)

(단위: km<sup>2</sup>)

유형	지정면적	산업시설용지 면적
총공급면적	12.280~15.888	7.368~9.533
국가산업단지	1.242~1.553	0.745~0.931
일반산업단지	9.155~11.881	5.123~6.649
도시첨단산업단지	0.030~0.050	0.018~0.030
농공단지	1.853~2.404	1.482~1.923

## 제2절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 1. 시·군별 계획입지 공급규모

- 시·군별 계획입지 공급규모는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면적 총량의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 미분양용지면적, 산업발전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함.

#### ■ 시·군별 산업단지 조성계획

- 2016년 현재 시·군에서 신규 지정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13개 단지에 총 9.329km<sup>2</sup>로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6.223km<sup>2</sup>임(2016년 10월말 기준) <표6-7>.
- 10개 시·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임.
- 산업시설용지면적 기준으로 김제시(2,421km<sup>2</sup>), 전주시(0.931km<sup>2</sup>), 정읍시(0.612km<sup>2</sup>), 고창군(0.600km<sup>2</sup>), 부안군(0.522km<sup>2</sup>), 남원시(0.510km<sup>2</sup>) 순으로 조성계획 면적이 큼.

<표 6-7> 시·군별 산업단지 조성계획 현황(2016년)

(단위: km<sup>2</sup>)

구분	단지명	사업기간	지정면적	산업시설용지면적
계	13개 단지		9.329	6.223
전주시	전주탄소섬유국가산업단지	'17~'23	1.553	0.931
익산시	목천농공단지	'18~'20	0.070	0.050
정읍시	소계		0.989	0.612
	철도산업농공단지	'17~'18	0.229	0.156
	최첨단의료복합일반산업단지	'18~'25	0.760	0.456
남원시	남원제2일반산업단지	'21~'27	0.668	0.510
김제시	지평선제2일반산업단지	'18~'20	3.721	2.421
완주군	완주농공단지	'17~'20	0.316	0.215
임실군	오수제2농공단지	'17~'20	0.149	0.110
순창군	순창특화농공단지	'18~'22	0.331	0.252
고창군	고창제2일반산업단지	'22~'30	0.800	0.600
부안군	소계		0.732	0.522
	부안일반산업단지	'24~'30	0.330	0.231
	줄포제2농공단지	'21~'26	0.330	0.231
	수산식품특화농공단지	'17~'20	0.072	0.060

주: 전라북도 조사자료임(2016년 10월말 현재 기준).





## ■ 시·군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현황

-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면적은 2015년말 기준 15.542km<sup>2</sup>임.
  - 전라북도의 산업시설용지 총 분양대상면적은 54.741km<sup>2</sup>이며, 이 중 39.199km<sup>2</sup>가 분양되어 미분양용지는 15.542km<sup>2</sup>임.
-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면적은 군산시가 7.826km<sup>2</sup>로 전북 미분양면적의 50.4%를 점유하고 있음
  - 군산시의 미분양용지는 조성 중에 있는 새만금산업단지로부터 발생한 것임.
- 익산시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면적은 2.733km<sup>2</sup>로 전북 미분양면적의 17.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발생하고 있음.
- 군산시와 익산시 외에 완주군(1.384km<sup>2</sup>), 김제시(1.007km<sup>2</sup>), 남원시(0.774km<sup>2</sup>), 고창군(0.554km<sup>2</sup>) 등이 0.5km<sup>2</sup> 이상의 미분양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표 6-8> 시·군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현황(2015년)

(단위: km<sup>2</sup>)

구분	산업시설용지(2015년)		
	분양대상면적 (A)	분양면적 (B)	미분양면적 (A-B)
전북	54,741	39,199	15,542
전주시	2,233	2,183	0,051
군산시	25,831	18,004	7,826
익산시	7,773	5,041	2,733
정읍시	3,034	2,575	0,460
남원시	1,358	0,583	0,774
김제시	3,446	2,439	1,007
완주군	7,069	5,685	1,384
진안군	0,341	0,318	0,023
무주군	0,279	0,279	0,000
장수군	0,356	0,267	0,089
임실군	0,511	0,275	0,236
순창군	0,497	0,406	0,092
고창군	1,186	0,632	0,554
부안군	0,825	0,511	0,314

자료: 국토부, 산업입지정보센터(2015년 말 기준)

## ■ 시·군별 계획입지 공급규모

- 계획기간(2016~2025년) 동안의 전라북도 계획입지 공급면적은 <표 6-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총 7.368~9.533km<sup>2</sup>로 계획됨.
- 시·군별 계획입지 공급면적은 전라북도 계획입지 공급면적(7.368~9.533km<sup>2</sup>) 내에서 시·군의 산업단지 조성계획,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고려하여 <표 6-8>와 같이 계획함.

<표 6-9> 시·군별 계획입지 공급규모(2016~2025)

(단위: km<sup>2</sup>)

구분	신규 조성계획 산단의 산업시설용지 면적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면적 (2015년)	시·군별 계획입지 공급규모 (2016~2025)
전북	6.223	39.199	7.368~9.533
전주시	0.931	2.183	0.909~1.186
군산시	—	18.004	0.197~0.296
익산시	0.050	5.041	0.228~0.310
정읍시	0.612	2.575	0.543~0.691
남원시	0.510	0.583	0.469~0.598
김제시	2.421	2.439	0.518~0.823
완주군	0.215	5.685	1.496~1.870
진안군	—	0.318	0.414~0.517
무주군	—	0.279	0.277~0.346
장수군	—	0.267	0.534~0.668
임실군	0.110	0.275	0.344~0.430
순창군	0.252	0.406	0.377~0.471
고창군	0.600	0.632	0.528~0.660
부안군	0.522	0.511	0.534~0.667

## 2.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2016~2025)

- 계획기간(2016년~2025년) 동안의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규모는 <표 6-10>과 같음.
- 계획기간(2016년~2025년) 동안 시·군별로 총 11,314~13,844km<sup>2</sup>의 산업입지를 신규로 공급함.
- 입지유형별로는 계획입지 7,368~9,533km<sup>2</sup>, 개별입지 3,946km<sup>2</sup>~4,312km<sup>2</sup>임.

<표 6-10> 시·군별 산업입지 공급계획(2016~2025)

(단위: km<sup>2</sup>)

구분	총 공급면적	계획입지 공급면적	개별입지 공급면적
<b>전북</b>	<b>11,314~13,844</b>	<b>7,368~9,533</b>	<b>3,946~4,312</b>
전주시	1,413~1,737	0,909~1,186	0,504~0,551
군산시	0,378~0,493	0,197~0,296	0,181~0,197
익산시	0,377~0,473	0,228~0,310	0,149~0,163
정읍시	0,813~0,986	0,543~0,691	0,270~0,295
남원시	0,705~0,856	0,469~0,598	0,236~0,258
김제시	1,075~1,431	0,518~0,823	0,557~0,608
완주군	2,177~2,614	1,496~1,870	0,681~0,744
진안군	0,602~0,723	0,414~0,517	0,188~0,206
무주군	0,403~0,483	0,277~0,346	0,126~0,137
장수군	0,777~0,934	0,534~0,668	0,243~0,266
임실군	0,501~0,601	0,344~0,430	0,157~0,171
순창군	0,549~0,658	0,377~0,471	0,172~0,187
고창군	0,768~0,923	0,528~0,660	0,240~0,263
부안군	0,777~0,932	0,534~0,667	0,243~0,265

### 3. 시·군별 산업단지 공급계획(2016~2025)

- 계획기간(2016년~2025년) 기간 동안의 전라북도 시·군별 산업단지 공급규모는 <표 6-10>과 같음.
- 산업단지 공급규모는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비율을 60%로 적용하여 산정함.
- 전라북도 시·군별 산업단지 공급규모는 2016년~2025년 기간 동안 총 12.284~15.889㎢임.

<표 6-11> 시·군별 산업단지 공급계획(2016~2025)

(단위: ㎢)

구분	산업시설용지 공급규모	산업시설용지 비율	산업단지 공급규모
전북	7.368~9.533	60%	12.280~15.888
전주시	0.909~1.186		1.515~1.977
군산시	0.197~0.296		0.328~0.493
익산시	0.228~0.310		0.380~0.517
정읍시	0.543~0.691		0.905~1.152
남원시	0.469~0.598		0.782~0.997
김제시	0.518~0.823		0.863~1.372
완주군	1.496~1.870		2.493~3.117
진안군	0.414~0.517		0.690~0.862
무주군	0.277~0.346		0.462~0.577
장수군	0.534~0.668		0.890~1.113
임실군	0.344~0.430		0.573~0.717
순창군	0.377~0.471		0.628~0.785
고창군	0.528~0.660		0.880~1.100
부안군	0.534~0.667		0.890~1.112



##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 활성화

# 7

1.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2. 투자유치 및 산업용지 공급 지원



## 제7장 전라북도 산업입지 공급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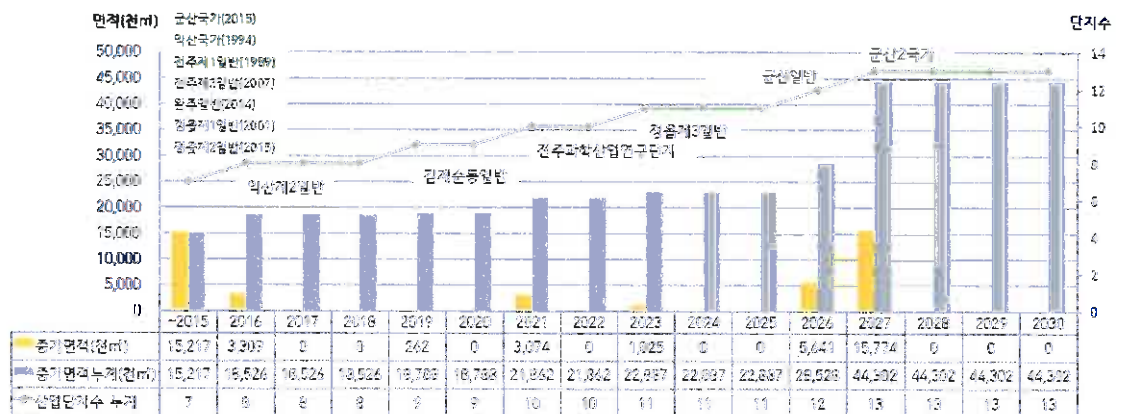
### 제1절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 1. 전라북도 노후 산업단지 현황

- 전북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중 2015년 말 기준으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7개 단지가 소재하고 있음.
  - 7개 단지는 익산국가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전주제2일반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정읍제2일반산업단지 등임.
- 2015년 말 이후 2027년까지는 6개 산업단지가 추가로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2027년 말 기준으로 총 13개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로 분류가 가능함.
  - 6개 산업단지는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군산일반산업단지, 군산2국가산업단지 등임.
  - 2027년까지 노후산업단지로 분류되는 13개 산업단지의 개발대상면적은 총 44,302km<sup>2</sup>임.

<표 7-1> 준공 후 20년 경과 전북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2015년 12월말 기준)

구분	준공 후 20년 경과 산업단지			비고
2015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익산국가산업단지</li> <li>•군산국가산업단지</li> <li>•전주제1일반산업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읍제1일반산업단지</li> <li>•전주제2일반산업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주일반산업단지</li> <li>•정읍제2일반산업단지</li> </ul>	7개
2016년~20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2국가산업단지</li> <li>•익산제2일반산업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li> <li>•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읍제3일반산업단지</li> <li>•군산일반산업단지</li> </ul>	6개



<그림 7-1> 준공 후 20년 경과 시기와 해당 산업단지 개발대상면적 증가 및 누계(2015년말 기준)



<표 7-2> 전라북도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의 준공 후 20년 경과 시기

단지명	시군구	지정 면적	지정 일자	개발대상 면적	착공일	준공 인가일	준공 후 20년
전주제1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전주시	1,806	1966. 06.20	1,806	1967. 08.07	1969. 11.29	1989
익산국가산업단지	익산시	1,336	1970. 03.24	1,336	1973. 11.18	1974. 12.31	1994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정읍시	202	1979. 10.04	202	1979. 12.27	1981. 12.31	2001
전주제2일반산업단지	전주시	687	1984. 03.14	687	1985. 07.06	1987. 12.31	2007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군	3,359	1988. 07.07	3,359	1989. 12.28	1994. 10.27	2014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시	13,702	1987. 08.17	6,828	1990. 04.01	1995. 01.28	2015
정읍제2일반산업단지	정읍시	999	1991. 04.18	999	1992. 05.02	1995. 03.18	2015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익산시	3,309	1978. 08.30	3,309	1985. 05.17	1996. 07.30	2016
김제순동일반산업단지	김제시	262	1995. 07.08	262	1996. 12.30	1999. 02.12	2019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군	3,074	1991. 12.05	3,074	1997. 06.20	2001. 12.20	2021
정읍제3일반산업단지	정읍시	1,025	1991. 04.18	1,025	1991. 12.30	2003. 12.19	2023
군산일반산업단지	군산시	5,641	1976. 03.12	5,641	1978. 09.14	2006. 01.18	2026
군산2국가산업단지[구:군장]	군산시	50,459	1989. 08.10	15,774	1993. 05.30	2007. 01.31	2027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1단계)	전주시	291	2008. 01.31	291	2008. 09.30	2011. 08.17	2031
전주시자원순환특화단지	전주시	80	2010. 05.18	80	2010. 07.26	2013. 01.08	2033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3-1단계)	전주시	284	2011. 12.01	284	2012. 02.03	2013. 11.18	2033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업단지	정읍시	896	2007. 06.29	896	2009. 02.26	2014. 02.28	2034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익산시	2,794	2008. 04.25	2,794	2009. 01.05	2014. 07.11	2034
익산제4일반산업단지[구:익산종합의료과학]	익산시	503	2008. 03.14	503	2009. 04.16	2015. 01.30	2035
완주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완주군	1,311	2010. 12.31	1,311	2011. 07.21	2015. 05.15	2035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부안군	354	2007. 12.21	354	2009. 02.16	2015. 08.28	2035

-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전라북도 노후산업단지 중 2개의 산업단지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전주제1일반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2012년)되었으며, 익산국가산업단지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선정(2015년)됨

## 2. 전라북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재생계획

### 1)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명: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전주 제1일반산업단지) 일원
- 면적: 1,806km<sup>2</sup>
- 지정년도: 2009년
- 사업기간: 2010년 ~ 2020년
- 사업비: 540.9억 원 (국비 270.4, 시비 271.5)
- 사업방식: 재정비방식
  -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가 재생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이 정비하는 방식
- 사업내용: 도로개설 및 확장(6.09km), 주차장(1개소, 3,357m<sup>2</sup>)

#### ■ 재생사업 기본방향과 목적

-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추진전략
토지이용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산마을 일원에 산업단지 지원 및 편의도모를 위해 지원시설공간 설치</li> <li>• 유휴지 및 빈 공장에 기반시설 설치</li> </ul>
산업구조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시 전략산업인 탄소,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도시형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유도</li> </ul>
친환경적 산단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학천변 녹지(축) 조성</li> <li>• 이용권 등을 고려한 테마형 공원 신설</li> </ul>
기반시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축인 팔과정로(대로 1-1호선) 신설 및 확장</li> <li>• 내부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li> <li>• 노상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li> </ul>

- 목적

-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및 지원시설 확보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단지 효율성 극대화
- 주변지역 경관 등을 고려한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재생
- 노후산업단지 정비를 통한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 2) 익산 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명: 익산 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 위치: 전북 익산시 신흥동, 영등동 일원(익산국가산업단지)
  - 면적: 1.336km<sup>2</sup>
  - 지정년도: 2015년
  - 사업기간: 2016년 ~ 2021년
  - 사업비: 210억 원 (국비 105, 시비 105)
  - 사업내용 : 노후 기반시설 정비 (주차장, 하수도, 도로, 공원 등)

### ■ 사업의 비전 및 목표

비전 (전통·지식·산업·문화·융합을 통한)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목표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생산액 8조원 달성 : 14년 1조4천억 → 21년 4조원 → 25년 8조원</li> <li>• 연간 수출액 15억불 달성 : 14년 4억7천불 → 21년 8억불 → 25년 15억불</li> <li>• 2025년 주력산업 기업유치 30개사, 미래산업 창업육성 100개사</li> <li>• 2025년 고용창출 1만명 달성</li> <li>• 2025년 투자유치 2조원</li> </ul>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산 산업 안전 대응역량 강화 및 에너지 저감 시스템 구축</li> <li>•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li> <li>• 자립형 산업생태계 활성화</li> </ul>		
		2016~2018 <기반시설 정비 및 구축>	2019~2021 <성공모델 구축>	2022~2025 <성공모델 확산>
전략	자립형 산업생태계 구축	(Hub & Spoke) Network형 혁신 플랫폼 구축	전통산업과 미래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미래형 도심 산업단지 구축
주요 추진 방안	미래산업 창업활성화 시스템 도입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전통산업 유치 및 육성센터	ICT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업종 고도화 센터 건립	익산 융복합 벨트 거점지구 조성 (일리온 벨리형 공급체계)		ICT 에너지저감 시스템 구축
	산업기술 전문인력 및 창의인력 양성	혁신자원 집적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디자인 (표준, 인증)지원 및 전시공간 확대	근로환경개선 및 문화복지 시설 및 인프라 개선

### 3. 전라북도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향

#### 1) 노후산업단지 실태 진단

-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2014, 노후산업 리모델링 종합계획)의 전북지역 노후 산업단지 진단결과 전반적으로 물리적 기반시설과 생활환경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7-3> 전북지역 소재 노후산업단지 진단결과

구분	진단 주요 의견
전주제1,2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기반시설이 노후화(상하수도 등)되었으며, 주차장 확보도 필요</li> <li>• 환경성 측면에서 녹지 및 공원 면적이 상대적으로 낮음.</li> <li>• 혁신역량은 비교적 우수</li> <li>•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영세업체 및 임차기업 비율이 높음.</li> </ul>
군산2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기반시설은 양호한 상태</li> <li>•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첨단산업 비율도 낮음.</li> </ul>
군산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기반시설은 양호한 상태</li> <li>• 혁신역량이 타 진단지표 결과에 비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술 개발과 R&amp;D 기능 강화가 필요</li> </ul> </li> <li>• 영세업체의 비율이 높은 편임.</li> </ul>
군산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기반시설 측면에서 도로 및 주차장 수요 검토가 필요</li> <li>• 혁신역량이 타 진단지표 결과에 비해 낮음.</li> </ul>
익산1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기반시설이 열악 :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li> <li>• 환경성 및 문화기반 시설 진단지표 결과가 평균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소비대비 생산액이 낮아 에너지 절감방안 마련이 필요</li> <li>- 지원시설 면적 확보 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필요</li> </ul> </li> <li>• 혁신역량이 타 진단지표 결과에 비해 낮음.</li> <li>• 산업구조 측면에서 첨단산업 업체 비중이 낮음.</li> </ul>
익산제2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기반시설 측면에서 주차장 수요 검토 필요</li> <li>• 환경성 및 문화기반 시설 진단지표 결과가 평균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 면적이 평균 이하</li> <li>- 생활환경 개선(어린이집, 기숙사 등) 검토 필요</li> </ul> </li> <li>• 혁신역량이 타 진단지표 결과에 비해 낮음.</li> </ul>
정읍제1,2,3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기반시설 측면에서 주차장 수요 검토 필요</li> <li>• 환경성 개선 및 문화기반 시설 확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면적이 평균 이하</li> <li>- 지원시설 면적 확보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필요</li> </ul> </li> <li>• 혁신역량이 타 진단지표 결과에 비해 낮음.</li> <li>• 산업구조 측면에서 첨단산업 업체 비중이 낮음.</li> </ul>
완주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기반시설 측면에서 건축물 노후화 개선사업 필요</li> <li>• 고용성장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으며, 혁신역량이 비교적 낮음.</li> </ul>

자료 :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2014.12 노후산업 리모델링 종합계획



## 2) 노후산업단지 재활성화 방향

### ■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 기반 마련

-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 및 확충
  - 기반시설 노후화 및 혁신역량 저하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도로 재정비 및 확충 : 물류 효율화 및 안전성 제고 도모
  - 부족한 주차 공간 및 물류기반시설 확충
- 연구·혁신역량 강화
  -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한 기업 연구 지원 및 인력 양성
  - 산단혁신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통합 지원
  - 산학연 R&D 클러스터 구축

### ■ 산업단지 기능의 효율화

- 공간 체계의 효율적 개편
  - 미래 산업수요에 대비한 창조적 산업입지 공간 구현
  - 주변 도시기능과 연계된 통합적 공간 구상
  -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 확대로 산업단지 쇠퇴를 사전에 예방
- 입주기업의 생산성 제고
  -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한국 제조업 현실에 맞는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및 모델공장 구축
  -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입주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기반 확대

### ■ 매력적인 근로환경 조성

-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편의 제고
  - 일과 여가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
    - ▶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용지(주거·상업·편의시설 등) 확충
    - ▶ 유휴 부지의 용도를 변경 및 기존 시설을 재활용을 통한 문화·복지·여가 공간 확충
    - ▶ 경관개선(야간 조명, 가로 식재,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한 낙후된 산업단지 이미지를 개선 및 매력적인 공간 재창출
    - ▶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 생태공원, 녹지공간 등
  -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주택·기숙사 공급
  -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

---

- 안전·편의시설 확충

- 환경개선펀드,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 업종 집적화 지원
  - 정부의 펀드 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근로자 편의시설·공간 마련, 업종 고도화·집적화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복합체육시설, 근로자 복지시설 등 확충을 위한 민간 투자 촉진
  - 환경유발업체 집적화를 통한 환경문제 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 :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중점관리사업장 이전 및 이전부지 활용(경쟁력강화사업 가용부지로 활용 등) 등
- 합동방재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 추진

-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창조적 사업 추진**

- 효율적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구성 : 관할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지원방안 수립, 경쟁력강화 제도개선 등의 역할 수행
-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구성 :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참여하여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제안 또는 자문 역할 수행

## 제2절 투자유치 및 산업용지 공급 지원

### 1.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 ■ 전략적인 투자유치 인프라 여건 개선

-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여부는 기업의 입지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도로 항만, 공항,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의 입지에 물리적인 제약요소로 작용함.
- 핵심적인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개선을 통해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는 차별화된 인프라 개선 전략을 추진
  -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략적으로 개선

#### ■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한 기업유치전략 추진

- 기업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기업과 가치사슬상 연관 기업의 유치를 통해 기업유치활동의 성과를 제고
  - 전북은 관련 산업과 혁신기관의 집적 강화와 함께 혁신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음.
- 지역혁신기반과 연계한 기업유치전략을 추진
  - 심화된 경쟁환경에서 기업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식자원과의 접근성을 중시하는 경향임.
  -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전북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혁신거점과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및 지자체연구소, 지역혁신센터 등 혁신기관들의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및 구축 장비의 지원, 기술지원 등과 연계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

#### ■ 맞춤형 기업유치전략 강화

-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성과를 제고
  - 기업에 따라 투자입지 요인이 상이하므로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업지원 사항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투자유치 대상을 타겟팅하고 이를 대상으로 패키지 형태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과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
  - 지역의 산업육성정책과 연계한 타겟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

## ■ 투자 인센티브 지원

###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 적극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전북의 투자유치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함.
- 전라북도에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7-4>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제도

구 분		대 상	지원율 (10억 원 초과투자액)	지원한도
국내 기업	공장 설립 · 이전 (본사, 연구소 포함)	상시고용 20인 이상 (연구소, IT·CT, 탄소, 국내복귀 기업은 5명, 집단이전 기업은 각5명, 합20명 이상)	10%내	50억
		규칙의 주력산업이 특화지역 입주 시 : 개별 2%내, 20개 이상 집단 5%내(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 가능)		+ 50억
	생산자서비스업	상시고용 20인 이상 집단이전(각5명, 합20명 이상)시 대상 포함 건물 임대시 임대료 50% 지원 (5년간 년1억 한도/ 본사, 연구소 포함)	5%내	10억
	기존기업 (신·증설 포함)	(공통)주력산업 / 첨단산업 / 필요심의업종 (기존부지내) 공통 &300억 이상 투자 &100명 이상 추가고용	기존부지 외(신설) 10% 내(토지구입비 포함)	50억
			기존부지 내(증설) 5% 내 (토지구입비 제외)	20억
	대규모 투자 (창업포함)	1천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10%내	100억
		투자기업 및 협력업체 정착 지원금	이주 1년 이후 1인당 10만원(1년)	+ 1인당 120만원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진입도로, 전기, 가스 등 30%내	+ 50억 (30억)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 사업영위 3년, 고용 30명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사)에 의함	
외투 기업		국내 이전기업 기준 준용	10%내	50억
		입지보조금 지원	임대료(분양가)차액/ 정상가 50%내	예산내
		투자보조금(입지보조금 중복지원불가, 단, 대규모 투자시 중복가능(제15조))	(대규모)시설투자비 의 5%내	
		지방세감면, 공유재산특례, 생활환경개선지원 등	취득세감면/ 공유재산 조례 등 참조	50억

자료: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에서 정리



### ■ 농촌지역 투자인센티브 강화

- 전북의 농촌지역은 산업집적이 취약하고 각종 산업 인프라도 취약한 상황으로 기업의 투자여건이 매우 불리함.
  - 전북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전주권을 중심으로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도 집중되어 있음.
- 농촌지역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강화
  -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연구개발 등 각종 산업인프라를 개선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중단기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행 재정적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우선 강화

## 2. 산업단지 개발 지원

### ■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 지원 추진체계 구축

-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적 공급 및 관리를 추진
  - 전라북도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 또한 산업단지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

### ■ 낙후지역 산업단지 개발 촉진 지원

- 기업의 투자수요가 적은 농촌지역의 산업단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개발자에 대한 적적이윤율의 상향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
  -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서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개발 이윤율을 일반지역에 대한 이윤율인 10%를 초과한 12%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